



고등 국어 상
(박영민 외) 1~5 단원

1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01 삶의 길을 찾아가는 책 읽기

소단원 평가 문제

021~022쪽

01 ③ 02 ③ 03 ② 04 도서 청구 기호 05 ④ 06 ⑤
07 ⑤ 08 ⑤

01 자신의 연간 독서량을 점검하는 것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머지는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 필요한 질문들로 이에 답해 보며 진로를 탐구해 나갈 수 있다.

02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을 선정하여 읽을 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찾아 그 책들 중에 자신의 관심과 흥미,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읽을 책을 선정한다. 그다음 실제 책 읽기를 하고 친구들과 책 내용을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진로 및 관심 분야를 탐구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03 도서관에서 진로 및 관심 분야에 관한 책을 찾을 때는 자신이 찾고자 하는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책을 검색해야 한다. 관심 분야에서 내용이 벗어난 책까지 찾는 것은 불필요한 행동이다.

[오답풀이] ① 책에 관한 전문가인 도서관 사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 더 빠르고, 알맞게 진로와 관련 있는 책을 찾을 수 있다.

③ 친구와 함께 책을 찾는다면 세부 분야를 나눠 찾는 것이 효율적인 도서관 이용 방법이다.

④ 주제어를 미리 생각해 가면 컴퓨터 검색대에서 검색어를 빨리 입력할 수 있고,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 있는 책을 빨리 찾을 수 있다.

⑤ 도서관에서 정한 대출 권수 내에서 책을 대출하는 것이 올바른 도서관 이용 방법이다.

04 ‘분류 기호’는 같은 주제에 의해 부여된 기호이고, ‘저자 기호’는 같은 저자의 자료를 한곳에 모아 주는 기호이다. 분류 기호와 저자 기호를 통틀어 칭하는 것을 ‘도서 청구 기호’라고 하는데, 서가에서 책을 찾을 때 청구 기호를 이용하면 쉽고 편하게 책을 찾을 수 있다.

배경지식+ 도서 청구 기호

도서관에 있는 책의 책등 하단에는 도서 청구 기호가 있는데, 이것은 책이 도서관의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는 일종의 ‘주소’라 할 수 있다. 저자는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는데, 한 명의 저자가 같은 제목의 책을 시리즈로 내는 경우는 ‘-’ 기호를 써서

분류한다.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여러 권 보관하고 있다면 ‘-’을 써서 분류하기도 한다.

05 진로 및 관심 분야에 관한 책을 선정할 때는 글쓴이의 주관이 확실히 드러나는지를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관심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가)를 통해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에 관한 책을 찾아 읽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② 책을 읽기 전 독서 계획을 세울 때 독서 기간과 목표 쪽수를 정한다. 이번 학기 동안 읽을 책을 선정한다고 하였으므로 한 학기 동안 읽을 수 있는 적절한 분량의 책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③ 책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거나 자신의 수준 이상으로 어렵다면 책 읽기에 흥미가 떨어질 수 있다. 자신의 관심과 흥미, 지식수준에 맞는지를 고려하여 책을 선정해야 한다.

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좋은 책을 선정한다면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06 이 글에서는 모두 구성원들이 공통 관심 분야인 과학 기술 분야에 관한 책을 각자 읽은 뒤 읽은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자신의 진로를 탐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책 내용이나 글쓴이의 관점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07 서준은 인공 지능을 가진 로봇이 인류의 행복을 보장하진 않을 것이라고 한 정연의 말에 대해 “사람보다 똑똑하고 강한 기계를 사람이 통제할 수 있을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며 정연과 같은 입장에서 생각할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예지는 책을 읽고 과학 기술의 산물을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② 예지는 대화의 마지막에서 로봇에 대한 책을 찾아 읽고 진로를 구체적으로 그려 봐야겠다고 앞으로 할 일을 정했음을 밝혔다.

③ 정연은 뇌 과학자가 쓴 책을 읽고, “과학 기술이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④ 서준은 자신이 읽은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적정 기술의 장점을 언급하며 그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08 정연은 과학 기술이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성찰해 볼 것을 제기하고 있다. ⑤의 내용은 적정 기술에 관한 책을 읽은 서준에게 적절한 심화 활동이다.

[오답풀이] ③, ④ 서준은 책을 읽고 적정 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다. 따라서 해당 책의 저자가 쓴 다른 책을 읽어 보거나 적정 기술을 적용하여 성공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심화하는 활동으로 적절하다.

02 글로 쓰는 나의 꿈

소단원 평가 문제

037~038쪽

01 ③ 02 ③ 03 ⑤ 04 ④ 05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06 ⑤ 07 ④ 08 사회적 상호 작용

01 이 글은 예지가 자신의 꿈인 로봇 공학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글을 쓰기 전에 쓰기 맥락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지는 글의 목적은 정보 전달, 주제는 로봇 공학자에 대한 소개, 예상 독자는 (진로와 관련하여 고민이 많은) 청소년, 매체는 인터넷 매체를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예상 독자를 설정할 때 진로에 고민이 많은 불특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지, 같은 학교 학생들에 한정된 것은 아니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④ 예지는 블로그나 누리소통망(SNS)에 글을 올릴 생각이다. 이와 같은 인터넷 매체는 독자의 반응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독자와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여 보다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⑤ 예지는 자신의 꿈인 로봇 공학자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쓰고자 하며 이 글을 읽는 독자는 자신과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이나 이 직업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핵심 키워드 쓰기 맥락

목적	글을 통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설득, 정보 전달, 정서 표현 등이 있음.
주제	글쓴이가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바로, 같은 소재(현상)를 다루더라도 목적이나 글쓴이의 의도에 따라 주제가 다르게 나타남.
예상 독자	나이, 성별, 계층, 글쓴이와의 관계 등에 따라 내용이나 표현, 어휘 등을 다르게 사용함.
매체	인쇄 매체, 인터넷 매체 등이 있음.

02 예지가 분석한 쓰기 맥락을 보면 글의 목적은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이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을 쓸 때에는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설득적·논리적 표현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 적합하므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므로 내용을 '처음-가운데-끝'으로 조직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예상 독자인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면 보다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시킬 수 있다.

④ 블로그나 누리소통망 같은 인터넷 매체에 올리는 글이므로 글 외에도 동영상, 음악,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⑤ 주제가 막연하면 내용을 선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좋다.

03 글을 쓰기 전에 인터넷, 책,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그중에서 글로 쓸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정확하고 확실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료의 신뢰도가 높아야 한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믿을 수 있는 출처에서 자료를 얻어야 하는데, 이때 가능한 한 최근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오래된 자료일수록 현재의 규범, 상황, 형편 등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최신의 자료를 수집하여 사용해야 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공신력이란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는 정보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두루 인정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② 예상 독자의 요구나 수준, 기대 등에 따라 자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상 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③ 매체에 따라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전달할 매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④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04 글쓰기 과정에서 '내용 조직하기 및 표현하기'는 글로 쓸 내용을 조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글로 표현하는 단계이다. 글을 쓸 때에는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써야 하며, 글을 쓰다가 내용이 부족하면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④와 같이 내용이 부족하면 글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

[오답풀이] ① [A] 단계에서는 글을 쓰려는 목적과 주제, 예상 독자, 글을 올릴 매체 등의 쓰기 맥락을 분석하여 글쓰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B] 단계에서는 글쓴이 자신의 경험과 배경지식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 잘 몰랐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③ [C] 단계에서는 글을 완성한 후, 글의 끝부분에 인용하거나 참고한 자료의 출처도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⑤ [D] 단계는 완성한 글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쓰기 맥락에 맞게 글을 썼는지,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명료하고 간결한 문장 표현을 썼는지 등을 고려하여 글을 고쳐 써야 한다.

완성자의 조언

고쳐쓰기를 할 때에는 글의 내용 및 글의 구조나 전체적인 흐름 또는 문단의 조직, 표현 방식이나 맞춤법, 어법 등을 고루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05 <보기>의 대화에서 정연은 쓰기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쓰기는 글쓴이의 배경지식과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과 다양한 매체에서 얻은 자료를 종합하여 새로이 조직하고 글로 표현하는 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쓰기 활동을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06 이 글의 끝부분에는 로봇 공학의 전망과 자신의 꿈에 대한 응원을 당부하는 말이 담겨 있다. 따라서 끝부분의 내용으로 로봇의 다양한 종류 소개 및 독자에게 당부할 말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첫 번째 문단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꿈인 로봇 공학자에 대해 소개할 것임을 안내하고 있다.

② 두 번째 문단에서 로봇 공학자가 하는 일과 로봇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③ 두 번째 문단에서 로봇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세부 공학 분야(전기·전자, 컴퓨터, 기계, 생체 공학)를 제시하고 있다.

④ 세 번째 문단에서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07 ㉓의 앞부분에서는 로봇 공학자가 하는 일과 로봇 공학의 세부 분야 등에 대해 밝혔고, ㉔의 뒷부분에서는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을 밝혔다. 따라서 ㉔에는 내용 전개 방향을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접속어인 ‘그렇다면’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이 글은 자신의 꿈인 로봇 공학자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로봇 공학의 중요성과 미래’는 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상상을 현실로 이루어 내는 로봇 공학자’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개발’은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 줌’의 의미이므로 ‘운영 체제’와 어울리지 않는다.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놓음’의 의미인 ‘개발’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③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바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지시 대명사 ‘이’를 사용하여 ‘이처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홍○○의 말에 따르면 ~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의 형태로 써야 문장의 호응에 맞는다.

08 <보기>는 자신이 쓴 글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는 활동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글쓴이는 예상 독자의 수준과 관심을 고려하여 그들의 요구나 반응을 예상하면서 글을 써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쓰기가 독자와 사회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의사소통 활동임을 알 수 있다.

03 시각 상과 촉각 상

C 확인 문제

043쪽 01 ③ 02 프로필

044쪽 03 측면 04 ③

045쪽 05 ①

046쪽 06 촉각 상, 시각 상 07 (1) × (2) ○

047쪽 08 시각적 사실의 재현 09 ⑤

048쪽 10 ③

01 이 글은 시각 상과 촉각 상을 제재로 인간의 인식과 사유를 표현하는 예술로서의 미술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설명문이다.

[오답풀이] ①, ②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쓰는 글은 논설문이다.

④ 연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글은 보고서이다. 이 글은 미술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글이다.

⑤ 일반적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쓰는 글은 시나 수필과 같은 문학 갈래이다.

02 (나)에서 프로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대상의 측면 이미지를 표현한 것을 프로필이라 부르는데, 미술에서 프로필은 사람의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묘사함으로써 인물의 핵심적인 특징을 뽑아낸 그림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03 (라)에서 사람은 동물과 달리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면을 동시에 가진다고 하였다. 사람을 볼 때 얼굴과 다리는 옆면이 대표적인 이미지 면으로 떠오르고 가슴과 눈은 앞면이 대표적인 이미지 면으로 떠오른다. 즉, 사람은 측면과 정면을 동시에 대표적인 이미지 면으로 갖는다.

04 (라)에서 인간이 네 발로 지상을 다닐 때는 옆면이 대표적인 이미지 면이었겠지만 두 발로 걸어 다니며 가슴과 배가 드러난 이후에는 옆면과 앞면이 동시에 대표적인 이미지 면이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동물은 대표적인 이미지 면이 하나씩 있음을 말. 물고기, 도마뱀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② 고대 이집트 벽화인 ‘늪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문’의 인물을 보면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측면과 정면의 모습을 함께 나타낸 형태로 그려져 있다. 즉, 이 그림의 인물에는 두 개의 전형의 면이 나타나 있다.

④ 인간이 네 발로 지상을 돌아다닐 때는 옆면이 대표적인 이미지 면이었을 것이라 하였다.

⑤ 어떤 대상을 떠올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면, 즉 우리 머릿속에 각인된 면을 전형의 면이라고 하였다.

05 제시된 활동은 이 글에 나온 단어인 ‘포치’의 뜻을 찾아보며 글을 읽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글을 읽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때 자료를 찾으며 그 의미를 자세하게 이해하는 읽기 방법으로 읽기 과정에서 ‘읽기 중’ 활동에 해당한다.

한자#생의 조언

‘읽기 중’ 활동에서는 배경지식을 이끌어 내어 글의 의미를 파악하고 글쓴이의 생각을 해석해야 하지만, 배경지식만으로 부족할 때는 자료를 찾으며 읽어야 해요. 특히 모르는 단어나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사전이나 다른 책을 찾아보며 의미를 이해하고 읽는 것이 좋아요.

06 (자)에서 촉각 상과 시각 상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촉각 상이란 촉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로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시각 상이란 시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로 주체가 본 그대로의 상을 나타낸 것이다.

07 (1) 원근법은 주체가 바라보는 대상이 멀고 가까운지에 따라 더 작거나 크게 그리는, 시각 상을 반영한 표현 방법이다. 사물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길이를 같게 그리는 것은 촉각 상에 토대를 둔 표현이다.
(2) (차)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촉각 상에 기초한 형태 이해를 강하게 드러낸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민화의 책거리 그림을 예로 들며 이러한 촉각 상으로 표현한 사례는 어디든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라 하였다. 오히려 시각 상에만 의존한 표현을 ‘특수한 현상’이라 칭한 것으로 보아 촉각 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08 (카)와 (타)에서 미술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카)에서는 완벽한 시각적 사실성을 표현하는 것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시기에만 발달하고 현대에 들어서 그것이 파괴된 것은 미술의 ‘아는 것을 전달하는’ 일차적 기능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타)에서는 미술의 보다 보편적인 기능은 세계에 대한 앎과 이해, 느낌을 전달하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또 시각 상으로 표현하는 시각적 사실의 재현은 그 보편적 기능을 전달하기 위한 많은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였다.

09 그림 「악사와 무희」는 신분이 낮은 존재(악사, 무희)를 그린 고대 이집트 벽화이다. 이 그림은 정면이나 측면 어느 한쪽에서 본, 보다 사실적인 묘사로 그린 것으로, 시각 상에 가깝게 표현하고 있다. 그림을 보면 인물들을 순수한 정면이나 측면에서 포착한 모습으로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시각적 사실성에 의지하여 재현한 것이다. 현대의 추상화는 사물의 사실적 재현이 아닌 ‘아는 것을 그린’ 것이므로 「악사와 무희」의 표현 방식과는 반대된다.

10 제시된 읽기 활동은 글을 다 읽고 깨달은 점을 서술한 내용으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학습 활동

확인 문제

051쪽 **생각 모으기** 01 필요한 내용(정보) 02 (1) ㄹ (2) ㄱ, ㄷ (3) ㄴ, ㄹ

054쪽 **생각 펼치기** 03 ③ 04 ④ 05 ④ 06 ③

01 제시된 읽기 목적을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한 읽기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글에서 필요한 부분만 찾아 골라 읽는 방법이 적절하다.

02 독자는 읽기 과정에 따라 적절한 읽기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읽어야 한다. 읽기 전에는 글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거나 전개될 내용을 예측해 본다. 읽는 중에는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게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찾거나 주요 내용, 궁금한 점 등을 기록하며 읽는다. 읽은 내용을 확인하고 적용하는 읽은 후 활동에서는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의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03 나 는 어린 시절 『왕자와 거지』라는 책을 읽은 글쓴이의 경험을 들어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실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일에 대한 깨달음을 진솔하게 서술한 수필이므로 ③이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 의 글쓴이는 오늘날 자동차 중심의 문화를 문제라 여기고 그것을 비판하고 있다.

② 가 의 글쓴이는 어린이, 노인, 환자, 장애인들이 힘겹게 길을 다녀야 하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며 다수의 보행자의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 의 글쓴이는 책을 읽는 일이 ‘생각의 여로’와 같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전달하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⑤ 가 는 글쓴이의 주장을 근거를 들어 제시하는 논설문이므로 설득적, 비판적 성격을 지닌다. 나 는 글쓴이의 경험을 자유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제시한 수필이므로 자기 고백적, 성찰적 성격을 지닌다.

04 가 의 글쓴이는 자동차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며 소수의 운전자보다 다수의 보행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05 나 는 글쓴이의 경험과 그에 따른 깨달음을 진솔하게 풀어 낸 수필이다. 수필과 같은 문학 작품은 독자가 감동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 읽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답풀이】 ①, ③ 논설문, 논평과 같은 주장하는 글의 읽기 목적으로 적절하다.

② 설명문과 같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읽기 목적으로 적절하다.

⑤ 문학 작품을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읽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기 어렵다.

06 읽기의 ‘전 - 중 - 후’ 과정에 따라 적절한 읽기 방법이 있다. 글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읽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읽기 방법을 무조건 많이 활용한다고 글의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읽기의 단계에 적절하지 않은 읽기 방법을 활용하면 글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읽기 목적에 따라 글을 읽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글을 읽기 전에 읽기 목적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② 글을 읽는 과정에서는 읽기 방법이 적합한지 판단·평가하고, 그에 따라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한다.

④ 글의 종류나 특성, 읽기 목적에 따라 읽기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⑤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기 위한 활동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국문! 읽기 과정에서 읽기 방법의 점검과 조정

읽기 방법의 점검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해결 방법

읽기 방법의 조정

- 모르는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봄.
- 글 내용이 어렵다면 조금 더 쉬운 글로 바꾸어 읽거나 참고 서적을 찾아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힘.
- 글의 일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잠깐 유보하고 읽기를 계속한 다음 전후 맥락을 고려하여 글의 의미를 구성함.

소단원 평가 문제

057~059쪽

01 ② 02 ⑤ 03 ④ 04 정면과 측면(앞면과 옆면) 05 ④
06 ② 07 촉각 상으로 그렸다. 08 ② 09 ④ 10 ②

01 이 글은 객관적인 정보를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설명문이다. 제목에서도 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핵심 내용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을 보고 글쓴이의 주장을 예측하며 읽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잘 모르는 낱말을 사전을 찾아 가며 읽는 것은 세 부적인 내용 이해를 위한 읽기 중 활동으로 적절하다.

③ 글을 읽으며 궁금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읽는 것은 읽기 중 활동으로 적절하다.

④ 글의 구성 단계별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며 읽으면 글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⑤ 이 글의 제목과 부제목을 보고 미술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떠올리는 것은 적절한 읽기 전 활동이다.

02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분석의 방법이다. 이 글에는 분석의 설명 방식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서양과 동양의 초상 갈래의 차이를 대조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② (가)에서 ‘프로필’의 개념을 정의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가)에서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 (나)에서 “동물들을 그릴 때 ~ 어느 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가?”, “물고기는 어떤가?”,

“도마뱀을 그려 본다면?”, (다)에서 “사람은 어떤가?”와 같이 물음을 던진 후 관련 내용에 대해 스스로 답하는 문답의 방식으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④ (나)에서는 여러 동물들의 사례를, (다)에서는 고대 이집트 벽화(『늑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문』)의 사례를 들어 대표적인 이미지 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배경지식+ 설명 방식의 종류

정의	대상의 개념이나 용어의 뜻을 풀이하여 설명하는 방식
예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
비교·대조	• 비교: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 • 대조: 대상들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
분류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
분석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나 부분들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
열거	여러 가지 예나 사실을 낱말이 나열하여 설명하는 방식

03 가족 여행 중 기차 안에서 시간을 보낼 목적으로 이 글을 읽는다면, 오랜 시간 집중해서 읽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글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훑어 읽으며 흥미가 생기는 부분만 골라 집중해서 읽는 방법이 적절하다.

04 (다)에서는 고대 이집트 벽화의 인물을 예로 들어 얼굴과 다리는 측면에서 본 모습을, 가슴과 눈은 정면에서 본 모습을 그렸다고 제시하고 있다. 즉, 인간은 부위에 따라 앞면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옆면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 면을 동시에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고득점 전략

(나)에서는 동물이 가진 이미지 면은 그 종류에 따라 앞면 또는 옆면, 뒷면 중 하나만 떠오른다고 했어요. 또 (다)에서는 인간의 이미지 면에 대해 설명하며 『늑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문』을 예로 들어 동물과의 차이를 밝히고 있음을 주목해야 해요.

05 (라)에서는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상으로 나타낸 것이 촉각 상임을 밝히고 있다. 인물이나 사물의 실제 크기를 줄여 상으로 나타낸 것은 사물을 보는 위치에 따라 더 크거나 작게 그리는 시각 상의 특징이다. 촉각 상은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실제 그 형태나 모양이 어떤가에 더 관심을 둔다.

- 06 글을 읽으며 이집트인의 영혼 불멸 사상을 떠올린 것은 독자 자신이 갖고 있는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내용을 이해하는 읽기 방법이다.

[오답풀이] ⑤ 다른 고대 이집트 벽화를 찾아보는 것은 내용의 구체적 이해를 위한 읽기 방법이다.

07 서술형

〈보기〉의 사례는 대상이나 사물의 멀고 가까움을 그림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그것이 가진 객관적 형태나 모양을 중시하여 그린 그림이다. 따라서 〈보기〉의 사례는 촉각 상으로 표현한 그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고득점 전략

우리나라 민화 책거리 그림에서 책장과 탁자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길이를 같게 그리거나 앞 건물과 뒤 건물의 크기를 비슷하게 그리는 것은 원근법에 따른 그리기 방식이 아니예요. 〈보기〉와 같은 그림은 시각 상이 아니라 촉각 상에 따라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촉각 상과 시각 상의 특성은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시험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 08 (다)에 흔히 미술을 공간 예술이라 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만,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 이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아는 것을 전달하는 데에 미술의 일차적 기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나)에서는 이집트 벽화에서 농부나 무희처럼 신분이 낮은 존재를 그릴 때는 시각 상으로, 파라오나 귀족처럼 신분이 높은 존재를 그릴 때 촉각 상으로 그렸음을 설명하고 있다.

④ (나)에서 이집트인들이 신분 등의 세계의 질서에 대한 고유 인식을 담아 인물을 다르게 표현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⑤ (가)에서 시각적 사실성을 중시한 유럽의 미술이 쇠퇴한 것은 미술이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 이전에 아는 것을 전달하는 데에 일차적 기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09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만들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읽는 것은 읽은 후가 아닌 읽는 중에 활용하기에 적절한 읽기 방법이다.

- 10 (라)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주장하는 글이고, (마)는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찰한 내용을 쓴 수필이다. 글에 제시된 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인하며 읽는 것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문을 읽는 방법이다.

어휘 어법 활동

확인 문제

063쪽 01 (1) ○ (2) × (3) ○ 02 (1) 탐색 (2) 적정 (3) 전형 (4) 맥락

- 01 (1) 여기서의 ‘택’은 ‘선생님 택, 이사장 택’과 같이 ‘남의 집이나 가정을 높여 이르는 말’로 쓰였다.

(2) ‘외교가’는 ‘외교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사교, 교섭 따위에 능란한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 쓰인 접미사 ‘-가’는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그것에 능한 사람’의 뜻을 더하는 역할을 한다.

(3) ‘마을 사람들이 그 땅을 공유하고 있다.’와 ‘이 기쁨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다.’에서 보듯이 물건뿐만 아니라 정서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유’를 사용한다.

- 02 (1) ‘어떤 대상의 숨겨진 것을 찾아내거나 밝히기 위해 살피어 찾는다.’는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탐색’이 적절하다.

(2) 실내 온도를 알맞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알맞고 바른 정도’를 의미하는 ‘적정’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3) 고향의 초가는 시골 농가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으므로 ‘같은 부류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본보기’를 의미하는 ‘전형’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4) 경찰은 최근에 일어난 여러 사건을 서로 연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을 의미하는 ‘맥락’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대단원 모의고사

066~069쪽

01 ③ 02 ⑤ 03 ③ 04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하여 보충·심화할 수 있는 책을 찾아 읽어야 한다. 05 ⑤ 06 ⑤ 07 ④ 08 ② 09 ① 10 ③ 11 ⑤ 12 ⑤ 13 ㉠: 아는 것 ㉡: 시각적 사실(시각적 경험) 14 ④

- 01 이 토의에 참여한 학생들은 과학 기술 분야에 관련한 책을 읽고 자신이 읽은 책 내용을 소개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 각자 자신이 읽은 책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 깨달은 점, 생각해 볼 만한 문제를 이야기하고는 있으나,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② 학생들은 ‘과학 기술 분야’라는 모둠 공통의 관심사와 관련하여 각기 다른 책을 읽고 토의에 참여하고 있다.

④ 이 대화는 진로 및 관심 분야를 탐색하기 위한 독서 활동의 하나로, 책 읽기가 모두 끝난 뒤에 이루어지는 독서 토의이다.

⑤ 서준과 예지는 책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깨달은 점을 말하며 그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다.

- 02 모둠을 만들어 진로 및 관심 분야에 대한 공통점을 탐구하여 책을 읽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주제어로 책을 검색하면 그 분야의 책을 선정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무조건 가장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의 책보다는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에 맞으면서 책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가 좋은 편인 책을 선정하도록 한다.

|오답풀이| ① 각자 자신이 잘하는 과목이나 좋아하는 과목의 공통점을 찾으면 그 분야의 책을 찾기가 쉽다.

②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움을 알고 공통점을 찾으면 그 분야의 책을 찾기가 쉽다.

③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전문적이면 내용 이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지식수준에 맞는 책을 읽어야 한다.

④ 기한 내에 소화하기 어려운 많은 분량의 책은 끝까지 읽기가 어려울 수 있다.

03 독서 일지는 정해진 독서 시간이 끝날 때마다 정리하는 것이 좋다. 책을 모두 읽은 뒤 한 번에 몰아서 쓰면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을 수 있고 책을 읽은 당시의 생각이나 느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04 서술형

이 글의 학생들은 진로 및 관심 분야 탐색을 위해 한 권의 책을 읽고 친구들과 정보 공유를 위한 독서 토의를 하였다. 그 이후에는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 '더 찾아 읽기'를 할 수 있다. 이때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보충하거나 심화할 수 있는 책을 찾아 읽는 것이 좋다.

05 수집한 자료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다. 쓰기 맥락을 분석할 때는 글의 목적과 주제, 예상 독자와 글을 실을 매체를 고려해야 한다.

06 이 글은 로봇 공학자를 꿈꾸는 글쓴이가 자신의 진로를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로봇 공학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설명하고, 로봇 공학의 전망과 자신의 꿈에 대한 응원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자신의 꿈을 소개하는 글을 읽고 ⑤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글의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독해 결과라 할 수 있다.

07 누리소통망(SNS)에 글을 쓸 때 매체의 특성상 간결하게 써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정보의 출처를 생략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오답풀이| ① 학급 문집은 인쇄 매체로, 사진 및 그림과 같은 시각 자료를 삽입할 수 있다.

② 교내 신문은 학교라는 공적인 기관에서 많은 대중이 함께 보는 매체이므로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③ 블로그의 특성상 사진, 음악, 동영상 등과 같은 자료를 글과 함께 올릴 수 있다.

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관련 누리집 주소를 링크할 수 있다.

08 쓰기가 사회적 상호 작용을 한다는 것은 쓰기는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글을 쓸 때 예상 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의미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시된 내용 중 이와 관련하여 글쓴이가 갖추어야 하는 태도로 적절한 것은 ㄱ, ㄴ, ㄷ이다.

|오답풀이| ㄷ, ㄹ은 의미 구성 과정으로서의 쓰기를 위해 글쓴이가 갖추어야 할 태도에 해당한다.

09 이 글은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설명문이다. 따라서 글쓴이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내용을 전달한다. 글쓴이의 개성적이고 독특한 문체가 나타나는 것은 수필과 같이 자기 고백적인 성격을 지닌 글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② 동양과 서양의 초상 갈래의 표현상 특성을 비교·대조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동물들을 그릴 때 ~ 제일 먼저 떠오르는가?,” “사람은 어떤가?”와 같이 질문을 한 뒤 이에 대해 답하는 문답의 방식을 사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주의를 끌고 있다.

④ 미술의 초상 갈래의 표현상 특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⑤ 핵심어인 ‘프로필’의 개념을 정의의 방식으로 풀어 설명하고, 동물들과 고대 이집트 벽화를 예시로 들어 동물과 인간의 대표적 이미지 면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만자생의 조언

문체는 문장의 개성적 특색을 뜻해요. 글이 쓰인 시대, 문장의 종류, 글쓴이에 따라 그 특성이 문장의 전체 또는 부분에서 드러나지요. 문체는 문장의 특색이므로 수필이나 소설과 같이 문장을 나열하여 줄글로 표현하는 글에서 잘 드러나겠죠?

10 ③과 같이 글을 읽는 중에는 글쓴이의 의도, 숨겨진 내용 등을 추론하며 글의 중요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답풀이| ①, ⑤ ‘읽는 중에 할 수 있는 질문이다.

② ‘읽기 전’에 할 수 있는 질문이다.

④ ‘읽은 후’에 할 수 있는 질문이다.

11 (다)에서 이집트 벽화 「늑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문」의 사례를 제시하며 측면과 정면을 동시에 표현한 것이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자세임을 밝히고 있다.

|오답풀이| ① (다)에서 인간이 진화하여 두 발로 걸어 다니게 되면서 가슴과 배가 드러나 앞면과 옆면이 대표적인 이미지 면이 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② (가)에서 대상의 측면 이미지를 표현하는 프로필은 동양보다 서양에서 많이 그려졌음을 제시하고 있다.

③ (나)에서 예를 들어 동물의 경우 전형적으로 각인된 이미지 면이 하나임을 제시하고 있다.

④ (라)에서 서양에서 프로필이 많이 그려진 이유 중 하나로 고대로마 주화에 황제의 얼굴을 새길 때 항상 측면 상을 새긴 전통이 있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 12 <보기>는 고대 이집트에서 신분이 낮은 존재(악사, 무희)를 그린 그림으로 '세계의 질서'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고유 인식이 담겨 있다. (라)에서 이집트 벽화는 신분이 낮은 존재를 시각 상에 가깝게 그려 사실적인 묘사를 하였다고 하였다. 시각 상은 주체가 본 그대로 상을 나타낸 것으로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에 중점을 두어 표현하는 방식이다. ⑤는 촉각 상에 대한 설명이므로 <보기>의 그림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핵심 토픽 시각 상과 촉각 상의 비교

	시각 상	촉각 상
개념	주체가 본 그대로 상을 나타낸 것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상으로 나타낸 것
이집트 벽화의 적용	신분이 낮은 존재(농부, 무희)를 그린 그림	신분이 높은 존재(파라오, 귀족)를 그린 그림
이집트인의 세계에 대한 인식	찰나의 대상이자 필멸의 운명을 드러내는 것임.	영원한 질서의 대변자이자 영생을 약속받는 것임.

- 13 <보기>는 시각 상과 촉각 상을 통해 이 글의 글쓰기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 싶어 하는 중심 내용이다. (다)에서 촉각 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보편적으로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시각 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유럽의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 시대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현상이라고 하였다. 즉, 미술은 일차적으로 '아는 것(㉠)'을 전달하는 데 그 기능이 있고, '시각적 사실(㉡)'의 재현이 아닌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 보편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 14 독자는 글을 읽는 일련의 과정에서 각 단계에 적절한 읽기 방법을 활용하며 글을 읽는다. ④는 글의 전체 내용을 숙지해야 할 수 있는 활동이므로 글을 모두 '읽은 후'에 활용할 수 있는 읽기 방법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⑤는 글을 '읽는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읽기 방법이다.

배경 지식 요약하기의 방법

- 핵심어를 중심으로 글의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중심 문장을 찾음.
- 구체적인 예시나 부연 설명,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내용은 삭제함.
- 구성 단계를 고려하여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여 재구성함.

대단원 서술형 평가

070~072쪽

- 01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 찾기.
- 02 검색한 책 중, 읽고 싶은 책의 도서 청구 기호를 적어 해당 서가로 찾아간다.
- 03 학생들의 공통 관심 분야인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소개하며 책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 04 자신의 진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 보기 위해 로봇에 대한 책을 찾아 읽을 것이다.
- 05 로봇 공학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
- 06 글 외에 사진이나 동영상, 음악 등을 함께 제시하고,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누리집 주소를 링크한다. 등
- 07 ㉠: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 로봇 공학의 전망과 자신의 꿈에 대한 응원 당부
- 08 고대 이집트인은 죽은 뒤에 내세에서도 이승에서와 마찬가지로 삶을 지속한다고 생각했다. 보이는 대로 그리는 시각 상으로 표현했을 때 인체의 일부를 원근에 따라 작게 그리는 것을 인물의 실제 크기를 줄이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대상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상으로 나타내는 촉각 상에 따라 인간의 두 이미지 면을 편의적으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벽화를 그린 것이다.
- 09 이 글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므로 글의 내용이 정확한 사실인지 파악하며 읽어야 하고, <보기>는 글쓰기의 주장과 근거가 담겨 있는 글이므로 글쓰기가 글을 쓴 의도나 근거의 적절성을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 01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 잘하거나 좋아하는 과목,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에 대한 답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진로와 관심 분야를 찾아내었다. 이는 진로 및 관심 분야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다.

채점 기준	배점
자신의 '진로'와 '관심 분야'를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을 <조건>에 맞게 정확히 서술하였다.	6점
자신의 '진로'와 '관심 분야'를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확히 서술하였으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4점
자신의 '진로'와 '관심 분야'를 찾을 수 있다는 내용 중 한 단어만 맞게 서술하였다.	2점

- 02 [A] 단계에는 검색어를 입력한 것과 서가에서 검색한 책을 찾는 것 사이에 할 일이 들어가야 한다. 검색한 책을 서가에서 찾을 때는 도서 청구 기호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책을 찾을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A]에 들어갈 활동을 '도서 청구 기호'라는 핵심어를 포함하여 <조건>에 맞게 서술하였다.	6점
[A]에 들어갈 활동을 제시하였으나 '도서 청구 기호'라는 핵심어를 포함하지 않고 서술하였다.	3점

- 03** 예지의 첫 번째 말에서 독서 토의의 목적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공통의 관심 분야인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친구들과 책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독서 토의의 목적을 <조건>에 맞게 정확히 서술하였다.	6점
독서 토의의 목적을 공통 관심 분야를 밝혀 서술하였으나 <조건>의 형식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4점
독서 토의의 목적을 <조건>의 형식만 맞추어 제시하였으나 공통 관심 분야를 명확히 밝혀 서술하지 못하였다.	2점

- 04** 예지의 마지막 말에서 이 토의를 통해 깨달은 점과 앞으로 할 일을 알 수 있다. 예지는 로봇에 대한 지식을 넓혀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그려 보려 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예지가 앞으로 할 행동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였다.	6점
예지가 앞으로 할 행동은 제시하였으나 예지의 행동의 목적을 서술하지 못하였다.	3점

- 05** 예지의 쓰기 계획에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 탐색한 내용을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고 하였고, 쓰기 맥락 중 목적에서 다른 사람들이 로봇 공학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쓸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로봇 공학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글을 쓸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소개하려는 대상과 글의 목적을 <조건>에 맞게 정확히 서술하였다.	6점
<조건>에는 맞게 서술하였으나 소개하려는 대상과 글의 목적 중 하나만 정확히 서술하였다.	3점

- 06** 예지는 자신이 쓴 글을 올릴 매체로 인터넷 매체를 선택했다. 인터넷 매체는 글과 함께 사진이나 동영상, 음악 등의 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 또한 누리집 주소를 링크하여 독자가 쉽게 관련 정보를 더 찾아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인터넷 매체에 글을 올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이상 서술하였다.	6점
인터넷 매체에 글을 올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만 서술하였다.	3점

- 07** 제시된 글을 보면 <보기>에서 어떻게 내용을 조직했는지 추론할 수 있다. 글의 가운데 부분에서는 로봇 공학자가 하는 일과 로봇의 구성 요소를 먼저 제시하고, 다음 문단에서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글의 끝부분에서는 로봇 공학의 전망과 자신의 꿈을 응원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제시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과 ㉡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였다.	6점
㉠과 ㉡에 들어갈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4점
㉠과 ㉡에 들어갈 내용 중 하나만 정확히 서술하였다.	2점

- 08** 고대 이집트인의 사고방식은 (나)에 잘 드러나 있다.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진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주체가 본 그대로 상을 나타낼 경우 인물의 사지 중 일부가 작게 그려지거나 아예 안 보여서 무덤의 주인공이 내세에서 불편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 그 형태나 모양이 어떤가에 더 관심을 둔 촉각 상에 따라 인간의 두 이미지면을 편의적으로 봉합하여 동시에 나타낸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과 같이 그린 이유를 고대 이집트인의 사고방식을 포함하고 시각 상과 촉각 상의 개념을 연관 지어 서술하였다.	6점
㉠과 같이 그린 이유를 시각 상과 촉각 상의 개념을 연관 지어 제시하였으나 고대 이집트인의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서술하지 못하였다.	4점
㉠과 같이 그린 이유를 고대 이집트인의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제시하였으나 시각 상과 촉각 상의 개념을 연관 지어 서술하지 못하였다.	2점

- 09** 이 글은 어떤 대상에 대해 설명하는 글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독자는 설명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글쓴이가 제시한 내용이 정확한 사실인지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보기>는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글이다. 독자는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는 무엇인지, 제시된 근거는 적절한지 등을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이 글과 <보기>의 글의 특성에 따른 읽기 방법의 차이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였다.	6점
이 글과 <보기>의 글의 특성에 따른 읽기 방법의 차이를 제시하였으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4점
이 글과 <보기>의 글의 특성을 제시하였으나, 그에 따른 읽기 방법의 차이를 서술하지 못하였다.	2점

2 문학의 네 가지 빛깔

01 향수

C 확인 문제

080쪽 01 ㉔ 02 (1) 고향 (2) 후렴구, 운율감(리듬감), 주제 03
① 04 금빛 게으른 울음,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01 이 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으로, 화자는 고향을 떠났고 정겨운 공간으로 그려 내고 있다. 또한 '알 수도 없는 미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등의 표현을 통해 동화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로 과거를 회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가. 아버지와 아내의 모습에서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엿볼 수는 있지만, 화자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따라서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상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은 드러나지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는 이 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02 (1) 이 시는 향토적 소재와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평화롭고 아늑한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생생히 드러내고 있다.
(2)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라는 후렴구를 각 연에 반복하여 운율감(리듬감)을 형성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핵심 콤팩트 : 「향수」에 사용된 소재와 심상

• 「향수」에 사용된 향토적 소재

향토적 소재	평화롭고 아늑한 고향의 모습 형상화
실개천, 얼룩빼기 황소, 질화로, 짚베개 등	

• 「향수」에 쓰인 감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	얼룩빼기 황소, 파아란 하늘빛, 검은 귀밀머리 날리는, 석근 별, 흐릿한 불빛
청각적 심상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 서리 까마귀 우지 짓고, 도란도란거리는
촉각적 심상	풀섶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따가운 햇살
공감각적 심상	금빛 게으른 울음,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그리운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음.

03 이 시는 '실개천', '얼룩빼기 황소', '질화로', '짚베개' 등의 향토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화살'은 어린 시절의 꿈과 이상을 상징하는 시어로 향토적 소재가 아니다.

04 감각의 전이란 한 종류의 감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시켜 표현하는 것이므로 공감각적 심상을 말한다. 이 시에는 '금빛 게으른 울음',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에 청각을 시각화한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다.

학습 활동

C 확인 문제

083쪽 **생각 모으기** 01 ㉔ 02 운율을 형성한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여 드러낸다. 연과 연을 구분한다. 작품에 통일성과 구조적 안정감을 준다. 등 03 (1) × (2) ○ (3) ○ 04 유기적

084쪽 **생각 펼치기** 05 뒷마루, 그리움 06 (1) ○ (2) ○ (3) ×

01 화자는 5연에서 단란하고 행복한 고향 집의 정경을 그려 내고 있다. 5연에 가난한 고향 집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만, 풍요로운 가을 풍경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1연에서 평화롭고 한가로운 고향 마을의 정경을 보여 주고 있다.

② 2연에서는 밤바람 소리 들려오던 겨울밤의 고향 집과 늙으신 아버지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을 담아내고 있다.

③ 3연에서는 순수한 동심을 지녔던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④ 4연에서는 소박하고 정겨운 누이와 아내가 이삭을 줍는 가난한 삶을 사는 모습을 회상하고 있다.

02 「향수」에서는 후렴구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화자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연과 연을 구분지어 주고, 작품 전체에 통일성과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한다.

03 (1) 「향수」에는 '금빛 게으른 울음', '파아란 하늘빛', '검은 귀밀머리'에 색채 이미지가 제시되어 있지만, 색채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2) 「향수」에서는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향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에서 의인법을 사용하여 정겹고 따뜻한 고향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 검은 귀밀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에서 직유법을 사용하여 사랑스럽고 신비로운 누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또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에서 설의법을 사용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04 시를 구성하는 화자, 심상, 운율, 표현 기법은 화자의 정서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자 수단으로서 주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작품의 구성 요소와 작품 자체는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5 「외할머니의 뒤안 텃마루」에서 화자는 어린 시절 외할머니네 집 뒤안의 텃마루에서 외할머니와 함께한 추억을 떠올리면서 외할머니와 그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다.

06 (1) '텃마루'의 모습을 '(때) 거울'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2) '먹오뎃빛'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3) 이 시는 산문시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물이 없을 뿐, 고백하는 듯한 화자의 차분한 호흡을 통해 내재물을 지니고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087~088쪽

01 ② 02 ② 03 ⑤ 04 ④ 05 ② 06 ③ 07 ⑤ 08 실
개천, 얼룩빼기 황소 등의 시어를 통해 평화롭고 한가로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01 이 시는 각 연의 내용이 관련성 없이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기적으로 시상을 전개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각 연을 유기적 관련성 없이 병렬적으로 구성하여 고향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③ 각 연마다 '～는/～던 곳'의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의 후렴구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실개천', '얼룩빼기 황소', '질화로', '짚베개' 등 토속적인 시어를 통해 정겨운 고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⑤ '얼룩빼기 황소, 파아란 하늘빛, 검은 귀밀머리 날리는, 석근 별, 흐릿한 불빛'의 시각적 심상,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도란도란거리는' 청각적 심상, '풀섶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따가운 햇살'의 촉각적 심상, '금빛 게으른 울음,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의 공감각적 심상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고향의 정경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02 2연에는 겨울밤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난다. 여기서 아버지의 고단한 삶이 드러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아버지의 서글픔이 드러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서글픈 아버지의 내면이 드러나도록 그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1연에서 '실개천이 휘돌아' 나간다고 하였으므로 들뜬 개천이 흐르는 고향 정경을 그리는 것은 적절하다.

③ 3연에서 '풀섶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이라고 하였으므로

풀밭을 뛰어다니는 소년의 모습을 순수하고 해맑게 그리는 것은 적절하다.

④ 4연에서 '사철 발 벗은 아내'가 '이삭을 줍던 곳'이라고 하였으므로 들뜬 아내가 이삭을 줍는 아내의 모습을 순박하고 꾸밈없는 모습으로 그리는 것은 적절하다.

⑤ 5연에 '초라한 지붕'의 집에서 '흐릿한 불빛에' 식구들이 '도란도란' 거린다고 표현하였으므로 소박한 초가집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을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그리는 것은 적절하다.

03 '그곳'은 고향을 나타내는데, 고향에서의 누이의 모습은 이삭을 주워야 하는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순수하고 구김살 없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따라서 '고향'이 누이가 고단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곳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1연에서 화자는 '고향'을 '얼룩빼기 황소가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고향'은 평화롭고 한가로운 곳이라 할 수 있다.

② 3연의 '파아란 하늘빛이 그리워 /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하였다는 부분에서 어린 시절의 꿈과 이상에 대한 동경,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때 '고향'은 꿈 많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③ 5연에서 화자는 '초라한 지붕'으로 가난한 고향 집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고향 집을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고향'은 가난하지만 단란한 가족의 삶이 있던 곳이라고 할 수 있다.

④ 2연에서 화자는 '질화로에 재가 식으면 '젊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베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이라고 '고향'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고향'은 겨울밤 늙으신 아버지와 추억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04 이 시는 '～는/～던 곳'으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의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보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을 찾을 수는 없지만 자신의 유년 시절을 고백하는 듯한 화자의 차분한 호흡을 통해 내재물을 느낄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② 이 시에서 화자는 고향을 회상하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고, <보기>에서 화자는 유년 시절과 외할머니를 추억하며 외할머니와 그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이 시에서는 '얼룩빼기 황소, 파아란 하늘빛, 검은 귀밀머리 날리는, 석근 별, 흐릿한 불빛'의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향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텃마루의 모습을 '먹오뎃빛 텃마루'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⑤ 이 시는 고향의 정경 묘사를 통해 마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고, <보기>는 유년 시절의 추억과 외할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서사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배경지식* 운율의 종류

- 외형률: 반복되는 규칙이 겉으로 드러나 느껴지는 운율
- 내재율: 시를 읽으면서 일정한 규칙 없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운율

05 이 시의 후렴구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이다. 꿈에서도 그곳(고향)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고향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는 표현이므로 ②에서 후렴구가 화자의 감정을 절제한 표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후렴구를 각 연에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화자의 정서를 후렴구를 통해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각 연의 앞부분에서는 고향의 정경을 보여 주고 후렴구에서는 화자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여 외부 정경과 화자의 내면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다.

⑤ 후렴구는 각 연의 마지막에 위치하여 각 연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면서 시 전체에 통일성과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06 ㉠는 청각적 심상(울음)을 시각적 심상(금빛)으로 전이시킨 공감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의 ‘울음이 타는 가을강’도 공감각적 심상(시각의 청각화)이 드러난다.

[오답풀이] ①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②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④ 촉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⑤ 미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07 ㉢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낼 뿐, 화자의 상처는 드러내지 않고 있다.

[오답풀이] ① ㉢는 실개천이 흐르는 모습을 ‘옛이야기 지출대’이라는 청각적 심상으로 표현하여 정겨운 고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② ㉢는 청각의 시각화라는 감각의 전이를 통해 고향의 밤 정경을 표현하고 있다.

③ ㉢는 ‘파이란 하늘빛’, ‘함부로 쓴 화살’로 유년 시절의 꿈과 이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는 어린 누이의 머리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다고 표현하여 누이의 모습을 사랑스럽고 신비롭게 표현하고 있다.

08 서술형

이 시에서는 ‘실개천, 얼룩빼기 황소, 질화로, 짚베개’ 등의 향토적 시어를 사용하였지만, 1연에 쓰인 ‘실개천’과 ‘얼룩빼기 황소’만 언급하면 된다. 이러한 향토적 시어를 통해 평화롭고 한가로운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고득점 전략

‘소재를 찾아’ 쓰라고 했으므로 본문에 있는 시어를 그대로 써야 해요. 또 소재의 개수와 문장 형식을 <조건>에 언급하고 있죠? <조건>이 있는 문제에서는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감점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시에서 화자의 정서는 시의 주제와 맞닿아 있으니까 주제와 관련해서 서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2 장마

확인 문제

092쪽 **01** ④ **02** 장명등

093쪽 **03** (1) ○ (2) × **04** 고모도, 청소되었다.

094쪽 **05** (1) × (2) × **06** 점쟁이가 삼촌이 오늘 진시에 돌아온다고 했기 때문이다.

095쪽 **07** ② **08** 삼촌이 돌아오면 같이 아침을 먹으려고

096쪽 **09** ① **10** 삼촌이 죽어서 구령이로 환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097쪽 **11** ② **12** 구령이를 죽은 삼촌의 환생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구령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행동이다.

098쪽 **13** ② **14** ⑤

099쪽 **15** 할머니의 머리카락 **16** (1) × (2) ○

100쪽 **17** ⑤ **18**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의 상처를 의미한다.

101쪽 **19** ⑤ **20**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102쪽 **21** ③ **22** ②

103쪽 **23** ‘나’가 낯선 사람의 땀에 빠져 삼촌이 집에 왔다 간 것을 말한 일 **24** ④

01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갈등하는 직접적인 계기는 외삼촌의 전사 소식을 듣고 상심한 외할머니가 장맛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 빨갱이를 다 끌어버리라고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나’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고부간의 갈등은 이 글에 드러나지 않는다.

② 전쟁으로 인해 외가 식구들이 ‘나’의 집으로 피란을 왔지만 그 동안은 다투지 않고 잘 지냈다.

③ 삼촌이 빨치산, 외삼촌이 국군이라는 거북한 상황이었지만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있기 전까지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다투지 않았다.

⑤ ‘나’가 낯선 사람에게 삼촌에 대한 일을 말한 것은 ‘나’와 할머니의 갈등의 원인이다.

02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할머니가 밤새도록 켜 놓으라고 당부한 장명등은 삼촌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과 정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장명등이 꺼졌다는 것은 삼촌의 생환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징조를 암시한다.

03 (1) 할머니가 화가 나서 광과 장롱의 열쇠를 당신이 직접 맡아 관리하겠다고 한 것은 한 집안의 경제적 실권을 자신이 쥐고 있겠다는 의미이다.

(2) 할머니는 장명등이 꺼진 이후로 방에 들어가 꼼짝도

하지 않았지만 봉창에 달린 유리 너머로 가족들의 행동을 늘 감시하고 있었다.

04 가족들이 장마로 어지럽혀진 집 안을 말끔히 청소한 것은 이 글의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05 (1) 삼촌이 꼭 돌아올 것이라는 동네 사람들의 격려의 말에 아버지는 그저 웃고만 있었지만, 그들이 삼촌과 관련된 일을 가지고 나름으로 한창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눈치챘을 것이라고 (마)에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의 격려에 참으로 고마워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마)에서 삼촌이 틀림없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동네 사람들이 ‘마치 죽어 가는 환자 앞에서 금방 나를 병이니 아무 염려 말라고 위로하는 의사’와 흡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삼촌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06 삼촌이 오늘 진시에 돌아온다는 점쟁이의 예언이 적중할 것인지 궁금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아침부터 동네 사람들이 ‘나’의 집에 북적이고 있는 것이다.

07 구장 어른과 친구네 식구들만이 나중까지 남아 실의에 잠긴 ‘나’의 가족을 위로해 주었다. 그러므로 친구네 식구들이 진시가 지나자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진시가 지나도 삼촌이 돌아오지 않자 할머니를 제외한 가족들 모두 침통한 표정으로 상머리에 둘러앉아 심란한 얼굴로 점심이나 다름없는 아침을 먹었다.

③ 할머니는 ‘아무 시’가 아니라 ‘아무 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진시가 지나도 태평하게 삼촌이 꼭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④ 구장 어른은 다른 마을 사람들과 달리 ‘나’의 가족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진심으로 그들을 걱정하고 위로해 주었다.

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점쟁이가 삼촌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한 진시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죄다 흩어졌다.

배경지식+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파악하는 방법

- 인물들이 처한 사건이나 상황이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함.
- 사건의 상황에 대해 인물들이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보이는지 파악해야 함.
- 인물의 심리와 태도는 일관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심리나 태도의 변화 양상과 변화 원인에 주목해야 함.

08 할머니는 삼촌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삼촌과 같이 아침을 먹으려고 조반상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09 삼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중 구렁이가 나타나자, 할머니는 구렁이를 죽은 삼촌이 환생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졸도하고 외할머니는 이런 상황을 수습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렁이의 출현은 사건의 전환점으로 새로운 상황 전개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10 구렁이가 출현하자 할머니가 졸도한 것은 삼촌이 죽어서 구렁이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1 이 글은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사건을 서술하여 객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전쟁과 이데올로기로 인한 비극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이 글에서는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으며 구렁이의 출현으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고 있을 뿐이다.

③ 몇 가지의 사건을 나란히 늘어놓은 구성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④ 편집자적 논평은 주로 고전 소설에서 나타나는 서술 방식으로 이 글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⑤ 서술자가 자신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그대로 서술하는 것을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글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12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죽은 삼촌의 환생이라고 생각하여 그런 구렁이를 보호하기 위해 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내쫓은 것이다.

13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삼촌의 환생이라고 생각하고 졸도를 한 할머니를 대신해 삼촌의 한을 달래 주려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나’가 구렁이에게 돌팔매질을 하려던 것을 외할머니가 막긴 하였지만, 이 때문에 구렁이를 달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외할머니는 이미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들었다.

④ 구렁이를 삼촌의 현신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 생명의 소중함을 각성시키려는 의도는 없다.

⑤ 구렁이에게 잘못하면 가족에게 해가 미친다는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 이 글에서 구렁이는 전쟁으로 인해 원한을 품고 죽은 삼촌의 환생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구렁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상징하며 한을 품고 죽은 사람이 구렁이로 환생한다는 무속 신앙을 바탕으로 한 소재이다. 그러나 구렁이가 풍요로움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것은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15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할머니의 모성애를 상징한다.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자 구렁이가 물러갔다는 것은 혈육의 정으로 구렁이의 원한을 풀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6 (1)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한을 품고 죽은 삼촌의 환생이라고 생각하고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는 주술적 행위를 통해 원한을 풀어 주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외할머니에게 구렁이가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며, 외할머니가 그런 구렁이를 쫓기 위한 목적으로 주술적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글에서 작가는 이데올로기의 대립 구도를 지녔던 두 할머니가 무속 신앙을 바탕으로 갈등을 극복하는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남북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무속 신앙, 즉 전통적 정서를 바탕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17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배웅한 일로 결말 부분에서 할머니와의 갈등이 해결되기는 하나, 삼촌과 외할머니 사이에는 갈등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렁이를 배웅함으로써 삼촌과의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외할머니는 구렁이에게 이승의 걱정과 한은 모두 내려놓고 편안하게 저승에 가라며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다.

② 구렁이를 삼촌이 환생한 것으로 여기고 배웅하는 것은 무속 신앙에 근거한 행동이다.

③ 할머니가 구렁이를 보고 졸도하자, 외할머니가 할머니 대신 구렁이를 달래어 보내고 있다.

④ 외할머니는 구렁이가 대밭으로 모습을 완전히 감출 때까지 정성들여 배웅하고 있다. 이는 삼촌이 이승의 한을 풀고 저승으로 가기를 염원하는 마음이 반영된 행동이다.

18 ①은 돌팔매질로 인해 몸뚱이와 꼬리가 따로 노는 구렁이의 모습이므로 이는 전쟁과 이념 대립으로 인해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의 상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9 할머니가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이유는 아들의 죽음을 확인한 후의 슬픔과 안타까움, 아들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 대신 아들을 배웅해 준 외할머니에 대한 고마움, 아들을 손수 배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아들이 한(恨)을 풀고 떠난 것에 대한 안도감 등 복합적인 심정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한을 풀지 못하고 간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할머니가 울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 두 할머니는 각각 국군과 빨치산인 자식들 때문에 갈등하게 되지만, 삼촌의 현신으로 생각되는 구렁이의 출현으로 할머니가 쓰러지게 되자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달래어 보냄으로써 그동안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즉, 할머니는 자신을 대신해 구렁이를 배웅한 외할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뒤 손을 내밀고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음으로써 용서와 화해를 통해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21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

서 역행적 구성으로 사건의 전모를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대화에서 방언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언의 사용은 사건의 사실성을 높일 수 있다.

② 이 글에서는 어린아이인 '나'가 서술자로 등장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④ 이 글은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육이오 전쟁으로 인한 가족 내의 비극과 극복을 다루고 있다.

⑤ 장마철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통해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어둡고 우울하게 형성하고 있다.

22 서로의 양보와 희생으로 갈등이 극복될 수는 있겠지만, 이 글에서의 갈등 해결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풀이| ①, ④, ⑤ 이 글에서 두 할머니의 갈등은 구렁이의 출현에 외할머니가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구렁이를 달래서 보냄으로써 해소된다. 이는 토속적 신앙을 바탕으로 민족 간의 정서적 합일을 이끌어 내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갈등을 극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외할머니는 자식을 둔 같은 어머니로서 모성애와 가족애를 바탕으로 할머니 대신 구렁이를 달래서 보낸다. 할머니는 외할머니의 행동에 고마워하고 외할머니는 같은 처지에서 그를 위로하며 서로 용서함으로써 갈등을 극복한다.

23 할머니와 '나'가 갈등을 한 이유는 '나'가 낯선 사내인 경찰의 핏에 빠져 삼촌이 집에 왔다 간 것을 말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임종 전에 이러한 '나'의 지난날의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24 이 글은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로 종결된다. 이는 장마로 상징되는 민족의 비극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여운으로 남기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③을 통해 작품 전체의 내용을 함축적이고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장마 기간 동안 사건이 진행되었음을 나타내 주므로 시간적,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다.

③ '~였다.'의 과거형 문장을 통해 장마가 끝났음을 나타내고 있다.

⑤ '지루한'이라는 말을 통해 장마(민족의 비극)가 실제보다 더 길게 느껴졌음을 암시하고 있다.

학습 활동

확인 문제

107쪽 **생각 모으기** 01 ② 02 (1) ○ (2) ○ (3) ×

110쪽 **생각 펼치기** 03 ③ 04 (1) ㉠ (2) ㉡ (3) ㉢ 05 (1) ○ (2) × (3) × 06 서술자, 갈등

- 01**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죽은 삼촌의 환생으로 생각하여 할머니를 대신해 구렁이를 위로하고 배웅하며 사태를 수습하였다. 그 과정에서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게 되는데, 이는 할머니의 모성애를 의미하므로 외할머니는 모성애로서 삼촌의 원한을 풀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할머니가 외삼촌의 원한을 모성애로 풀어 주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나'는 구렁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동네 아이들과 같이 구렁이를 해치려고 하지만, 외할머니에게 저지당하였다.

③ 마을 사람들은 점쟁이의 예언이 맞을 것인지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삼촌이 돌아올 것이라고 한 날에 모여 들어 '나'의 집을 구경하였다.

④ 구렁이가 나타나자 할머니는 구렁이를 아들의 환생으로 여기고, 그 자리에서 졸도한다.

⑤ 구장과 친구네 식구들은 '나'의 가족을 호기심으로 대하는 마을 사람들과 달리 '나'의 가족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하였다.

만자쌍의 조언

소설에서 작가가 인물을 형상화할 때에는 해당 인물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는 작품의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소설을 읽을 때 인물에 대한 태도를 살피서 작가의 의도나 주제를 파악해야 해요.

- 02** (1) 구렁이가 나타나자 구렁이를 죽은 삼촌의 환생으로 생각한 할머니는 졸도하고, 외할머니가 할머니 대신 구렁이를 위로하고 배웅하며 사태를 수습한다. 이후 할머니가 외할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외할머니가 할머니를 위로함으로써 화해하게 되므로 구렁이의 출현이 갈등 해결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할머니는 졸도했다가 깨어난 후에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위로하고 배웅하며 사태를 수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외할머니를 불러 감사를 표한다. 이로써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화해하게 되는데, 이는 할머니가 손을 내밀고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

(3) 「장마」는 부수적 인물이자 어린아이인 '나'가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과 화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서술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하고 있다.

- 03** 「은혜 갠 뽕」은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는 전설에 해당한다. 한 민족 사이에서 구전되어 온 흥미 위주의 이야기는 민담이다.

【오답풀이】 ① 기와집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든지, 구렁이가 여인으로 변해 청년을 홀린 것 등은 비현실적 요소에 해당한다.

② 「은혜 갠 뽕」의 주인공은 강원도에 사는 활을 잘 쏘는 청년으로, 신분이 불분명한 인물이다.

④ 「은혜 갠 뽕」은 전설로, 실제 장소인 원주 상원사와 치악산이라는 배경이 제시되어 있다.

⑤ 마지막 부분의 '이 절이 바로 ~ 치악산으로 고쳐 불렀다'에서 원주의 상원사와 치악산의 유래가 제시되어 있다.

- 04** (1) 고전 소설은 19세기 이전에 창작된 소설로, 전기적인 요소, 우연성, 비현실성을 특징으로 삼고 있다.
(2) 판소리 사설은 판소리의 대본으로 공연 예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연행성, 현장성이 나타난다.
(3) 신소설은 개화기 이후부터 현대 소설이 창작되기 전까지 창작된 소설로, 계몽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 05** (1) 「은혜 갠 뽕」에서는 구렁이와 청년의 갈등이, 「장마」에서는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이 주로 나타난다.
(2) 「은혜 갠 뽕」에서는 원주 상원사와 치악산이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지만, 「장마」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지 않는다.
(3) 「은혜 갠 뽕」은 전지적 능력을 발휘하는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장마」는 어린아이인 '나'라는 서술자가 작품 안에 등장하여 주요 사건을 관찰하며 서술하고 있다.

- 06** 서사 갈래는 서술자를 통해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일정한 짜임새를 갖추어 인물이 겪는 사건과 갈등을 통해 주제를 구현한다.

소단원 평가 문제

113~116쪽

- 01** ③ **02** ⑤ **03** ④ **04** 삼촌의 귀가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징조를 암시한다. **05** ⑤ **06** ③ **07** ③ **08** ③
09 ⑤ **10** ④ **11** 우리 민족이 겪은 육이오 전쟁을 상징한다.
12 ④ **13** ⑤ **14** ③ **15** ① **16**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통한 정서적 화합

- 01**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은 '나'의 집으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사건의 진행 속도가 변화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이 글은 육이오 전쟁으로 인한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한 가족, 즉 빨치산인 아들을 둔 할머니와 국군인 아들을 둔 외할머니가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② 장마 기간 동안 벌어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장마는 이 글의 사건 전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작품 전체의 암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④ '구렁이'의 출현을 통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⑤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과 어른이 된 '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이 혼재되어 쓰이고 있으며, 이는 전쟁이라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 02** 할머니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사건을 수습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외할머니이다.

【오답풀이】 ① (다)에서 '나'는 '그것의 울음소리를 듣던 간밤의 기

역'이 되살아났다고 하였으므로 '나'는 간밤에 구렁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동네 사람들은 우리 식구들이 미신을 얼마나 믿는지, 삼촌이 점쟁이의 말대로 돌아오는지 궁금하여 '나'의 집에 드나들었다.

③ (라)의 '외할머니는 구장 어른과 친구네 아버지 등의 도움을 받아 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모조리 밖으로 내쫓은 다음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④ (라)의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그 복새 속에서도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애오라지 외할머니 혼자뿐이었다.'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03 <보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인 [A]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꾼 것이다. 따라서 [A]와 <보기> 모두 주변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술자가 주변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는 모습은 주로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나타난다.

[오답풀이] ① <보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소설 밖에 위치하고 있다.

② <보기>에서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했던'이라고 하며 등장인물인 동만의 내면까지 서술하고 있다.

③ [A]는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⑤ [A]는 1인칭 관찰자 시점, <보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A]와 <보기> 모두 서술자가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이 아니다.

04 서술형

㉠은 아직 흐린 날씨에 대한 설명으로 삼촌의 귀가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징조를 암시하고 있다.

05 ㉠은 구렁이에게 가해지는 동네 아이들의 폭력으로, 구렁이를 우리 민족으로 본다면 ㉠은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동네 아이들이 돌멩이를 들고 돌팔매질을 하지만 동심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②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내용은 이 글에서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무속 신앙에서 한이 많은 사람이 죽으면 구렁이가 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구렁이는 돌팔매질을 당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한의 표출과는 거리가 멀다.

④ 동네 아이들이 구렁이를 향해 돌을 던지는 행위이므로 아픔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06 ㉠은 구렁이가 죽은 삼촌의 환생이라고 생각하여 발생한 일이다. 즉, 할머니는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졸도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삼촌이 돌아온다는 시간에 삼촌이 오지 않자, 가족들은 침통해 있지만 할머니만은 삼촌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고 있었으므로 삼촌이 오지 않아서 긴장이 풀린 것은 아니다.

② 할머니는 구렁이를 삼촌의 환생으로 여겼기 때문에 징그러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④, ⑤ 제시된 지문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이 글의 앞부분에서 장명등을 꺼뜨린 일로 할머니가 가족들의 정성이 부족하다며 타박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그 일로 졸도한 것은 아니다.

해심록! 상처 입은 구렁이의 상징적 의미

삼촌이 올 시간에 구렁이가 나타난다.



- 죽은 삼촌의 환생임.
- 이념 대립으로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의 모습을 상징함.

07 마을 사람들은 날씨에 관한 화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편하기 때문에 한결같이 날씨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이다. 날씨 얘기 다음에 삼촌 얘기를 꺼내고 삼촌이 살아 온다는 점쟁이의 말이 맞는지 궁금해하는 것으로 볼 때, 장마가 마을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라고 볼 수도 없고 장마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은 빨치산인 아들을 둔 할머니와 국군인 아들을 둔 외할머니가 갈등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② '장마'는 한 가족의 불행, 민족에게 닥친 불행인 육이오 전쟁을 의미한다. ㉠은 장마가 끝날 것이라는 암시이므로 가족과 민족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이 글에는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과 어른이 된 '나'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이 교차되고 있다. 어른이 된 '나'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부분은 ㉠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⑤ 외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을 내쫓은 것은 구렁이를 보호하고 구렁이를 달래서 떠나보내려는 생각 때문이다.

08 이 글은 서술자 '나'가 어린 시절에 겪은 사건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으므로 과거와 현재를 반복 교차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외할머니와 할머니의 대화에서 사투리를 사용하여 인물에 현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② 구렁이, 감나무 등 토속적 소재를 통해 향토성을 부각하고 있다.

④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작품 안의 서술자인 '나'가 관찰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⑤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보여 주기 방법과, 서술자가 직접 서술하는 말해 주기 방법을 이 글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09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 갈등, 서술자 등의 구성 요소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한다. 이 글은 어린아이인 '나'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사건을 가치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하였기에 어린아이의 시각에서 관찰한 내용만을 서술하여 오히려 사건의 다양한 면모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모성애를 지니고 무속 신앙을 믿는 공통점이 있는 할머니와 외할머니를 등장시켜 두 할머니의 갈등이 이런 정서들을 통해 극복됨을 보여 주고 있다.

② 외할머니가 삼촌의 환생인 구령이를 직접 달래서 보내는 것을 통해 가족과 민족의 상처가 전통적 정서를 바탕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③ 작품의 전반적인 배경인 장마는 여름철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날씨로, 우울하고 암담한 분위기인 전쟁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④ 빨치산인 아들을 둔 할머니와 국군인 아들을 둔 외할머니가 갈등하는 모습을 통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이념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10 ㉞는 외할머니와 할머니와의 갈등, ㉝는 할머니와 ‘나’와의 갈등, ㉜는 시대적 배경이다. 이 글에서 ‘나’의 내적 갈등은 드러나지 않으며, 따라서 ㉞와 ㉝가 ‘나’의 내적 갈등으로 심화되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㉞의 갈등은 외할머니가 할머니를 대신해 구령이를 정성스레 달래서 보낸 일로 해소된다.

② ㉝의 갈등은 할머니가 임종 직전에 ‘나’의 지난 일(낯선 사람에게 삼촌이 집에 왔다 간 일을 말한 것)을 모두 용서함으로써 해소된다.

③ 외할머니와 할머니 모두 전쟁으로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육이오 전쟁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갈등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⑤ ㉞의 갈등은 빨치산 아들을 둔 할머니와 국군 아들을 둔 외할머니의 갈등으로 육이오 전쟁이라는 외적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11 서술형

이 글의 배경인 장마는 개인적 측면에서는 한 가족의 갈등이 지속된 고통의 시간을 의미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우리 민족이 겪은 육이오 전쟁을 상징한다.

고득점 전략

개인적 측면은 가족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이고, 사회적 측면은 시대적 배경과 연결하여 서술해야 해요. 따라서 육이오 전쟁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관련한 사회적 측면을 서술해야겠지요. 반드시 시대적 배경을 언급해야 감점이 되지 않아요.

- 12 구령이는 한을 품고 죽은 원혼이 환생한 것으로, 삼촌의 환생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 구령이는 외할머니가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자 원한을 풀고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구령이가 영원히 풀리지 않는 깊은 한의 상징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할머니와 외할머니 모두 구령이를 죽은 삼촌의 환생이라고 믿는다.

② 구령이를 삼촌의 환생이라고 생각하고 머리카락을 태우는 행동 등은 무속 신앙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③ 구령이의 몸통과 꼬리가 따로 노는 모양은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

⑤ 외할머니가 졸도한 할머니를 대신해서 구령이의 원한을 풀어 준 사건은 갈등하던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된다.

- 13 ㉠은 삼촌이 돌아올 것이라 믿고 삼촌과 먹기 위해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며, ㉡은 할머니의 머리카락이다. 그러므로 ㉠과 ㉡은 모두 삼촌에 대한 할머니의 모성애, 혈육의 정을 상징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할머니는 아들이 살아 돌아올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직감은 지니고 있지 않다.

② 아들을 먹이기 위해 장만한 음식과 할머니의 신체 일부인 머리카락은 허례허식과는 관련이 없다.

③, ④ 할머니의 흰머리는 삼촌에 대한 모성애를 상징할 뿐, 윤희 사상이나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는 관련이 없다.

- 14 ㉢은 이 글의 마지막 부분으로, 민족의 비극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것을 암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앞부분의 내용과 한 줄 띄어져 있어 여운을 남기고 있다.

②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라고 장마가 끝났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작품의 제목인 ‘장마’와 관련이 있는 결말이다.

④ 과거형 문장을 통해 장마가 끝났고, 장마 기간 동안 사건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지루한’이라고 하여 실제보다 더 길게 느껴질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15 두 할머니는 전쟁으로 인해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㉜는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인 ‘동병상련(同病相憐)’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노심초사(勞心焦思)는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을 의미한다.

③ 전전반측(輾轉反側)은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을 의미한다.

④ 상부상조(相扶相助)는 서로서로 도움을 의미한다.

⑤ 결초보은(結草報恩)은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이르는 말이다.

16 서술형

이 글의 작가는 무속 신앙(샤머니즘)을 바탕으로 하여 구령이를 출현시키고, 샤머니즘적 방법을 사용하여 구령이를 달래어 보냄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갈등을 무속 신앙(샤머니즘)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통한 정서적 화합으로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극복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03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C 확인 문제

- 120쪽 01 ③ 02 몽타주
- 121쪽 03 ② 04 월리를 훔치려던 계획이 실패하게 되었기 때문에
- 122쪽 05 시유(C.U.: close-up) 06 ①
- 123쪽 07 (1) ○ (2) ○ 08 사례금 오백만 원을 요구한다.
- 124쪽 09 ③ 10 월리를 찾는다는 전단이 붙어야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125쪽 11 ① 12 지소가 생각하는 이층집의 가격이 오백만 원이기 때문이다.
- 126쪽 13 (1) × (2) ○ 14 ①
- 127쪽 15 ④ 16 인서트(Ins.)
- 128쪽 17 ⑤ 18 엄마가 돼 가지고 애들을 차에서 키우고.
- 129쪽 19 ① 20 장난감
- 130쪽 21 ⑤ 22 아빠의 글
- 131쪽 23 ④ 24 ② 25 월리가 스스로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는 것을 노부인에게 알려 주기 위해
- 132쪽 26 (1) ○ (2) × 27 ㉠: 노부인 ㉡: (지소의) 아빠
- 133쪽 28 ②
- 134쪽 29 내일, 주마. 30 ④

01 작은 승합차에서 살고 있는 지소는 생일 파티 계획을 묻는 선생님의 질문에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집을 구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부동산 전단을 보고 오백만 원이면 집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돈을 구할 묘안을 궁리한다. 그러던 중 우연히 개를 찾아 주면 오백만 원을 사례금으로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개를 훔치려고 한다. 따라서 지소는 사례금 오백만 원을 받아 집을 사려고 개를 훔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훔치고자 하는 개인 월리의 외모 묘사는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동생인 지석이 개를 좋아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묶여 있는 개가 불쌍하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현재 개의 주인은 노부인이다. 원래 주인은 노부인의 아들이지만 이 글의 후반부에서 밝혀지는 내용이다.

02 'S# 62'는 1~5의 장면이 연결된 것으로 개를 훔치는 과정을 보여 준다. 따라서 사건 진행을 긴밀하게 축약해서 보여 주기 위해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적절하게 떼어 붙이는 몽타주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03 이 글은 시나리오로 장면의 변화나 시간과 공간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상대적으로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보여 주어야 하는 희곡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크다.

|오답풀이| ① 이 글은 시나리오로 장면 단위(S#)로 전개된다.
 ③ 관객들의 눈앞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으로 현재화하여 표현한다.
 ④ 주로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진행되고 주제가 드러난다.
 ⑤ 시나리오는 영화 상영을 전제로 하므로 촬영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특수한 촬영 기법을 나타내는 시나리오 용어가 사용된다.

해설극관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

장면 표시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면들을 찍은 단위. 'S# 1, S# 2' 등의 장면 번호(Scene number)로 표시하며 시간과 공간이 제시됨.
대사	등장인물의 성격과 갈등 관계를 드러내고, 사건을 진행시킴.
지시문	등장인물의 표정이나 동작, 조명, 음향 효과, 카메라의 위치, 필름 편집 기술 등을 지시함.
해설	시나리오의 첫머리에서 주로 배경이나 등장인물을 소개함.

04 지소는 월리를 훔칠 계획이 성공하려던 찰나 수영에 의해 실패를 하게 되자 상심한 표정을 짓고 있다.

05 'S# 66'에서 월리의 주인이 '윤서오'임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이나 인물을 두드러지게 화면에 확대시키는 시유(C.U.: close-up)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06 'S# 67'에서 노부인은 월리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벽에 걸린 그림으로 시선을 향하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는다. 이는 월리가 없어진 충격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벽에 걸린 그림은 아들이 그린 그림이며 월리는 죽은 아들이 남기고 간 게임이 뒷부분에서 밝혀진다.

|오답풀이| ② 노부인이 어지러움을 느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③ 수영이 일을 잘하지 못해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만 이 때문에 주저앉은 것은 아니다.
 ④ 직원들이 레스토랑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노부인이 월리의 목줄을 누군가가 풀어 줬다고 생각했지만 직원이 월리 혼자 문 쪽으로 간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다.

07 (1) 'S# 68'에서 노부인이 "제 발로 나간 놈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난 안 찾아."라고 말했으므로 노부인은 월리가 스스로 집을 나갔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S# 71'에서 지소는 월리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눈빛을 봤다고 하였다. 지소는 살던 집을 잃고 승합차에서 생활하는 처지이고, 월리 또한 살던 집을 잃고 폐가에 묶여 있으므로 이 둘은 자신이 살던 집을 잃었다는 점에서 비슷한 처지라고 할 수 있다.

08 'S# 71'에 지소의 계획이 드러난다. 개를 훔친 후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례금을 받아야 하므로 빈칸에는 '사례금 오백만 원을 요구한다.'가 들어가야 한다.

09 'S# 72'에서 지소가 놀라는 이유는 훔친 월리를 몰래 빈 집에 숨겨 놓은 것을 대포에게 들켰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집주인이 개를 키우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은 대포의 물음에 지소가 거짓으로 대답한 말이다.

② 지소가 놀란 이유는 빈집에 몰래 숨겨 놓은 월리를 대포가 곁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④ 외부인 출입 금지 구역인 빈집에 월리를 보관하지 못하게 대포가 제지할 수는 없다.

⑤ 대포는 지소의 처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10 지소와 채량은 월리를 찾는다는 전단이 있어야 사례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단이 불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11 지소는 월리를 찾는 전단을 붙이라고 노부인을 설득하기 위해 학교 앞에서 월리를 본 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지소는 아빠가 길을 잃어서 집을 못 찾고 있는 것이고, 아빠가 언젠가 길을 찾아서 집에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③ 수영은 노부인이 월리에게 유산을 남겨 주었다고 생각하여 월리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④ 지소는 아무리 기다려도 개를 찾는다는 전단이 붙지 않자 직접 마르셀에 찾아가서 전단을 붙일 것을 설득하고 있다.

⑤ 노부인은 월리가 스스로 집을 나갔다고 생각했지만 지소의 말에 월리를 찾는 전단을 붙이기로 결정한다.

12 지소가 노부인에게 개를 찾는다는 전단을 붙이고 사례금 오백만 원을 써 넣으라고 한 이유는 자신이 구하고 싶어하는 이층집의 가격이 오백만 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3 (1) 지소는 대포가 마음대로 월리의 집을 만들어 준다는 것에 못마땅해하지만 어느새 대포를 돕기 시작한다.

(2) 지소는 대포가 개를 찾는 전단을 보고 전단에 실린 개가 월리와 비슷하게 생겼고 이름도 같다고 말하자 자신이 개를 훔친 사실을 대포가 눈치챌까 봐 전단을 모두 수거하려고 한다.

14 “월리를 찾습니다.”라고 적힌 전단을 확대하여 보여 주어

야 하므로 C.U.(Close-Up)가 들어가는 것이 적당하다.

[오답풀이] ② 'F.I.'은 새로운 장면이 시작될 때 화면이 점점 밝아지도록 하는 촬영 기법이다.

③ 'O.L.'은 한 화면에 다른 화면을 겹쳐서 장면을 전환하는 기법을 말한다.

④ 'Ins.'는 화면의 특정 동작이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삽입하는 화면을 말한다.

⑤ '몽타주'는 여러 가지 장면을 한데 배합하여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촬영 기법이다.

15 박 이사가 수영에게 사기를 쳐서 마르셀의 대지와 건물을 지역 재개발 사업을 하는 건설 회사에 다 넘기고 사라지는 바람에 노부인은 마르셀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 수영도 박 이사에게 이용을 당한 것이지 수영이 계획한 일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지소는 마르셀에 빨간 스티커가 붙은 것을 보고, 아빠가 사라지기 전 자신이 겪었던 일과 같다고 생각하여 노부인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가 비슷하다고 느끼고 있다.

② 박 이사는 마르셀의 대지와 건물을 건설 회사에 넘기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수영으로 하여금 인감을 넘기게 하였으므로 박 이사는 수영을 이용하기 위해 수영에게 접근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윤서오는 노부인이 가진 그림을 그린 화가이자, 월리의 이름표에 있는 이름이므로 노부인과 월리와 관련이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 윤서오는 노부인의 죽은 아들이자, 월리의 주인이다.

⑤ 지소는 월리를 찾는다는 전단을 들고, 사례금을 받기 위해 마르셀을 찾아갔다.

16 월리의 주인인 '윤서오'와 그림을 그린 화가 '윤서오'가 같은 인물임을 연결하기 위해 과거에 보여 주었던 장면을 삽입해야 한다. 따라서 화면의 특정 동작이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삽입한 장면인 인서트(Ins.)가 사용되었다.

17 집도 없이 승합차에서 살고 있는 지소는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생일 파티를 집에서 할 것이라고 말해 놓았는데 생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 초조한 상황이다. 그런데 정현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주지 않고 심술만 부린다고 딸 지소를 꾸짖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S# 85'에서는 지소와 정현 간의 외적 갈등이 드러난다.

[오답풀이] ① 내적 갈등은 한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개인 내부의 심리적 모순과 대립에 의해서 주로 발생한다.

②, ③, ④는 인물을 둘러싼 외부 요소와의 상반된 입장과 태도가 원인이 되어 대립과 충돌이 일어나는 외적 갈등에 해당하는데, 'S# 85'와는 관련이 없다.

18 지소는 집이 없이 차에서 살고 있으면서 생일 파티를 집에서 할 것이라고 말해 놓은 일 때문에 월리를 훔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 'S# 85'에는 정현에 대한 지소의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는데, 이는 '엄마가 돼 가지고 애들을 차에서 키우고.'라는 지소의 대사에서 표출되고 있다.

19 'S# 86'에서 대포는 아빠들은 모두 딸을 사랑한다는 것을 지소에게 알려 주고 있다.

[오답풀이] ② 대포는 바다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③ 이 글에서 행복했던 유년 시절의 추억이 제시된 부분은 없다.
 ④ 대포가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며 살고 있지만 이를 통해 정착하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⑤ 대포는 모든 아빠들은 딸을 사랑한다고 말했으므로 사랑에도 차이가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으며, 대포의 말로 인해 지소가 아빠를 이해하게 되므로 아빠와의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20 대포가 보여 준 장난감에는 모켄족이라는 부족의 모습이 보인다. 배에서 태어나서 배에서 살다가 배에서 죽는 사람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바다가 이끌어 가는 대로 사는 모켄족의 모습은 대포의 삶의 방식과 유사하다.

21 정현이 승합차에서 사는 진짜 이유는 일주일 후에 돌아오기로 한 지소 아빠를 기다리기 위해서이다.

[오답풀이] ①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을 테지만 생활비를 아끼기 위함이라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평소엔 정현이 지소에게 말해 온 이유로, 지소의 학교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진짜 이유가 그것이 아님이 아빠의 글을 통해 드러났다.
 ③ 언제든 떠나려는 의도가 아니라 지소의 아빠를 기다리기 위함이다.
 ④ 집이 없어 승합차에서 생활하며 주차장에 머무는 것인데, 이는 지소 아빠가 돌아오면 찾을 수 있게 멀리 가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22 지소는 구두 상자 안에 적힌 아빠의 글을 읽고 왜 엄마가 승합차에서 살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소가 정현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빠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23 지소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중 '돈을 받는다.' 부분에 연필로 줄을 긋는다. 이는 지수가 집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돈을 받으려는 계획을 그만두기로 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S# 63'에서 월리를 훔치는 데에 성공한다.
 ② 'S# 75'에서 지소가 노부인을 찾아가 월리를 찾는 전단을 붙일 것을 권유하고, 'S# 78'에서 채랑이 들고 온 전단을 받아들였다.
 ③ 지소는 월리를 마르셀 앞까지 데려다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음 장면에서 개를 노부인에게 돌려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
 ⑤ 지소는 사례금을 받아 집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에 '행복하게 끝!'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 근거로 전세 오백만 원짜리 집을 사서 생일 파티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산다는 것이 꿈쩍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음이 나타나 있다.

24 지소는 채랑에게 "내가 계속 차에서 살아도 친구 할 거야?"라고 물어보고 있다. 이는 채랑의 우정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가 좋지 않아도 계속 친구로 남을 수 있는지 채랑의 생각을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개를 훔쳐서 집을 구하려고 할 때 지소는 집을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의 공간으로 여겼으나 가족의 사랑하는 마음을 느낀 후 집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자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후 월리를 노부인에게 돌려주기로 결심한다.
 ③ 지소는 집을 나간 아빠를 보고 싶어 하고, 빨리 돌아와서 모든 것을 예전처럼 돌려놓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사라진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지소는 노부인에게서 월리의 사연을 듣고, 자신의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며 '돈을 받는다.'라는 항목을 없애고 월리를 노부인에게 돌려주기로 결심한다.
 ⑤ 지소와 엄마(정현)는 서로 갈등하다가 지소가, 아빠가 남긴 글을 읽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함으로써 갈등이 해소된다.

25 지소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후 노부인에게 월리가 스스로 집을 나간 것이 아니고, 스스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 월리를 마르셀 앞까지만 데려다주기로 계획하였다.

26 (1) 대포는 월리의 방울 목걸이를 통해 월리의 주인이 지소가 아니라 '윤서오'임을 알았지만 모른 척해 주었다.
 (2) 지소는 대포에게 딸의 입장에서 아빠를 그리워하는 심정을 전해 주며 서로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대포가 개를 훔쳤다는 사실을 폭로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7 월리를 기다리는 사람은 노부인이고, 지소가 기다리는 사람은 아빠이다.

28 'S# 97'에서 지소는 노부인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어느 날 갑자기 떠난 아빠 이야기, 집에서 쫓겨나 차에서 사는 이야기, 평당에 있는 오백만 원짜리 전셋집 이야기, 그 집 앞마당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싶었던 이야기 등이 월리를 훔치게 된 이유와 관련이 있다.

29 노부인이 지소에게 월리의 산책을 시켜 주면 아이스크림을 주겠다고 제안함으로써 지소를 용서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30 도시락은 엄마의 사랑을 보여 주는 소재이자 지소와 정현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오답풀이] ① 지소의 공책과 갈등 해소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② 승합차는 지소와 정현, 지석이 살고 있는 공간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이다.

- ③ 아파트는 지소와 정현의 갈등과 관련이 없다.
 ⑤ 아이스크림은 노부인이 지소를 용서했음을 표현한 소재이다.

학습 활동

확인 문제

139쪽 **생각 모으기** 01 ① 02 (1) ㉠ (2) ㉡ (3) ㉢ (4) ㉣ 03
 (1) ○ (2) ○ (3) × (4) × 04 서술자

141쪽 **생각 펼치기** 05 현재형, 갈등 06 등장인물이 관객과
 넥타이를 직접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01 장면의 전환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희곡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시나리오에는 희곡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시간적·공간적 배경, 등장인물 수에 제약이 적기 때문에 장면의 전환이 자유로운 편이다.

[오답풀이] ②, ③ 시나리오는 영화 상영을 전제로 쓴 각본이다. 실제 상영을 전제로 하는 문학이므로 인물의 대사와 지시문은 현재형으로 표현된다.

④ 시나리오는 서사 갈래와 마찬가지로 삶의 다양한 모습을 형상화하며,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해결을 통해 주제를 드러낸다.

⑤ 시나리오에서는 대사와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표현하며 이를 통해 사건을 전개한다.

완자생의 조언

희곡과 시나리오는 인물의 대사와 지시문의 표현이 현재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희곡이나 시나리오가 연극 상연이나 영화 상영을 전제로 하는 문학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과거의 시점으로 시·공간적 배경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관객의 눈앞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으로 현재화하여 표현하는 것이지요.

- 02 (1) 인서는 화면의 특정한 동작이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삽입한 화면을 말한다.
 (2) 효과음은 장면에 현실감을 더하기 위하여 넣는 소리를 말한다.
 (3) 배경 음악은 영화나 연극 등에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사나 동작의 배경으로 연주하는 음악을 말한다.
 (4) 몽타주 기법은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적절하게 떼어 붙여서 하나의 긴밀하고도 새로운 장면이나 내용을 만드는 편집 기법이다. 이러한 몽타주 편집 기법을 사용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어 사건을 속도감 있게 진행시킬 수 있고,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관객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03 (1) 지소는 자신이 살던 집을 잃고 승합차에서 생활한다. 집에서 생일 파티를 열고 싶어 개를 훔친 후 사례금으로 이층집을 구하려 하는 것으로 볼 때 지소는 행복해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월리를 훔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지소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개를 훔치고 사례금을 받기 보다는 훔친 월리를 원래 주인인 노부인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지소에게 집이란 개를 훔쳐서 집을 구하려고 할 때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공간이었으나, 개를 돌려주기로 결심한 후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곳이자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라는 의미로 변화하였다.

(3) 지소는 노부인의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긴 개가 월리라는 것을 알고 노부인에게 월리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지소는 이러한 깨달음을 계기로 하여 개를 훔치기 위해 세웠던 계획 중 '돈을 받는다.'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노부인에게 월리를 돌려주게 된다. 따라서 지소는 대포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노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개를 훔치기 위해 세웠던 자신의 작전을 변경한 것이다.

(4) 지소는 월리를 노부인에게 돌려주고, 월리를 훔친 일에 대해 노부인에게 솔직하게 고백한다. 이를 들은 노부인이 지소에게 월리의 산책을 맡기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해소된다. 따라서 레스토랑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일을 맡았다는 설명은 맞지만, 노부인은 지소에게 월리의 산책을 맡기면서 아이스크림을 주겠다고 말했으므로 월리를 산책시키는 일을 통해 돈을 모으게 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4 소설은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서도 사건이 전개된다. 그러나 희곡 또는 시나리오와 같은 극 갈래는 서술자의 개입 없이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05 희곡과 시나리오는 실제 연극 상연이나 영화 상영을 전제로 하는 문학이므로 인물의 대사와 지시문은 현재형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서사 갈래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의 다양한 모습을 형상화하며,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그 해결을 통해 주제를 드러낸다.

06 제시된 장면이 영화화된다면 남자가 화면을 향해 이야기함으로써 잠재적인 영화 관객에게 이야기를 건넬 수는 있지만 넥타이를 직접 주고받을 수는 없으므로, 이 장면을 그대로 영화로 형상화하기는 어렵다.

소단원 평가 문제

144~147쪽

01 ② 02 ⑤ 03 ⑤ 04 ③ 05 ④ 06 ④ 07 ③ 08
 ③ 09 ① 10 ⑤ 11 정현과 지소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01 (가)는 레스토랑 마르셀에서 지소가 개를 훔치려다 실패를 하는 장면이다. (나)는 지소가 개를 훔치는 데 성공을 한 후, 개를 찾아 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전단을 들고 마르셀에 가서 노부인과 그의 아들에 대한 대화를 하는 장면이다. (다)는 지소가 마르셀에 월리를 데려다주다가 노부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고백하는 장면이며, (라)는 노부인이 지소를 용서해 주는 장면이다. 이러한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볼 때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마르셀의 정원과 홀, 집무실, (나)에서는 마르셀의 홀과 집무실, (다)에서는 마르셀의 홀, (라)에서는 마르셀의 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동일한 공간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③ 이 글에는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특별한 배경 묘사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이 글에는 두 인물의 시각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이 글은 극중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사건을 진행시키며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따라서 인물의 심리 표현보다는 사건의 내용 전달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2 노부인은 지소의 이야기를 잠자코 들은 후, “힘든 시간을 겪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쁜 짓도 하게 되는 법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네가 한 짓은 정말 나쁜 거야, 지소야. 그건 변하지 않아.”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볼 때 노부인은 아무리 힘든 사연이 있어도 지소가 한 행동은 잘못임을 일깨워 주고 있으므로, 지소의 잘못을 눈감아 주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지소는 노부인의 죽은 아들이 월리의 주인이라는 말을 듣고 사례금을 받으려고 가져갔던 전단을 숨긴다. 이를 통해 사례금을 받으려 했던 마음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월리는 노부인이 아들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아들을 찾았을 때 노부인의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개로, 원래 주인은 노부인의 아들이다.

③ (가)에서 지소와 채랑은 계획적으로 월리를 훔치려고 하고 있다.

④ (다)에서 노부인은 개를 훔쳤다는 지소의 고백을 듣고 지소의 행동이 나쁜 짓임을 말해 주고 있다. 지소는 노부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눈물을 흘렸다.

03 ㉠은 노부인이 지소를 용서하는 장면으로 지소와 노부인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오답 풀이] ① ㉠은 월리를 유인할 때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장난감을 던져 놓은 것이다.

② ㉡은 노부인이 아들의 그림을 모으고 있었던 것을 알려 주는 것으로, 노부인의 아들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③ ㉢은 노부인의 아들이 집을 나간 이유이다.

④ ㉤은 지소가 월리도 가족과 집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장면으로 지소의 입장에서 월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04 ㉠은 과거에 봤던 글씨가 아니고 현재 보고 있는 글씨이므로 클로즈업 기법을 활용하여 확대하여 보여 주는 것이 적절하다. 오버랩은 지금 화면에 다른 화면이 겹쳐지는 기법이므로 ㉡를 보여 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은 지소와 채랑이 월리를 훔치는 과정이 제시되는 부분으로, 사건의 진행을 압축적이면서 빠르게 보여 줘야 하기 때문에 몽타주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은 지소의 손 위에 있는 사료가 부각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소의 손을 확대하여 보여 주는 클로즈업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은 과거에 겪었던 사건을 회상하는 장면이므로 앞에 나온 장면을 삽입해서 보여 주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 장면을 삽입하는 인서트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은 지소가 자신이 했던 이야기를 정리해서 들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레이션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05 소설과 시나리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술자의 개입 유무이다. 시나리오에는 서술자 없이 인물들의 대화와 지시문을 통해 사건을 보여 주는 반면, 소설은 서술자의 시각을 통해 사건을 서술한다. <보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인물의 내면이 서술자에 의해 직접 서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인물의 심리는 (라)에서는 지시문을 통해, <보기>에서는 서술자의 묘사와 서술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

② (라)의 대사가 <보기>에서도 그대로 인물의 말로 나타나 있다.

③ 인물의 말과 행동을 압축적으로 제시한 부분은 <보기>에 나타나지 않는다.

⑤ 사건을 현재형으로 진술하는 것은 시나리오의 특징에 해당한다.

06 (가)에서 지소와 지석을 승합차에서 살게 한 엄마 정현과 그것이 못마땅한 지소 사이의 외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남편이 집을 나가 헤어지게 된 것은 정현의 운명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이것이 중심 갈등은 아니다.

② 엄마와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지소의 행동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지소가 집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것은 맞지만,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사회 구조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다.

⑤ 지소가 집에서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하고 싶어 개를 훔치는 사건이 벌어지지만 가족 간의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는 생일 파티를 안 하기로 마음먹는다. 도시락은 정현의 사랑이 담긴 것으로 지소는 이를 보고 감동을 하게 된다.

07 지소는 상자 뚜껑에 적힌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는 아빠의 글을 읽고, 엄마가 왜 일주일만 참자고 했는지 알게 된다. 그런데 지소의 “그놈의 좀만! 또 일주일?”이라는 말을 통해 엄마가 일주일만 참자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으므로 지소가 아빠가 남긴 글을 읽고 아빠가 일주일 후에 돌아올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지소가 “누가 보면 어쩌려고?”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지소가 승합차에서 살고 있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들킬까 봐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다)에서 지소는 채랑에게 월리를 마르셀 앞까지만 데려다주어 혼자서 돌아온 것처럼 마르셀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임을 말한다. 이는 월리가 제 발로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노부인에게 월리가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님을 알려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④ 지소는 이층집에서 생일 파티를 열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포기 하는데, 이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⑤ 지소는 아빠의 글을 읽고 엄마가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는 아빠의 말을 믿고 동네에서 떠나지 못하고 아빠를 기다리며 승합차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08 시나리오의 현재형으로 진술하여 현장감을 부여해야 한다. (라)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며 과거에 일어난 일일지라도 극 갈래에서는 현재형으로 서술한다.

[오답풀이] ① 정현과 지소의 갈등 해소가 드러나는 장면이므로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잔잔한 배경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② 차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이 있으므로 차 문을 여닫는 효과음을 사용하면 장면을 더욱 실감 나게 보여 줄 수 있다.

③ ‘눈물을 뚝뚝 흘리는 지소는 도시락을 옆에 두고 정현을 꼭 껴안는다.’ 등으로 인물의 표정과 감정을 지시문에 제시하여 내면을 표출하고 있다.

⑤ ‘도시락’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9 승합차에서 사는 지소는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한다고 친구들에게 말을 해 버렸고, 오백만 원이 있으면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월리를 훔쳐 사례금을 받으려 한 것이다. 그러므로 ㄱ, ㄴ이 적절하다.

10 아빠는 글을 통해 모든 것을 바로잡아서 돌아오겠으니 조금만 참으라고 말하며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아빠의 글을 통해 아빠가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알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모든 것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 떠난다고 하였다.

② 아빠는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③, ④ 정현은 지소에게 지소의 학교 문제 때문에 승합차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해 왔으나, 진짜 이유는 아빠를 기다리기 위해서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소는 아빠가 엄마 때문에 집을 나갔다고 오해하였지만 이를 통해 오해가 풀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게 됨으로써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11 서술형

도시락은 정현이 준비한 지소의 생일 선물이다. 도시락을 통해 지소는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므로 도시락은 정현과 지소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 주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04 한 그루 나무처럼

확인 문제

151쪽 **01** ④ **02** 참나무에 박혀 있던 녹슨 대못을 빼 줌.

152쪽 **03** (1) ○ (2) × **04** 참나무가 글쓴이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153쪽 **05** ④ **06** 한 그루 나무

01 (가)에서 글쓴이는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고, 몸과 마음이 더욱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며, 사물의 미세한 변화가 눈에 잘 들어오고,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고 충만하게 다가온다면서 혼자 하는 산행의 장점을 언급하고 있다.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산을 오를 수 있다는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02 글쓴이는 약수터 옆에 서 있는 녹슨 대못이 박혀 있는 참나무를 보고 장도리를 챙겨 가서 녹슨 대못을 빼내 주었으며, 그렇게 참나무와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03 (1) 글쓴이는 참나무와 인연을 맺은 후 여름 한철 주말마다 새로 사귄 친구를 만나러 가듯 설레는 마음으로 참나무를 만나러 산에 올랐다.

(2) 글쓴이는 지방에 살고 있는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고 곧장 내려가 볼 수가 없어서 대신 나무에게 어머니의 건강을 빌었다.

04 글쓴이는 참나무를 지상과 천상을 이어 주며 사람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 주는 우주 나무로 삼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곧 참나무가 글쓴이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05 글쓴이는 겨울날의 참나무를 보며, 사소한 일에 마음이 흔들리고, 어쩌다 상처받은 일로 많은 원망의 시간을 보내며,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아울러 세월의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가끔은 누군가 찾아와 기대고 쉴 수 있는, 속마음은 변하지 않는,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참나무가 유용한 목재가 되어 준다고 서술한 부분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06 글쓴이는 제 스스로 모든 일을 평균 채 참바람 속에 무연히 서 있는 참나무를 보며 자기 자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가끔은 누군가 찾아와 기대고 쉴 수 있는, 겉모습은 변하더라도 속마음은 변하지 않는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다고 다짐하고 있다.

관객의 의견

글쓴이의 관점은 글쓴이가 사회나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의미하고, 글쓴이의 태도는 글쓴이가 세상이나 대상에 대해 보이는 반응을 의미해요. 수필은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글이기 때문에 글쓴이의 관점 및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학습 활동

확인 문제

155쪽 **생각 모으기** 01 ② 02 고백, 개성 03 (1) ○ (2) × (3) ○ (4) ×

157쪽 **생각 펼치기** 04 ③ 05 ③

- 01** 「한 그루 나무처럼」에서 글쓴이의 관점과 태도는 드러나지만, 기존의 통념을 반박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글쓴이는 봄날의 참나무의 모습과 겨울날의 참나무의 모습을 통해 참나무가 계절에 상관없이 늘 그 자리에서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는 참나무를 찾아가 위안을 얻기도 하고 참나무가 건네는 듯한 말을 느끼기도 하는 등 참나무와 교감한 경험을 진솔하게 전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봄날의 참나무의 모습과 겨울날의 참나무의 모습을 통해 참나무가 계절에 상관없이 늘 그 자리에서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한 그루의 나무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속마음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⑤ 글쓴이는 일상적인 소재인 참나무와 관련된 경험을 통해 한 그루의 나무처럼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 02** 수필은 글쓴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직접 말하는 듯이 서술하므로 자기 고백적 성격을 지니며, 글쓴이의 개인적 특성이 솔직하게 드러나므로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03** (1) 글쓴이는 산행 중에 참나무에 대못이 박힌 것을 보고 참나무에 박힌 대못을 빼 줌으로써 나무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2) '우주 나무'는 지상과 천상을 이어 주며, 사람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 주는 나무로, 글쓴이가 참나무를 자신의 '우주 나무'로 삼음으로써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후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우주 나무'로 삼은 참나무에 어머니의 건강을 빈 것이다.
 (3) 글쓴이는 참나무를 '우주 나무'로 삼았다는 것은 참나무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글쓴이는 봄날의 참나무의 모습과 겨울날의 참나무의 모습을 통해 참나무가 계절에 상관없이 늘 그 자리에서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 그루의 나무처럼 살고자 한다. 따라서 겨울날의 참나무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04** 경험과 성찰을 담아 글을 쓸 때 반드시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글쓴이의 개성을 살려 경험과 성찰의 내용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달하려는 내용에 맞는 표현을 선택해서 글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 05** 소설에서의 서술자는 작가 자신이 아니라 작가가 내세운 허구적 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필에서는 서술자를 허구적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 자신이 서술자이다.

[오답풀이] ① 수필은 구성상의 제약을 따르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쓰는 글이다.
 ② 수필은 독자에게 작은 감동과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하며, 한 폭의 그림을 보듯 운치가 있는 글이다.
 ④ 수필은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정서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글이므로 자기 고백적 성격이 강하다.
 ⑤ 수필은 글쓴이의 인생에 대한 관조와 체험을 드러내는 글이므로 글쓴이의 인생관이나 성격 등이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160~161쪽

01 ③ 02 ② 03 ④ 04 ⑤ 05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다. 06 ⑤ 07 ⑤ 08 ⑤

- 01** 이 글에서 옛 신화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괜히 마음이 심산스러울 때, 남에게 무심코 아픈 말을 내뱉고 후회할 때, 또한 이유 없는 공허함에 사로잡힐 때' 등으로 자신의 상황을 열거하고 있다.
 ② 참나무를 의인화하여 친근감을 표출하고 있다.
 ④ '그동안 나는 ~ 적이 있었던가'에서 의문형 진술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⑤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02** 글쓴이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우주 나무인 참나무에게 어머니의 건강을 빌었다.

[오답풀이] ① 글쓴이는 눈이 내린 지난 주말에도 산에 다녀왔다고 하였다.
 ③ 글쓴이는 처음 혼자 산행을 할 때는 적적함을 느꼈으나 혼자 산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니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고, 몸과 마음

이 더욱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 등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참나무는 글쓴이가 산에서 친구로 삼을 만한 대상을 찾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눈에 들어온 것을 계기로 인연을 맺은 것이다.

④ 참나무는 봄에는 연둣빛 잎이 무성하지만 겨울에는 모든 잎을 떨근 채 헐벗은 모습으로 서 있다. 참나무가 사시사철 푸른 나무도 아니고 글쓴이가 이 때문에 참나무를 우주 나무로 삼은 것도 아니다.

⑤ 우주 나무는 보통 느티나무를 흔히 쓰고 있다는 사실은 제시되어 있지만, 느티나무가 더 영험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03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한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사소한 일에도 자주 마음이 흔들렸던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② 어쩌다 상처를 받게 되면 많은 원망의 시간을 보냈던 지난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

③, ⑤ 길을 잃은 사람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했던 것, 그렇게 말없이 기다림을 실천한 적이 없었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04 <보기>에서 화자는 나무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라고 말하며 화자와 나무의 내면의 일체화를 보여 주고 있다. 이 글의 글쓴이 또한 헐벗은 나무를 보며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다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 글과 <보기>는 모두 나무의 속성과 인간의 내면을 연결 지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나무와 인간의 고독한 삶에 대한 생각은 <보기>에만 드러난다.

② 지역마다 나무에 대한 신앙이 다르다는 내용은 이 글과 <보기>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나무를 활용하여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다는 삶에 대한 다짐을 보여 주는 것은 이 글에만 해당한다.

④ 나무의 모습을 통해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유추한다는 내용은 이 글과 <보기> 모두에서 찾아볼 수 없다. <보기>에서는 여러 나무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는 인간의 고독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배경지식+

박목월, 「나무」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사색적, 비유적, 감각적
주제	나무를 통해 깨닫게 되는 삶의 근원적 고독
특징	• 의인화된 나무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함. • 외부에서 내면으로의 시상의 전환이 나타남.

05 글쓴이는 참나무를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루의 나무'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속마음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하고 있다.

06 참나무에게 있었던 상처는 겨울이 되어도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봄의 참나무)에 있었던 상처가 글쓴이의 관심으로 인해 ㉡(겨울의 참나무)에서 아물게 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봄이나 겨울이나 참나무는 자기 자리에서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변함없이 서 있다.

②, ③ 글쓴이는 봄의 참나무와 인연을 맺은 후 그 참나무를 보기 위해 산행을 하고 참나무에게 위안을 얻곤 하였다.

④ 글쓴이는 봄의 참나무와 인연을 맺은 후 가을을 지나 겨울이 될 때까지 참나무를 보기 위해 산행을 하였다. 그런데 눈이 내린 어느 날, 모든 잎을 떨근 채 무연히 서 있는 참나무를 본 글쓴이는 그 모습에서 깨달음을 얻어 자신의 삶을 성찰하였다.

07 '우주 나무'가 신화 속에 등장하는 나무이기는 하지만, 선과 악을 판별하는 나무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옛 신화에 보면 지상과 천상을 이어 주는 나무를 우주 나무라고 하였다.

② 우리네 민간 신앙으로 우주 나무는 사람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③ 시골에 가면 커다란 느티나무에 천들이 감겨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우주 나무이다.

④ 글쓴이의 우주 나무는 산행 중에 만나 대못을 뽑아 준 그 참나무를 말한다.

08 앞 문단에서 글쓴이는 '나는 길을 잃은 사람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라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또한 글쓴이는 힘들 때마다 참나무를 찾아가 위안은 느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은 '누군가 찾아와 기대고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싶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② 이 글에는 글쓴이가 타인의 존경을 받고 싶어 한다거나, 세상의 희로애락을 전하고 싶거나 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다른 사람의 염원을 들어주는 대상은 이 글에서 '우주 나무'이며, 글쓴이가 되고 싶은 존재는 아니다.

④ 참나무에 대못이 박힌 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이것이 자연의 소중함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고독점 전략

이 단원의 학습 목표 중 하나는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수 있다.'이죠. 즉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창작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네요. 창작과 관련한 문제를 물어보는 쉽지 않지만 <조건>을 주고 그 상황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작문 문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는 꼭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선지의 적절성을 따져 보아야 해요.

확인 문제

167쪽 01 (1) 나위 (2) 구완 (3) 모의 02 수입

- 01 (1) '나위'는 주로 '-을 나위 없다.'의 구성으로 쓰여 '더 할 수 있는 여유나 더 해야 할 필요'를 뜻하므로 제시된 문장에는 '나위'가 들어가야 한다.
 (2) 목적어인 '쇠약해진' 아버지와 어울리는 단어를 찾아야 한다. '구완하다'는 '아픈 사람이나 해산한 사람을 간호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문맥상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3) 제시된 문장의 '몰래 여행할 것', '은밀히' 등으로 보아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을 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일을 꾀하고 의논함이라는 뜻을 지닌 '모의하다'가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2 제시된 문장의 '들어오다'는 돈을 대상으로 하므로 '수입 따위가 생기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대단원 모의고사

170~176쪽

01 ① 02 ⑤ 03 ③ 04 ③ 05 ④ 06 ④ 07 ③ 08 ④
 09 ⑤ 10 지소가 일련의 사건과 갈등을 겪은 후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는 점에서 성장 문학이라 할 수 있다. 11 ② 12 ④
 13 ① 14 ② 15 ⑤ 16 ④ 17 ⑤ 18 ③ 19 ④

- 01 이 시에서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② 각 연이 '~는/~던 곳'으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③ '실개천', '얼룩빼기 황소', '질화로', '짚베개' 등 향토적 소재를 통해 토속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④ '파아란 하늘빛, 얼룩빼기 황소, 검은 귀밀머리 날리는, 석근 별, 흐릿한 불빛'의 시각적 심상,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도란도란거리는' 청각적 심상, '풀섶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따가운 햇살'의 촉각적 심상, '금빛 게으른 울음,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의 공감각적 심상 등으로 시각, 청각, 촉각, 공감각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⑤ 고향의 모습을 각 연에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배경지식+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 이입

- 객관적 상관물: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대상으로, 화자의 감정을 환기하거나 화자의 감정과 동일시되거나 대비됨.
- 감정 이입: 화자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 이입하여 마치 대상이 화자의 정서를 함께 느끼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으로, 객관적 상관물의 한 유형에 해당함.

- 02 이 시는 각 연에서 고향의 모습을 병렬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A]에서 시상이 시작되어 뒤로 갈수록 점차 고향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A]에는 평화롭고 한가로운 고향의 모습이, [C]에는 꿈 많고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모습이, [E]에는 단란한 고향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D]에는 힘들게 농사일을 하며 고단하게 사는 누이와 아내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② [B]에서는 '질화로에 재가 식'는 것에서, [E]에서는 '하늘에는 석근 별'에서 시간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C]에는 '함부로 쓴 화살'인 꿈을 좇는 화자의 유년 시절의 모습이, [D]에는 농사일을 하는 어린 누이와 아내의 소박한 모습이, [E]에는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거리는 단란한 고향집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④ [C]는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에서, [E]는 '알 수도 없는 미래성으로 발을 옮기고'에서 동화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드러난다.

- 03 ㉠은 각 연의 마지막마다 반복되어 각 연을 구분하고, 시 전체에 통일감을 주며, 운율감을 형성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해 주고 있다. 그러나 각 연에 제시된 고향의 정경들은 특별한 관련성 없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이 고향의 정경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4 <보기>의 '시린 귀뚜라미 울음소리'에는 청각의 촉각화인 공감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이 시에서 공감각적 심상이 드러난 부분은 ㉠과 ㉡이다. ㉠에는 황소의 울음소리를 해 질 녘의 금빛 노을과 연결한 청각의 시각화가, ㉡에는 밤바람 소리를 사람이 말을 타고 달리는 것처럼 표현한 청각의 시각화가 나타난다.

배경지식+ 고은, 「열매 몇 개」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상징적, 감각적
주제	생명 탄생의 인고와 성숙의 기다림		
특징	•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선명한 인상을 줌. • 영탄법, 생략법으로 깊은 여운을 줌.		

- 05 이 글은 주로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서술되나, 어른이 된 '나'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서술한 부분도 있다. 전쟁의 이데올로기 대립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서술되므로 중립적 시각으로 사건의 비극성을 효과적으로 보여 줄 수 있고, 가치 판단을 드러내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전달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ㄱ.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중립적으로 서술하므로 사건과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연민의 시선은 드러나지 않는다.

ㄷ.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작품 속 인물의 심리를 세세하게 서술하기 어렵다.

06 오랫동안 지루하게 비가 내리는 장마는 사람의 기분을 우울하게 만든다. 이 글에서 지루한 장마는 ‘나’의 집안에 벌어진 사건이 실제보다 더 길게 느껴질 만큼 힘겨웠음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독자로 하여금 작중 상황을 지루하게 느끼도록 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오답풀이] ①, ③ 장마는 ‘나’의 집안에 닥친 불행을 의미하며, 나아가 우리 민족에게 일어난 불행한 사건인 전쟁을 상징한다.
② 오랫동안 계속되는 장마는 작품의 음울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⑤ 장마가 시작되면서 사건이 시작되고 사건이 끝나면서 장마가 끝남으로써 구성상 완결성을 보여 준다.

07 외할머니가 작대기로 구렁이를 때리려던 ‘나’를 제지한 것은 구렁이를 삼촌의 환생이라고 생각하여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어린 손주가 구렁이의 원한을 사게 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②, ④ 두 할머니는 구렁이를 삼촌의 환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할머니가 구렁이를 보고 아들이 죽었다고 직감하여 졸도를 한 것이고,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극진히 위로하고 달래어 원한을 풀고 저승으로 편안히 가게 하려 한 것이다.
⑤ 외할머니는 구렁이가 움직이지 않자,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어머니의 체취를 느끼게 해 줌으로써 편안하게 저승으로 떠날 수 있도록 하였다.

08 <보기>에 따르면 이 작품은 이념의 갈등을 무속적 신앙과 혈육에 대한 정을 통해 극복하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작가는 이념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정서적 합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이 작품은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육이오 전쟁이라는 비극적 사건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해 주고자 한다.
② 민족 신앙의 가치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공동된 정서로서 민족 신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③ 가족 간의 사랑과 가정의 평화의 중요성이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려던 바는 아니다.
⑤ 이 작품에서 가족의 불행인 삼촌의 죽음을 모성애를 통해 풀어내고 있으나, 작가가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념 대립으로 인해 발생한 민족의 갈등도 이해와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09 지소가 월리를 혼자 돌아온 것처럼 마르셀에 들여보내려는 이유는 노부인이 월리가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지소가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꾸민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에 나타난 지소의 말에서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음을 알 수 있다.
② (다)에서 채랑이 지소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④ (나)에서 아버지가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집을 나갔음을 알 수 있는 아버지의 글과 “정말 나 학교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지? 혹시라도 아빠가 나타날까 봐 기다리는 거지?”라는 지소의

대사에서 정현이 남편을 기다리느라 승합차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러한 엄마의 마음을 지소가 알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 서술형

이 글은 지소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성장하였다는 점에서 성장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소는 노부인의 사연과 엄마의 진심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흠친 월리를 돌려주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으며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집의 의미를 깨닫는 정신적 성숙을 보여 주고 있다.

고득점 전략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하여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보기>의 내용을 먼저 숙지해야 해요. 제시된 <보기>와 문학 작품의 연관성을 따지는 문제니까 <보기>를 문학 작품에 대입하여 꼼꼼하게 살펴봐야 해요.

11 <보기>는 희곡으로, 관객 앞에서 직접 연극을 상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관객에게 말을 건네고 벡타이를 빌리는 등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다)는 시나리오이므로 관객의 개입 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오답풀이] ① (다)에서 지소의 내레이션은 다른 등장인물에게 들리지 않는다. <보기> 또한 다른 인물에게 들리지 않는 방백이다.
③ <보기>와 (다) 모두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④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것은 소설이며, (다)와 <보기> 모두 서술자가 아닌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심리를 드러낸다.
⑤ 촬영이나 편집 기법을 사용하여 장면을 표현하는 것은 시나리오인 (다)에만 해당한다.

핵심 키워드 : 희곡과 시나리오의 공통점과 차이점

	희곡	시나리오
공통점	- 해설, 대사, 지시문으로 구성됨. - 등장인물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됨. - 현재형으로 진술함.	
차이점	무대 상연이 목적임.	영화나 드라마 제작이 목적임.
	막과 장을 구성단위로 함.	장면을 구성단위로 함.
	등장인물의 수, 시간·공간적 제약이 많음.	등장인물의 수, 시간·공간적 제약이 적음.

12 지소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집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자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집을 구할 오백만 원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오답풀이] ① 지소는 생일 파티를 아예 하지 않기로 하였다.
 ② 아빠가 돌아와도 집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와 관련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오백만 원으로 집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소는 알지 못한다.
 ⑤ 지소는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생일 파티를 집에서 할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다.

13 이 글의 글쓴이는 참나무와의 인연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남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오답풀이] ② 참나무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해 주관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③ 자신의 삶에 대한 사색은 드러나지만,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이 글에는 부정적 대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글쓴이는 처음부터 참나무를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러한 글쓴이의 시각이 전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 <보기>에서 교술 갈래를 실재하는 사실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나 감정을 서술하는 개성적인 문학이라고 제시하였으므로 이 글에서 글쓴이의 주관이 최소화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수필은 글쓴이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주관적인 문학이다.

[오답풀이] ① 이 글에서 글쓴이는 산행을 하며 만난 참나무에 대한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참나무를 우주 나무로 생각하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④ 교술 갈래는 교훈을 전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글을 읽고 독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면 이 글은 교훈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이 글이 독자에게 새로운 지식이나 깨달음을 준다면 독자의 인생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15 글쓴이는 참나무는 무성한 잎을 가진 봄이든 모든 잎을 떨근 겨울이든 관계없이 늘 그 자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한 그루 나무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살고 싶다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참나무’가 계절의 변화에도 늘 푸른 잎을 가져 지조가 있다고 여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글쓴이는 참나무에게 어머니의 건강을 빌었고, 얼마 뒤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은 경험으로 인해 참나무가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다.
 ② 글쓴이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산에 올라 참나무를 보러 갔다.
 ③ 글쓴이는 참나무에 박힌 녹슨 못을 빼낸 것을 참나무와의 인연의 시작이라고 여긴다.
 ④ 글쓴이는 참나무를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기다림을 실천하는 존재라고 표현하였다.

16 (가)는 서정 갈래, (나)는 서사 갈래, (다)는 극 갈래이다. (나)와 (다)는 모두 인물 간의 갈등과 해소를 바탕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오답풀이] ① (나)는 서사 갈래 중 소설에 해당한다. 소설의 구성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유기적으로 짜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기여한다.
 ② (다)는 극 갈래로 사건을 현재형으로 진행하여 현장감이 느껴진다.
 ③ (가)는 서정 갈래로 화자의 정서를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한다.
 ⑤ (나)는 서술자가 사건을 전개하지만 (다)는 서술자를 내세우지 않고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개한다.

17 (가)의 화자는 토속적 공간인 고향을 그리워하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가)가 토속적 공간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와 <보기> 모두 동일한 시구를 반복한 후렴구를 사용하고 있다.
 ② (가)는 ‘실개천’, ‘풀섶 이슬’ 등을, <보기>는 ‘빠꾸기’, ‘버들숲’ 등의 자연물을 소재로 삼고 있다.
 ③ (가)에는 시각, 청각, 촉각, 공감각 등의 심상이, <보기>에는 청각, 시각 등의 감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④ (가)에서 자연은 그리운 고향의 모습이고, <보기>에서 자연은 화자가 흥취를 즐기는 풍류의 대상이다.

배경지식+ 윤선도, 「어부사시사」

갈래	평시조, 연시조(40수)
성격	자연 친화적, 한정적, 서경적
제재	어부 생활
주제	어촌의 평화로운 봄 경치
특징	• 장과 장 사이에 후렴구가 있음. • 원경과 근경이 조화를 이룸. • 자연을 통해 화자의 세계관을 보여 줌.

18 <보기>의 ‘나’는 할머니로, <보기>는 [A]를 할머니의 시점에서 서술한 것이다. 그러므로 할머니의 자식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어린아이의 시각에서 서술하는 것이 전쟁의 비극성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기에 더 적절하다.
 ② 할머니의 시점에서 사건을 서술하므로 외할머니의 내면은 서술할 수 없다.
 ④ 서술자가 어린 동만이에서 할머니로 바뀌었을 뿐 인물의 대화를 대체롭게 보여 주지는 않는다.
 ⑤ 서술자는 ‘나(할머니)’로 소설 안의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19 ‘S# 89’의 ‘아빠의 글’은 지소가 읽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아빠 역을 맡은 배우가 등장해서 대사를 전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S# 85'에서는 시동이 걸리려다가 김빠지는 소리를 내는 것을 보여 줘야 하기 때문에 효과음을 사용하면 장면을 실감 나게 표현할 수 있다.

② 'S# 85'에서는 정현과 지소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야 하므로 지소가 정현에게 말할 때는 불만이 가득한 어조로 연기해야 한다.

③ 'S# 89'에서는 지소가 구두 상자 속 정현의 화려한 구두와 상자 뚜껑에 적힌 글을 보는 장면을 위해 화려한 구두와 글씨가 적힌 구두 상자를 소품으로 준비해야 한다.

⑤ 'S# 89'에서 거꾸 엄마를 외치는 지석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지소가 구두 상자를 열어 보는 장면으로 바뀌므로 지석이 거꾸 엄마를 외치는 부분은 지석의 목소리만 들리도록 해야 한다.

대단원 서술형 평가

177~180쪽

01 각 연에 후렴구를 반복하고, '~는/~던 곳'이라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각 연마다 반복하여 음악성을 형성하고 있다.

02 화자의 어린 시절의 꿈과 추억이 있는 곳이자, 가족과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던 따뜻한 곳이다.

03 (1) 이 시와 〈보기〉 모두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2) 이 시의 화자는 고향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보기〉의 화자는 고향에 돌아왔지만 그 고향이 예전의 고향과는 달라진 상황에 처해 있다.

04 어린 '나'의 시점과 어른이 된 '나'의 시점이 교차되어 서술되고 있다.

05 삼촌이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06 할머니의 사랑을 통해 삼촌의 원한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07 '장마'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한 가족의 불행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불행인 육이오 전쟁을 의미한다.

08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심리를 서술한다.

09 아빠의 글을 통해 지소는 정현이 왜 송합차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가족을 사랑하는 정현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10 대포는 지소에게 아빠의 진정한 사랑을 알려 준다.

11 글쓰이는 한 그루 나무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속마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12 참나무에게 어머니의 건강을 빌었더니 실제로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았다.

13 ㉞: 수필은 비교적 형식이 자유롭다. ㉟: 수필은 글쓰이의 개성이 잘 드러난다.

01 이 시는 각 연마다 '~는/~던 곳'의 반복과 각 연의 마지막에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라는 후렴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음악성이 느껴지는 이유로 후렴구의 반복과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모두를 제시하여 서술하였다.	6점

음악성이 느껴지는 이유로 후렴구의 반복과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중 한 가지만 제시하여 서술하였다.	3점
--	----

02 이 시에서 고향은 평화롭고 한가로운 분위기의 시골 마을로, 꿈 많던 화자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서린 공간이자 소박하지만 단란한 가족들이 살던 곳이다.

채점 기준	배점
어린 시절의 추억과 단란한 가족의 삶이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고향의 이미지를 제시하여 서술하였다.	6점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곳 또는 단란한 가족의 삶이 있는 따뜻한 곳 중 한 가지만 제시하여 서술하였다.	4점
어린 시절이나 가족과 결별시키지 못하고 따뜻함의 이미지만 제시하여 서술하였다.	2점

03 이 시의 화자는 고향의 모습을 회상하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고, 〈보기〉의 화자는 그리워하던 고향에 돌아왔지만 자신이 마음속에 간직한 옛날의 고향이 아닌 것을 깨닫고 마음속 고향을 잃어버린 상실감과 비애를 노래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서술하였다.	6점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 중 하나만 서술하였다.	3점

배경지식+ 정지용, 「고향」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회상적, 애상적
제재	고향		
주제	마음속 고향을 잃어버린 자의 상실감과 비애		
특징	- 반복과 수미 상관의 기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감을 표현함.		

04 이 글은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과 어른이 된 '나'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시점이 교차되어 나타나는 이중적 시점을 취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어린 '나'의 시점과 어른이 된 '나'의 시점이 교차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제시하여 서술하였다.	6점
어린 '나'의 시점 또는 어른이 된 '나'의 시점 중 한 가지만 서술자의 특징으로 제시하여 서술하였다.	3점

- 05** 장명등은 할머니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켜 놓은 등불이다. 따라서 장명등이 꺼졌다는 것은 삼촌의 생환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다.

채점 기준	배점
㉠이 암시하는 바를 '삼촌'과 결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6점
㉠이 암시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불길한 징조 등으로만 서술하였다.	3점

- 06**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할머니의 모성애, 혈육의 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한 맺힌 구렁이가 할머니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고 떠난다는 것은 할머니의 사랑을 통해 원한이 해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채점 기준	배점
머리카락의 상징적 의미와 구렁이의 원한과의 관계를 연결 지어 서술하였다.	6점
머리카락의 상징적 의미와 원한이 해소되었다는 내용 중 어느 한 가지를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3점

- 07** 이 글에서 장마는 한 가족의 갈등이 지속되는 고통스러운 기간이자, 나아가 민족의 불행이었던 육이오 전쟁을 상징한다.

채점 기준	배점
'장마'라는 제목의 의미를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6점
'장마'라는 제목의 의미를 개인적 측면 또는 사회적 측면에서만 서술하였다.	3점

- 08** 극 갈래에서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달하며, 인물의 심리 등은 지시문을 통해 나타난다. 이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로 바꿀 경우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심리를 직접 서술할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시나리오를 소설로 바꾸었을 때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심리에 대해 서술해 준다고 서술하였다.	6점
서술자의 개입과 소설의 진술 방법을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3점

- 09** 지소는 아빠의 글을 읽고 아빠를 기다리기 위해 정현이 일주일만 참자고 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정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채점 기준	배점
갈등 해소의 매개체를 찾아 쓰고 지소가 정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6점
갈등 해소의 매개체만 쓰거나, 지소가 정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내용만 서술하였다.	3점

- 10** 대포는 딸을 그리워하고 있으나, 딸이 보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포는 지소의 아빠와 비슷한 상황으로 지소에게 아빠의 사랑을 알려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대포가 지소에게 아빠의 사랑을 알려 주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6점
대포의 역할로 가족에 대한 사랑의 측면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3점

- 11** 참나무의 모습을 통해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남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글쓴이가 깨달은 점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 겉모습은 변하더라도 속마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고 서술하였다.	6점
글쓴이가 깨달은 점을 단순히 한 그루 나무처럼 되고 싶어 한다고 서술하였다.	3점

- 12** 우주 나무는 사람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글쓴이는 어머니가 편찮으신 상황에서 자신이 우주 나무로 삼은 참나무에게 어머니의 건강을 빌었는데 실제로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채점 기준	배점
글쓴이가 어머니의 건강을 빌었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6점
글쓴이가 어머니의 건강을 빌었다는 내용이 아닌 다른 행동과 연결하여 서술하였다.	3점

- 13** 이 글은 수필로, 자유로운 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홀로 산행을 즐기는 등 글쓴이의 개성이 진솔하게 드러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수필의 특성을 자유로운 형식과 글쓴이의 개성 측면에서 서술하였다.	6점
수필의 특성을 자유로운 형식 측면에서만 언급하거나, 글쓴이의 개성 측면에서만 언급하여 서술하였다.	3점

3 어린 삶의 실타래를 푸는 지혜

01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확인 문제

186쪽 01 ④ 02 나인족

187쪽 03 (1) ○ (2) ○ (3) ×

188쪽 04 (1) 작업 기억 (2) 금단 현상

189쪽 05 (1) × (2) ○ 06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현실 세계보다 가상 세계를 지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90쪽 07 (1) ○ (2) × (3) × 08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191쪽 09 ⑤ 10 요술 방망이

01 이 글은 스마트폰 중독을 제재로 하여 오늘날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 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논설문이다. (가)에서는 김새롬 군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스마트폰을 유용하게 사용한 경우와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문제가 된 경우를 함께 보여 주고 있다. 독자의 관심 유발을 위해 가 벼운 사례를 제시한 것이므로 (가)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알 수는 없다. ④는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담은 '본론' 부분에 나올 내용이다.

오답풀이 ① 글의 시작 부분에서 청소년의 실제 삶과 유사한 사례를 들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②, ⑤ 스마트폰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경우와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

③ (가)를 통해 앞으로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내용이 전개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완자생의 조언

논설문의 서론 부분에서는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거나 글을 쓰는 동기나 목적을 제시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본론 부분에서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를 제시해요. 이 글에서는 서론 부분에 가상의 학생 사례를 들어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어요.

02 (나)에서 숫자 '9(나인)'처럼 고개 숙인 모습을 하고, 궁궐에 매인 '나인'처럼 스마트폰에 엮매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나인족'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고 하며 스마트폰 중독의 실태를 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03 (1) (바)에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는 이유로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2) (바)를 보면 성인은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이 2.1퍼센트인데 비해, 청소년은 4.0퍼센트라고 하였다.

(3) (사)에서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히며, 2011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해마다 증가와 감소를 번갈아 보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배경지식

자기 조절 능력

-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일컫음.
- 자신의 의도나 목표가 드러나게 실행으로 옮기고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외부를 변화시켜 개인의 목표에 합치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심적·행동적 과정임.

04 (1) 두뇌의 정신적 작업 공간을 '작업 기억'이라 한다. 어떤 일에 몰두하면 작업 기억이 가득 차서 공부나 일에 대한 주의가 분산되고 능률이 떨어지는데,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작업 기억 공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집중력이 저하된다.

(2) 스마트폰 중독은 신경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그중 자각이 없을 때, 즉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극도의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느끼는 것은 금단 현상이다.

05 (1) (차)에서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발암 가능 물질'로 세포나 조직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만성 피로도 전자파에 의한 증상인지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2) (카)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경우에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혼동하여 일탈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였다.

06 김새롬 군은 스마트폰에 중독된 후 일상생활에서 친구들과 과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새롬 군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가)에서 찾아보면,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은 가상 세계에 몰입하여 현실 세계보다 가상 세계를 지향하게 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07 (1) (하)에서 글쓴이는 스마트폰 사용 행동을 기록할 때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것을 제안하면서 불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은 삭제하고, 필수적인 응용 프로그램도 개수를 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2) (거)에서 글쓴이는 스스로 스마트폰 금지 시간과 공간을 정하고 그것을 준수하려는 생활 태도를 갖추어야 하며, 혼자 실천하기보다는 친구끼리나 학급이 약속을 정하여 공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3) (너)에서 글쓴이는 정보를 수집하고, 편집할 때에는 디지털 기술(스마트폰)만큼 유용한 것이 없다고 했으므로 정보 수집 및 편집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너)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가까이 있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굳이 스마트폰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08 ‘본론 ①, ②’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실태와 그것의 위험성을 짚었다면 ‘본론 ③’에서는 글쓴이가 생각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타)~(너)에는 청소년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을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09 (너)에서 글쓴이는 스마트폰의 누리소통망(SNS)이 사람들과의 공간적 거리감을 해소해 주었지만, 이것이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더 깊고 풍요로운 인관관계를 만들어 주지는 못할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누리소통망(SNS)이 사람들과의 공간적 거리감을 해소해 주며 이를 통해 친구를 사귄다 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② (너)에서 글쓴이는 스마트폰을 요술 방망이에 비유하며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③ (너)에서 일상의 모든 일을 스마트폰에 의존하여 처리하면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하였다.

④ (너)에서 사람과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취미나 여가 활동을 만들어 둔다면 스마트폰 중독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으며 동시에 심신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하였다.

10 글쓴이는 스마트폰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것의 유용성이 달라지고 삶에 미치는 영향 역시 달라진다는 것을 ‘요술 방망이’에 비유하여 표현했다.

학습 활동

확인 문제

194쪽 **생각 모으기** 01 ② 02 미흡, 자료, 대체 03 ⑤

197쪽 **생각 펼치기** 04 ① 05 ③

01 이 글의 글쓴이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었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짚어 보고 있다. 따라서 ②가 글쓴이가 제시한 삶의 문제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글쓴이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짚어 보면서, 청소년들이 공부나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시하였다.

③ 스마트폰 중독으로 신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지만, 청소년들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④ 스마트폰 중독은 신경 정신과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청소년들이 이미 신경 정신과적 증상을 앓고 있다고 서술하지는 않았다.

⑤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다.

02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이 담긴 글을 읽고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할 때에는 먼저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을 비판적으로 이해해야 하므로 자신이 생각했을 때 글쓴이가 제시한 해결 방안 중 미흡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그리고 주제와 관련한 자료들을 다양한 매체에서 수집하여 그 해결 방안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03 일상생활 중 스마트폰을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사용할 때마다 스마트폰 사용 행동을 기록한다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스마트폰 사용 행동을 스스로 기록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므로 긍정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② 사용 행동을 기록하는 것은 사회에서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보편적 인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③ 사용 행동을 스스로 기록해 정해진 시간 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 스마트폰 금지 시간을 정하고 그것을 준수 하려는 개인의 올바른 생활 태도를 갖추는 방법과 관련된다.

④ 스마트폰 사용 행동을 스스로 기록하는 것은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시간 사용하는지,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는지 등을 스스로 기록해 보는 것이므로 자가 진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04 ㉠에서 글쓴이는 한국인의 외모 집착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면서 이와 관련된 통계 수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①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외모가 곧 능력’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풍토는 외모에 대한 집착과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즉, 이 현상은 한국인의 외모 집착이 심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③ 한국 청소년들이 살을 빼기 위해 지나치게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은 ㉡에 서술되어 있지 않다.

④ 글쓴이는 우리 사회가 외모에 가치를 많이 두게 된다면 ‘후천적 노력’이 아닌 ‘선천적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⑤ 한국인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은 객관적인 외모 수준과는 별개로 스스로 ‘나는 못생겼어.’라고 여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05 ㉠의 첫 문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 것이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글쓴이는 육류의 공장식 대량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채식을 선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육류의 대량 소비에 맞춘 공장식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 고기를 더 빨리 얻으려고 평생 자기 배설물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공간에 사육 동물을 가두어 기른다고 하였다.
 ② 공장식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 사육 동물이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생제로 범벅이 된 사료를 먹이고 있다고 하였다.
 ④ 공장식 대량 생산 체제에서의 사육 동물이 발생시키는 메탄가스는 지구 온난화 원인의 18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⑤ 공장식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 고기를 더 빨리 얻으려고 사육 동물들에게 각종 호르몬 주사를 맞히므로 결과적으로 이런 불량 상품을 먹는 사람의 몸도 불량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소단원 평가 문제

200~203쪽

01 ④ 02 ① 03 ③ 04 ④ 05 ① 06 ② 07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잘 사용해야 한다. 08 ④ 09 ③ 10 ⑤ 11 ②

01 (다)에서 대중 매체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인용은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긍정적 측면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김새롬 군의 사례를 글의 첫머리에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글의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② (마)~(바)에서 한국 정보화 진흥원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여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노출되어 있음을 밝혀 신뢰성을 높였다.
 ③ (나)에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사례를 열거하면서 글쓴이가 주장한 대로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버렸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라)에서 글쓴이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짚어 보고자 한다고 했다. 이것은 본문에서 서술할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이 내용을 통해 독자는 글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02 글쓴이는 스마트폰의 문제점으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에 빠진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제시한 삶의 문제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오답풀이】 ② (다)에서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스마트폰의 장점으로 언급하고 있다. 글쓴이는 이것을 언급하며 스마트폰으로 유해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지 않다.
 ③ (나)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에 몰두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이것은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보여 주기 위한 사례일 뿐이다.

④ (가)의 김새롬 군의 사례에서 스마트폰에 중독된 자녀와 그것을 막으려는 부모가 갈등을 겪는 일이 늘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문제라 할 수 있다.

⑤ (마)에서 글쓴이는 청소년들이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해서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에 빠지기 쉽다고 했다.

03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사례를 통해 볼 때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통계 조사를 통해서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빠진 청소년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스마트폰이 청소년의 가치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근거는 아니다.

【오답풀이】 ① (다)에서 글쓴이는 대중 매체 학자들이 스마트폰이 역사를 통틀어 가장 짧은 기간에 우리의 일상을 장악한 도구라고 말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② (마)에서 글쓴이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과도한 의존 현상에 빠져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④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라고 한다. (마)에서 글쓴이는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에 중독될 위험이 크다고 말하며, 실제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해마다 증가한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하였다.
 ⑤ (라)에서 글쓴이는 스마트폰의 편리함의 이면에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숨어 있다고 하며, 그것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이라고 하였다.

04 (라)에 누리소통망(SNS)에서 익명의 다수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 일탈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었지만, 스마트폰 중독이 익명의 다수에게 호응을 얻고 싶은 충동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다)에서 스마트폰 중독은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스마트폰 중독은 금단 현상이나 강박 증세, 충동 조절 능력 저하, 우울 등과 같은 신경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라)에서 스마트폰 중독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하였다.
 ⑤ (가)에서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05 이 글은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의 세계 보건 기구에서 2011년부터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①의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신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② (다)에서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 때문에 눈이 피로해진다고 하였다.
 ③ (가)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기억 공간이 부족해져서 공부나 일에 대한 주의가 분산되고 능률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부를 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반응은 이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결과이다.

④ (라)에서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가상 세계에 몰입하다 보면 현실 세계에서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였다.

⑤ (나)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즉 자각이 없을 때 극도의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느끼는 것은 금단 현상 때문으로, 스마트폰 중독이 동반하는 증상 중 하나이다.

06 (나)~(라)에서 글쓴이의 생각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금지 시간과 공간 등과 같은 구체적 사례를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독자는 글쓴이의 생각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07 서술형

글쓴이가 스마트폰을 ‘일종의 요술 방망이’라고 한 것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바)에서 글쓴이는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잘 사용하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는 등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08 (마)에서 글쓴이는 스마트폰의 누리소통망(SNS)이 사람들과의 공간적 거리감을 해소해 주었지만, 이것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더 깊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가)를 통해 스마트폰은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 모두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스마트폰 중독을 진단해 주는 누리집과 상담 기관을 소개하고 있다.

③ (바)에서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잘 사용한다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는 등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⑤ (다)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많으면 스마트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했다.

09 (다)에서 글쓴이는 청소년들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행동을 기록해 보기를 권하면서 불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보기>에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다)에서는 불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은 채 삭제할 것만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올바른 기준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불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하여 더 잘 판단할 수 있으므로 ③은 (다)에 대한 보완·대체 방안으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는 청소년들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행동을 기록해 보기를 권하고 있으므로 학부모가 스마트폰 사용 행동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보완·대체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교육 제도를 다루고 있는 <보기>를 활용한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

②, ④ (다)에서는 스마트폰에서 불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필수적 응용 프로그램도 몇 개로 한정하여 사용하기를 권하고 있다. <보기>에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다)의 내용을 고려할 때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나, 응용 프로그램 제거와 관련된 스마트폰 기능은 (다)를 보완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보기>에는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나, 응용 프로그램의 제거와 관련된 스마트폰 기능과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보기>를 활용한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

⑤ (다)에서는 청소년들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행동을 기록해 보기를 권하고 있으므로 교사가 주도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은 보완·대체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보기>에서도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교육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보기>를 활용한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

10 이 글에는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례가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라)에서 요즘 청소년들이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친구를 사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유용성을 활용하되 일상의 모든 일을 스마트폰으로 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이 글의 글쓴이는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친구를 사귀라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마)에서 ‘일상의 모든 일을 스마트폰에 의존하여 처리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다.’라고 했다.

② (라)에서 ‘건널목, 계단 등과 같이 위험 요소가 있는 공간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스스로 약속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다.

③ (나)에서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 보거나 상담 기관이 있다면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고 했다.

④ (마)에서 ‘스마트폰 없이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취미나 여가 활동을 만들어 둔다면, 스마트폰 중독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으며 동시에 심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라고 했다.

11 ①의 경우 글쓴이는 ‘스마트 쉽 센터’ 누리집을 방문하여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을 해 본 후, 전화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하고, 집 근처에 ‘건강 가정 상담 센터’나 ‘청소년 상담 센터’와 같은 상담 기관이 있다면 이를 방문하는 것도 좋다고 했다.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또는 집 근처에서 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 볼 것을 권하면서 중독자들은 대체로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혹시 인정하더라도 치료받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오래가면 치료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전문적 진단을 받는 것은 스마트폰 중독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b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볼 때, 이 방법은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③ ㉠은 때와 장소를 가려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사회적 예절과 관련된 것이므로 사회의 보편적 인식·가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④, ⑤ ㉡과 관련하여 글쓰이는 학교 과제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정보를 수집하고 편집할 때에는 디지털 기술만큼 유용한 것이 없다고 했다. 이것은 스마트폰의 긍정적 측면도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가능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말라는 ㉢의 입장은 빠르게 정보를 얻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는 스마트폰이 유용하므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02 음악실 사용에 대한 협상

확인 문제

207쪽 01 ④ 02 음악실 사용 시간

208쪽 03 ④

209쪽 04 ⑤ 05 정연의 말에 담긴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10쪽 06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가 끝날 때까지 음악실 청소를 재민네 반이 맡아 함. 07 ㄷ

01 (나)에 밴드 동아리의 입장이 제시되어 있다. 밴드 동아리는 학교 대표로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에 나가게 되어 그 준비로 한창 연습 중이라 음악실을 매일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동아리 연습 시간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다면 재민네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타협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④는 적절하지 않다.

02 밴드 동아리와 재민네 반이 갈등이 발생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음악실 사용 시간을 두고 ‘재민’네 반과 밴드 동아리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협상 배경을 통해 이 협상의 주제가 ‘음악실 사용 시간’임을 알 수 있다.

03 (다)에서 정연은 교내 대회와 교외 대회를 비교하며 밴드 동아리의 대회 출전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매일 음악실을 청소하고 관리한 밴드 동아리에게 음악실 사용을 양보하라고 한다며 상대방의 발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감정적 대응은 상대방의 감정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협상에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협상 참여자 양측이 서로 만족할 만한 타협안을 찾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핵심 요약 협상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표현 방법

상대방의 의견 요약하기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말하고, 자신이 상대방의 의견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시킴.
상대방의 의견이 가지는 의의 말하기	상대방의 주장이 가치 있음을 인정하고, 협상의 목적이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임을 인식시킴.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 표시하기	상대방의 처지에 감정을 이입하여 공감을 표시함으로써 자신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을 인식시킴.
상대방에게 우호적인 표정이나 몸짓 보이기	온화한 표정을 짓거나 고개를 끄덕거림으로써 협상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자신이 긍정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음을 나타냄.

04 ㉠에 앞서 재민이 주중 사 일, 재민네 반이 원하는 시간에 음악실을 사용하겠다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정연은 재민의 새로운 대안이 수용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고, 재민네 반이 음악실을 사용할 요일과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고 있다. 뒤에 이어지는 말에서 “너희가 음악실을 사용할 요일과 시간을 미리 알려 주면 우리가 연습 시간을 조정하겠다는 말이었어.”라는 정연의 말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05 ㉡의 고개를 가우뚱하는 비언어적 표현은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나온 반응이다. ㉠ 뒤에 “네 말은 주중에 매일 너희가 원하는 시간에 음악실을 사용하겠다는 뜻이니?”와 같이 정연이 한 말의 의미를 재차 확인하는 질문을 한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06 정연은 재민에게 밴드 동아리의 연습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재민네 반이 음악실 청소를 맡아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07 재민은 주말에 교실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밴드 동아리의 전자 피아노를 빌려 달라고 정연에게 제안했다. 재민의 제안에 정연은 사용하지 않는 전자 피아노를 합창 대회가 끝날 때까지 재민네 반에 빌려주기로 했다.

학습 활동

확인 문제

214쪽 **생각 모으기** 01 ③ 02 주중에는 음악실에서, 주말에는 교실에서 합창 연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03 타협, 만족 04 ⑤

217쪽 **생각 펼치기** 05 ③ 06 ⑤



01 협상의 조정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한다.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시작 단계에서 할 일이다.

[오답풀이] ①, ② 시작 단계에서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④ 조정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상호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⑤ 해결 단계에서는 타협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한다.

02 이 협상을 통해서 재민네 반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음악실에서, 주말에는 밴드 동아리가 빌려준 전자 피아노를 사용해 교실에서 지속적인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03 협상은 서로의 이익과 주장이 달라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협상 참여자들은 모두가 만족할 만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타협과 조정을 통해 대안을 찾아 문제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04 협상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제시된 정연이 한 말의 의도를 살리되,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따라서 교외 대회가 심리적 부담감이 더 크다는 자신의 처지를 정중하게 밝힌 ⑤가 가장 적절하다.

05 이 협상에서 학교 측은 장학금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주민 대표가 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

[오답풀이] ① 학교 대표는 주민 대표에게 주말에는 운동장과 체육관 모두를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② 학교 대표는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학교 시설의 전면 개방을 반대했다.

④ 주민 대표는 처음에 학교 시설을 전면 개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⑤ 주민 대표는 학교는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라고 말하면서 학교 시설 개방이 학교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06 이 협상에서 학교 측은 주말에 운동장과 체육관을 모두 개방하겠다고 했다. 주민들의 동호회만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⑤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학교 대표는 주중에는 체육관만을, 주말에는 체육관과 운동장을 개방하기로 했으므로 체육관과 운동장을 제한적으로 개방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② 학교 대표는 주민 대표에게 주중에는 자율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운동장을 개방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학교 측은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하려 함을 알 수 있다.

③ 주민 대표는 교육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용하는 것을 수용했고, 학교 대표는 주중에는 저녁 7시 이후에 학교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④ 주민 대표는 체육 시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며 이 시설들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개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체육 시설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주차장 개방 반대는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소단원 평가 문제

220~221쪽

01 ① **02** ② **03**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보다 교내 합창 대회가 더 급하다. **04** ④ **05** ⑤ **06** 재민은 주중에 매일 밴드 동아리가 원하는 시간에 음악실을 사용하겠다는 의도라고 생각했으며, ⑥의 반응을 본 정연은 재민이 자신의 말에 담긴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07** ②

01 정연의 “동아리 연습 시간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만 있다면, 너희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아.”와 재민의 “우리도 너희 동아리 연습 일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음악실 사용 시간을 잡겠지만”에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협상을 열게 된 갈등의 원인은 음악실 사용에 있으며, 정연과 재민은 이에 동의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③ 제시된 부분에서는 정연과 재민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을 뿐, 합의를 이루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재민과 정연은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⑤ 재민과 정연은 상대방이 제시한 주장의 근거를 평가하는 말이나 행위를 하지 않았다.

02 (나)에서 재민은 정연에게 밴드 동아리의 연습 일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음악실 사용 시간을 잡겠다고 했다. 따라서 재민네 반 학생들의 시간을 고려하여 음악실 사용 시간을 잡아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나)에서 재민은 한 달 정도 남은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보다 당장 보름 뒤에 열릴 교내 합창 대회가 더 급하다고 정연에게 말했다.

③ (라)에서 재민은 반 친구들이 직접 피아노와 바이올린 등을 연주할 거라 악기와 음향 시설이 갖추어진 음악실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④ (나)에서 정연은 대회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아서 방과 후에는 물론, 주말까지 계속 연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⑤ (나)에서 정연은 동아리 연습 시간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재민네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03 서술형

(나)에서 재민이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보다 당장 보름 뒤에 열릴 교내 합창 대회가 더 급하다고 생각해.”라고 말하자 정연은 흥분한 목소리로 교내 합창 대회와 외부 대회가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시간상 급한 것이 교내 합창 대회라고 한 재민의 말을 정연이 교내 대회가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오해한 것이다.

04 ②은 재민이 서로의 의견을 제시할 때에 고려해야 할 점을 정연에게 제시한 것이지, 협상의 규칙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은 재민네 반과 밴드 동아리의 갈등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재민과 정연이 협상을 하게 된 배경이다.

② ㉡은 흥분한 목소리로 한 말이다. 이러한 감정적 발화는 갈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협상 태도가 아니다.

③ ㉢은 정연에게 흥분을 가라앉히려는 뜻으로 사용한 비언어적 표현이다. 감정적으로 대립된 상황에서는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상대방을 진정시킨 것이다.

⑤ ㉤은 재민네 반이 음악실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을 이해했음을 보여주는 말이다.

- 05** ㉥은 차후에 이어질 협상 주제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다시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협상은 협상 참여자의 이익이 최대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협상의 특징과 관련지어 볼 때 재민의 제안이 밴드 동아리에게 더 유리한 제안이라고 밝힌 것은 정연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

② 정연은 재민네 반에게 주말 오후 네 시 이후부터 음악실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의문문을 사용함으로써 제안을 보다 완곡하게 표현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제안의 수용 여부를 질문하고 있다.

③ 재민은 밴드 동아리의 연습 시간을 피하고 싶지만 학급 친구들의 사정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임을 밝히고 있다.

④ ㉥ 뒤에서 정연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다섯시부터 한 시간 동안 음악실을 사용하겠다는 재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밴드 동아리는 이전에 하던 대로 주말에 음악실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정연은 자신의 이익을 일부 희생하여 상대방의 제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에서 양보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6 서술형

㉡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비언어적 표현이다. 재민은 정연의 말이 마치 밴드 동아리가 주중에 매일 원하는 시간에 음악실을 사용하겠다는 것처럼 생각되었기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물은 것이다. 재민의 질문 뒤에 정연이 사과를 하며 질문의 의도를 부연 설명하는 것으로 볼 때, 정연은 ㉡를 보고 재민이 자신의 말에 담긴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 07** ㉢ 재민은 밴드 동아리가 음악실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듣고, “음악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연습하기 힘들겠다.”라고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했음을 표현하고 있다.

㉣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언어적 표현으로,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공감의 뜻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오답풀이| ㉣ “너희 동아리도 조금만 양보해 줘.”는 재민이 협상 상대측인 정연에게 양보를 요청하는 말이다.

㉥ 정연이 재민이 제안한 대안을 수용할 의사를 드러내는 말이다.

어휘 어법 활용

확인 문제

227쪽 01 ① 02 (1) 조처 (2) 대처

- 01** ‘맨손’만 파생의 방법으로 만들어졌고, 나머지 단어들은 합성의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맨손’은 ‘맨-+손’으로 분석되는데, ‘맨-’은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지닌 접두사이다.

|오답풀이| ② ‘돌+다리 → 돌다리’ ③ ‘술+나무 → 소나무’ ④ ‘숨+사탕 → 숨사탕’ ⑤ ‘높(다)+푸르다 → 높푸르다’

- 02** (1) 제품 하자의 문제를 리콜로 정리하여 처리했다는 의미므로 ‘조처’가 적절하다.
(2) 주택 문제에 대해 알맞은 조치를 촉구한다는 의미이므로 ‘대처’가 적절하다.

대단원 모의고사

230~232쪽

01 ⑤ 02 ⑤ 03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04 ① 05 ⑤ 06 ⑤ 07 ③

- 01** (라)에 누리소통망(SNS)에서 호응을 얻기 위해 일탈 행동을 저지른 사례는 언급되어 있으나, 이러한 일탈 행동이 새로운 인간관계로 이어지기도 했다는 내용은 서술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다)에서 스마트폰 중독은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② (가)에서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 없다고 했다.

③ (라)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할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④ (나)에서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스마트폰을 이전보다 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상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없게 된다고 했다.

- 02** (다)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지만, <보기>의 새롭 군이 스마트폰을 보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은 스마트폰에 집중을 하다가 주위를 살피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성 피로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서 스마트폰에 중독된 새롭 군은 학업 성적이 떨어졌다. (가)에서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기억 공간이 부족해져서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 없어 학업 성적이 떨어진다고 했다.

② <보기>에서 새롭 군은 사람들의 댓글을 확인하는 일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고부터는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이 줄었다고 했으며, (가)에서도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공부나 일에 대한 주의가 분산된다고 했다.

③ <보기>에서 새롭 군은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나)에서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극도의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느끼게 된다고 했다.

이를 스마트폰에 중독된 새롭 군의 상황과 관련지어 본다면 새롭 군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느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④ <보기>에서 새롭 군은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등 스마트폰에 중독된 모습을 보이는데, <나>에서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스마트폰을 이전보다 더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새롭 군이 처음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와 같은 만족감이 들지 않아서 사용 시간을 늘려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고득점 전략

‘이 글을 바탕으로’라고 했으므로 <보기>의 내용 중에서 이 글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해요.

03 서술형

<나>에서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기분과 사고 기능 등을 조절하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들는데, 이것이 줄어들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 충동적으로 변하거나 우울증이 생기기도 한다고 했다.

04 <가>에서 중독자들은 대체로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답풀이] ② <라>에서 스마트폰 없이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여가 활동을 한다면 스마트폰 중독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으며 동시에 심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이 심리적 건강에 좋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라>에서 스마트폰의 누리소통망(SNS)이 사람들과의 공간적 거리감을 해소해 주었지만 이것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더 깊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심리적 거리감에 대한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나>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많으면 스마트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했다.

⑤ <가>에서 ‘스마트 심 센터’ 누리집을 방문하여 스마트폰 중독자가 진단을 해 본 후, 전화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한다고 했다.

05 공정성은 생각이나 주장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글쓴이는 ㉠에서 가능하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 일할 것을 권하면서 ㉡ 뒤에서 스마트폰의 이용의 단점뿐만 아니라 장점도 함께 언급하고 있어 공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 글쓴이의 제안은 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전문적인 진단은 스마트폰 중독 여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에 유용한 것이다. 또한 자신이 스마트폰 중독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아야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치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은 문제 해결에 유용하다.

② 스마트폰을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스마트폰 사용 행동을 일일이 스스로 기록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③ 스마트폰 금지 시간과 공간을 정하고 그것을 준수하는 것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예절과 관련된다. 따라서 사회의 보편적 인식·가치에 부합한다.

④ 입시 때문에 바쁜 학생들은 스마트폰에서 빠르게 정보를 찾아 학교 과제를 하거나 공부를 한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 일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06 정연은 ‘흥분한 목소리로’와 같은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며 재민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정연은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원활한 협상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준언어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상대방의 양보를 얻어 냈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재민과 정연은 협상이라는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음악실 사용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좁혀 나가면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

② 재민은 “너희 동아리가 처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돼.”라고 하며 밴드 동아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고, 정연은 “교내 합창 대회가 코앞이라 너희도 연습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들어. 악기 연주까지 하려면 더더욱 피아노가 있는 음악실에서 연습하는 게 좋겠지.”라고 하며 재민네 반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

③ 재민과 정연은 서로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 검토한 후 상대방의 대안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와 함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

④ 재민과 정연은 ‘고개를 끄덕이며’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07 정연의 목표점은 밴드 동아리의 연습 시간을 바꾸지 않는 것이었다. 음악실 청소는 전자 피아노를 빌려주는 대신에 얻어 낸 것이다.

대단원 예술영 평가

233~234쪽

01 ‘나인족’은 숫자 ‘9(나인)’처럼 고개 숙인 모습을 하고 궁궐에 매인 ‘나인’처럼 스마트폰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킨다. 글쓴이는 ‘나인족’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려 했다.

02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어떤 제약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03 청소년들은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이나 계획에 따라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한다.

04 통계 자료를 통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함을 보여 주려 했으며, 통계 자료는 이런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 준다.

05 주민 대표는 학교 시설 개방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학교의 기본적인 역할이자 의무라는 이유로 학교 시설의 전면 개방을 요구한다. 학교 대표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교육하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학교 시설 개방을 반대한다.

06 • 검토: 주중에는 6시까지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으며, 야간에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게 되면 소음이나 불빛 등으로 인해 자율 학습을 방해할 수 있다.

• 대안: 주중에는 저녁 7시 이후에 체육관만 개방하겠다.

07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우호적인 자세로 협상에 참여하는 태도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제대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든다.

- 01 (가)에서 글쓴이는 ‘나인족’이라는 용어를 들어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이미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왔으며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문제임을 밝히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나인족’의 의미 두 가지를 모두 제시하고 주어진 형태에 맞게 그 용어를 사용한 이유를 서술하였다.	6점
‘나인족’의 의미 두 가지 중 하나만 제시하였을 뿐 그 용어를 사용한 이유를 올바르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3점

- 02 (나)에서 글쓴이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어 어떤 제약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스마트폰의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의 편리함 이면에 있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의존 문제를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스마트폰의 긍정적 측면과 스마트폰이 낳은 문제점을 모두 서술하였다.	6점
스마트폰의 긍정적 측면과 스마트폰이 낳은 문제점 중 하나만 서술하였다.	3점

- 03 (다)에서는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제시하고, (라)~(마)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있다. 특히, (라)에서는 분명한 목적이나 계획 없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습관은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해야 하는 이유와 예방 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6점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해야 하는 이유를 썼으나, 예방 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3점

- 04 이 글의 글쓴이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실태를 보여주고 내용에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이 글의 글쓴이가 통계 자료를 제시한 의도와 이러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모두 서술하였다.	6점
이 글의 글쓴이가 통계 자료를 제시한 의도와 이러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중 하나만 서술하였다.	3점

- 05 이 글은 학교 시설 개방 문제로 주민 대표와 학교 대표가 만나 의사소통하는 협상 담화이다. 주민 대표 측은 학교 시설을 전면 개방할 것을 목표로, 학교 대표 측은 학교 시설을 전면 개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주민 대표 측의 입장과 학교 대표 측의 입장을 각각 그 근거를 들어 서술하였다.	6점
주민 대표 측의 입장과 학교 대표 측의 입장은 서술하였으나 각 입장의 근거 중 일부만 서술하였다.	4점
주민 대표 측의 입장과 학교 대표 측의 입장만을 서술하였을 뿐 각각의 근거를 서술하지 못하였다.	2점

- 06 (나)에는 협상 참여자들의 제안과 상호 검토, 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 있다. 주민 대표가 운동장과 체육관만 개방하는 것을 제안하자, 학교 대표는 주중에 학생들이 6시까지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고, 야간에는 자율 학습으로 학교에 남아 있다는 것을 근거로 운동장은 개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신 주중 저녁 7시부터는 체육관을 개방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학교 대표의 검토와 대안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6점
학교 대표의 검토와 대안 중 하나만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4점
학교 대표의 검토와 대안 중 하나만 서술하되 내용을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2점

- 07 ㉠에서 학교 대표는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준언어적 표현으로 드러내며 타협의 의지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협상은 타협과 조정을 통해 협상 참여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이익을 얻는 것이 목적인데, 이러한 태도로는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채점 기준	배점
㉠에 나타나는 참여 태도가 어떠한지 밝히고 참여 태도를 근거로 ㉠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6점
㉠에 나타나는 참여 태도가 어떠한지 밝혔으나 ㉠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4점
㉠에 나타나는 참여 태도와 문제점 중 하나만 서술하되 내용을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2점

4 우리말, 바르게 읽고 쓰기

01 음운의 변동

학습 활동

C 확인 문제

245쪽 ●활동 1. 2● 01 음운 변동 02 ⑤ 03 ② 04 (1) ×
(2) ○

253쪽 ●활동 3. 4● 05 ㉠ 06 ② 07 (1) 넉씨 (2) 밤나즈로
(3) 학교에 (4) 단파치 08 ④

01 국어에서는 어떤 형태소의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02 ‘부엌’에서 ‘엌’의 끝소리인 ‘ㄱ’은 받침소리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된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대표음 ‘ㄱ’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따라서 ‘부엌’의 올바른 발음은 [부엌]이다.

[오답풀이] ① 받침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대표음 ‘ㅂ’으로 발음되므로 ‘풀쑈[풀쑈]’로 발음된다.

②, ④ 받침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대표음 ‘ㄷ’으로 발음되므로 ‘바깥[바깥], ‘들꽃[들꽃]’으로 발음된다.

③ 받침 ‘ㅅ’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대표음 ‘ㄷ’으로 발음되므로 [천눈]으로 발음된 다음, 파열음 ‘ㄷ’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ㄴ’으로 바뀌어 [천눈]으로 발음된다.

03 유음화는 비음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실내’는 ‘내’의 ‘ㄴ’이 앞에 오는 ‘실’의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인 ‘ㄹ’로 바뀌어 [실래]로 발음된다.

[오답풀이] ‘종로[종노], 국물[궁물], 영릉[영능], 염려[염네]’는 발음할 때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들이다.

04 (1) 구개음화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2) ‘아기를 품에 안다.’에서 ‘안다’는 [안따]와 같이 ‘ㄷ’이 된소리로 발음된다. 이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 중 ‘ㄴ’으로 발음되는 용언의 어간 받침 뒤에 첫소리가 ‘ㄷ’인 어미가 이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05 거센소리되기는 ‘축하[추카], 말형[마텝], 잡히다[자피다], 좋지[조치]’처럼 ‘ㄱ, ㄷ, ㅂ, ㅈ’과 ‘ㅎ’이 합쳐져 거

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으로 음운의 축약에 해당한다.

06 주어진 문장의 단어 중 ‘타-+-아 → 타(ㅌ) 탈락’, ‘기쁘-+-어서 → 기뻐서(ㄷ) 탈락’에서 모음 탈락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답은 ②이다.

07 (1) 겹받침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첫째 받침은 유지되고 둘째 받침은 연음된다. 이때 연음되는 ‘ㅅ’은 ‘ㄱ’ 소리 뒤에 오므로 된소리로 발음된다.

(2) 홑받침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홑받침은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제 음가대로 발음된다.

(3) 일반적으로 반모음 첨가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표준 발음법 제22항에 제시된 경우와 같을 때만 표준 발음으로 허용한다. 즉 ‘되어[되어/되어], 피어[피어/피어], 이오[이오/이오], 아니오[아니오/아니오]’ 등과 같은 경우에만 반모음 첨가 발음을 허용하므로, ‘학교’는 [학교]로 발음해야 한다.

(4) 끝소리가 ‘ㅌ’인 형태소가 ‘ㅣ’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ㅌ’은 구개음 ‘ㄷ’으로 발음된다.

08 ‘략원’은 ‘ㄹ, ㄴ, ㄷ, ㅌ, ㅁ, ㅂ, ㅅ’ 앞의 ‘ㄹ’이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ㄴ’으로 바뀌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낙원’으로 써야 한다.

[오답풀이] ①, ③ ‘ㄹ, ㄴ, ㄷ, ㅌ, ㅁ, ㅂ, ㅅ’ 앞에서의 ‘ㄴ’과 ‘ㄹ’이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탈락되므로 ‘녀자’가 아니라 ‘여자’, ‘류행’이 아니라 ‘유행’으로 적는 것이 맞다.

② 외래어는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뉴스’로 적는 것이 맞다.

⑤ ‘ㄹ, ㄴ, ㄷ, ㅌ, ㅁ, ㅂ, ㅅ’ 앞의 ‘ㄹ’이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ㄴ’으로 바뀌므로 ‘래일’이 아니라 ‘내일’로 적는 것이 맞다.

소단원 평가 문제

256~259쪽

01 ⑤ 02 ④ 03 ④ 04 ③ 05 ④ 06 ⑤ 07 ②
08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비음화 09 ④ 10 ③ 11 ③
12 실질 13 ③ 14 ③ 15 ② 16 ② 17 ② 18 ④
19 ⑤ 20 ② 21 기쁘-, -어서, - 22 ① 23 ② 24 ③
25 ② 26 ④ 27 ㉠: 유음화 ㉡: 영마찰 ㉢: 말귀 28 ③
29 ① 30 ③ 31 ③ 32 ⑤ 33 ① 34 ④

01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오답풀이] ①은 어절, ②는 형태소, ③은 단어, ④는 음절의 개념이다.

- 02 음운 변동의 결과로 일어난 발음 변화가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반모음 첨가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되어, 피어', '이오, 아니오'와 유사한 음운 조건을 가진 경우는 [어]와 [오]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와 [요]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오답풀이] ① 음운 변동은 한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일어난다.

② 음운 변동은 그 결과에 따라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서로 다른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한 개의 음운으로 바뀌는 '축약', 두 음운 중 하나의 음운이 발음되지 않는 '탈락', 두 음운 사이에 새로운 음운이 생겨나는 '첨가'의 네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③ 음운 변동 현상 중 모음 탈락은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두 모음이 이어서 소리 날 때 그중 한 모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발음과 표기가 일치한다.

⑤ 음운 변동의 결과에 따라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을 '교체'라고 한다.

- 03 '강산'은 표기와 동일한 [강산]으로 소리 나므로 한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삼만]으로 발음되며 'ㅁ'이 'ㄹ'로 바뀌어 소리 난다.

② [실래]로 발음되며 'ㄴ'이 'ㄹ'로 바뀌어 소리 난다.

③ [마지]로 발음되며 'ㄷ'이 'ㅈ'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⑤ [갈등]으로 발음되며 'ㄷ'이 'ㄸ'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 04 ㉠은 'ㄹ'이 'ㄴ'으로 바뀐 '교체'이고, ㉡은 없던 'ㄴ'이 새로 생겨난 '첨가'이다.

[오답풀이] ㉢ 같이[가치]: 구개음화로 '교체'에 해당된다.

㉣ 첫눈 → [천눈] → [천눈]: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교체'에 해당된다.

- 05 우리말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 자음만이 음절의 끝소리로 발음된다. 이외의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면 일곱 개 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된다.

- 06 '웃[온], 낮[남], 꽃[꼰], 히읃[히읃]'은 음절의 끝소리가 모두 'ㄷ'으로 소리 난다. 그러나 '키읃[키읃]'은 음절의 끝소리가 'ㄱ'으로 소리 난다.

- 07 <보기>의 '국물[궁물]'은 'ㄱ'이 비음 'ㄹ' 앞에서 비음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났다. ②의 '맨입[맨입]'은 앞 음절이 자음 'ㄴ'으로 끝나고 뒤 음절이 모음 'ㅣ'로 시작할 때 'ㄴ'이 새로 생겨나는 'ㄴ' 첨가가 일어난 것이다.

[오답풀이] ① 'ㄱ'이 'ㄴ' 앞에서 비음 'ㅇ'으로 바뀐 비음화이다.

③, ⑤ 'ㄹ'이 'ㄹ' 뒤에서 비음 'ㅇ'으로 바뀐 비음화이다.

④ 'ㄷ'이 'ㄴ' 앞에서 비음 'ㅇ'으로 바뀐 비음화이다.

08 서술형

'덧문'은 받침 'ㅅ'이 자음 앞에서 음절의 끝소리에 올 수 있는 일곱 개의 자음 중 하나인 'ㄷ'으로 바뀌어 [덜문]이 된다(음절의 끝소리 규칙). [덜문]은 'ㄷ'이 뒤에 오는 비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바뀌어 [넋문]이 된다(비음화).

- 09 <보기>에서 설명하는 음운 변동 현상은 유음화이다. ④의 '닫는'은 [단는]으로 발음되는데, 'ㄷ'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오답풀이] ①의 '설날[설랴]', ②의 '단란[달란]', ③의 '난로[날로]', ⑤의 '한라산[할라산]'은 모두 비음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뀐 유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 10 <보기>는 모두 비음화 현상이 나타난 예이다. '키읃만 → [키읃만] → [키읃만]'은 'ㄱ'이 비음 'ㄹ' 앞에서 비음 'ㅇ'으로 바뀌었다. '받는다[받는다]'는 'ㄷ'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ㄴ'으로 바뀌었다. '잡는다[잡는다]'는 'ㅂ'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ㅁ'으로 바뀌었다. '동화(同化)'는 한 음운이 인접하는 다른 음운을 닮아 가는 현상을 뜻하는데 <보기>는 비음이 아닌 것이 인접하는 음운을 닮아 비음으로 바뀐 것이므로 ③의 설명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은 유음화, ②는 된소리되기, ④는 구개음화, ⑤는 음운의 축약에 대한 설명이다.

핵심체크! 자음 동화(子音同化)

음절의 끝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 쪽이 다른 쪽 자음을 닮아서 그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자음이나 같은 소리로 바뀌기도 하고,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다 바뀌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자음 동화라 한다. 대표적인 자음 동화 현상으로는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다.

- 11 <보기>는 'ㄷ, ㅌ'이 모음 'ㅣ' 앞에서 'ㅅ, ㅈ'으로 바뀌는 구개음화 현상의 예이다. ③ '곧이어'는 [고디어]로 발음되는데, 'ㄷ' 뒤에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가 결합했기 때문에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해돋이[해도지]

② 미닫이[미다지]

④ 훑이다 → [훑티다] → [훑치다]

⑤ 붙이다 → [부티다] → [부치다]

배경지식+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	실질적 의미를 지닌 형태소 예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용언의 어간
형식 형태소	문법적 기능만을 하는 형태소 예 조사, 용언의 어미, 접사

- 12 '끝인사'는 'ㅌ' 뒤에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

‘인사’가 결합하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고득점 전략

‘ㄷ’ 뒤에 모음 ‘ㅣ’가 오는데도 ‘끝인사’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묻는 것은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예요. 이러한 문제는 단어의 형태소를 분석하여 ‘ㄷ, ㅌ’ 뒤에 오는 형태소가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지, 문법적 기능만을 하는지를 파악하여 해결하도록 해요.

- 13 ‘꽃이’는 받침인 ‘ㅈ’이 뒤에 이어진 모음 ‘ㅣ’에 연음되어 [꼬치]로 발음될 뿐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붙여 → [부터] → [부쳐]

② 달혀 → [다터] → [다쳐]

④ 살살이[살싸치]

⑤ 받히다 → [바티다] → [바치다]

- 14 <보기>는 된소리되기 현상에 대한 설명인데, ㉠만 ‘ㄹ’로 발음되는 받침이 비음 ‘ㅁ, ㅇ’ 뒤에 오면 ‘ㄹ’이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의 예로는 ‘침략[침낙], 강릉[강릉]’이 있다. 나머지는 모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을 바르게 설명한 것이다.

- 15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체중’은 한자어이나, ‘ㄹ’ 받침 뒤에 ‘ㄷ, ㅅ, ㅈ’이 연결된 것이 아니므로 ‘중’을 예사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의 ‘국밥’은 [국뽕], ③의 ‘얹고’는 [안꼬], ④의 ‘발전’은 [발뽕], ⑤의 ‘갈 곳’은 [갈꼐]로 발음된다.

- 16 ‘책상’은 ‘ㄱ, ㄷ, ㅂ’으로 발음되는 받침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올 때 된소리로 발음된다는 된소리되기의 환경에 따라 [책쌍]으로 발음된다. 나머지는 모두 불필요하게 된소리로 발음한 것이다.

- 17 ‘좋아’는 [조아]로 ‘ㅎ’이 탈락되어 발음된다. 이것은 음운의 축약이 아니라 탈락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만형[마형]: ㄷ+ㅎ → ㅌ

③ 달다[다타]: ㅎ+ㄷ → ㅌ

④ 백합[배갑]: ㄱ+ㅎ → ㅋ

⑤ 따듯한[따뽕한] → [따뜨탄]: ㄷ+ㅎ → ㅌ

- 18 거센소리되기는 ‘ㄱ, ㄷ, ㅂ, ㅅ’과 ‘ㅎ’이 합쳐져서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하므로 ④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③ 서로 다른 두 음운이 합쳐져서 새로운 한 개의 음운으로 소리 나기 때문에 음운의 축약에 해당한다.

② ‘줄지’는 [조치]로 발음되는데, ‘ㅎ’과 ‘ㅈ’이 합쳐져서 거센소리 ‘ㅊ’이 된 결과이다.

⑤ 음운의 축약이 일어날 때 발음되는 음운의 수는 표기된 음운에서 한 개의 음운이 줄어든다.

- 19 ⑤의 ‘잡히기만[자피기만]’은 ‘ㅂ+ㅎ’이 ‘ㅍ’으로 바뀌는 ‘축약’ 현상만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① 술하다 → [술하다] → [수타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거센소리되기

② 묻히다 → [무티다] → [무치다]: 거센소리되기, 구개음화

③ 탓하다 → [탈하다] → [타타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거센소리되기

④ 낮하다 → [남하다] → [나타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거센소리되기

- 20 ‘타-+-아서 → 타서’는 모음 ‘ㅏ’가 탈락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⑤는 모두 모음이 축약된 것이다.

핵심 콕! 모음 축약

‘ㅣ’와 ‘ㅏ’가 만나서 ‘ㅑ’로 바뀌거나 ‘ㅓ, ㅕ’가 ‘ㅗ, ㅛ’를 만나서 ‘ㅜ, ㅠ’로 바뀌는 현상으로, 이때 어느 하나의 모음은 반모음으로 바뀐다.

21 서술형

‘기뻐서’는 ‘기쁘다’의 어간 ‘기쁘-’에 어미 ‘-어서’가 결합되면서 모음 ‘ㅡ’가 탈락한 것이다.

- 22 ‘돼’는 ‘되어’의 준말로 모음 축약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모음 탈락 현상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쓰-+-어 → 써(‘ㄷ’ 탈락)

③ 꼬-+-어 → 꺼(‘ㄷ’ 탈락)

④ 서-+-어 → 서(‘ㅣ’ 탈락)

⑤ 가-+-아 → 가(‘ㅏ’ 탈락)

- 23 ‘개었다’는 [개엄따]가 바른 발음이다. 일반적으로 반모음 첨가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표준 발음법 제22항에는 ‘되어, 피어’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함을 허용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특정 어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휘에서든지 어미 ‘-어’, ‘-오’는 ‘ㅣ’ 모음 뒤에서 [여], [요]로 소리 나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⑤ ‘되어, 아니오, 피었다, 무엇이오’의 경우는 [어]와 [오]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와 [요]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 24 <보기>는 두음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단어의 첫머리에 올 수 없는 자음에 대한 법칙이다.

- 25 ‘녀석’과 같은 고유어는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여석’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⑤는 두음 법칙이 적용된 것이다. ①은 ‘로(老)’가 ‘노’로, ③은 ‘년(年)’이 ‘연’으로 바뀌었다. ④는 ‘락(樂)’이 ‘낙’으로, ⑤는 ‘량(良)’이 ‘양’으로 바뀐 결과이다.

- 26 ‘늪지도’는 [늑찌도]가 올바른 발음이다. 겹받침 ‘ㄹ’은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된다. 또한 ‘ㄱ’으로 발음되는 받침 뒤의 ‘ㅈ’은 된소리로 발음된다.

[오답풀이] ① 겹받침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첫째 받침은 유지되고 둘째 받침은 연음된다. 이때 연음되는 ‘ㅅ’은 ‘ㄱ’ 소리 뒤에 오므로 된소리로 발음된다.

② ‘ㄹ’ 앞에 오는 ‘ㄴ’은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발음된다.

③ 끝소리 ‘ㅌ’인 형태소가 ‘ㄷ’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ㅌ’은 구개음 ‘ㄷ’으로 발음된다.

⑤ 출발침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출발침은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제 음가대로 발음된다.

27 ㉠: ‘난로[날로], 만리포[말리포]’는 ‘ㄹ’ 앞의 ‘ㄴ’이 유음 ‘ㄹ’로 바뀐 유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 ‘역마[영마]’는 ‘ㄱ’이 ‘ㄹ’ 앞에서 ‘ㅇ’으로 바뀐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고, ‘역마+살’은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라는 표준 발음법 제28항 규정에 따라 뒤 단어의 첫소리 ‘ㅅ’이 된소리로 바뀌어 [영마쌀]로 발음된다.

㉢: ‘말귀’는 ‘말’과 ‘귀’가 더해진 ‘말귀’를 잘못 쓴 것이다.

28 ‘잠가[잠가]’는 ‘잠그-+-아’에서 ‘ㄴ’ 모음이 탈락한 모음 탈락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오답풀이] ① 강릉[강릉]: ‘ㄹ’이 비음 ‘ㅇ’ 뒤에서 비음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② 솔이[소치]: ‘ㅌ’이 형식 형태소 ‘ㄷ’과 만나 ‘ㄷ’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④ 날지[너치]: ‘ㅎ’과 ‘ㄷ’이 결합하여 ‘ㄷ’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다.

⑤ 형견[형견]: 받침 ‘ㅍ’이 ‘ㅂ’으로 소리 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

29 ‘날날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구개음화가 적용되어 [난나치]로 발음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첫음절 [난]에 비음화가 적용되어 받침 ‘ㄷ’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으로 바뀌어 [난]이 된다. 따라서 ‘날날이’의 올바른 발음은 [난나치]이다. 따라서 ‘날날이’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구개음화가 모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② 꽃밭이[꼇빠치]: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구개음화

③ 여달이[여다지]: ‘ㄹ’ 탈락, 구개음화

④ 젓히다[저치다]: 거센소리되기

⑤ 피불이[피부치]: 구개음화

30 ③에서 ‘갸다’는 ‘가-+-았-+-다’에서 모음 ‘ㅏ’가 탈락된 형태이다.

[오답풀이] ① ‘마셨다’는 ‘마시-+-았-+-다’에서 모음이 축약된 형태이다.

② ‘보려’는 ‘보-+-아-+-려’에서 모음이 축약된 형태이다.

④ ‘아드님’은 ‘아들+님’에서, ‘나날이’는 ‘날+날+이’에서 ‘ㄹ’이 탈락된 형태이다.

⑤ ‘떠서’는 ‘뜨-+-어서’에서 모음 ‘ㅡ’가 탈락된 형태이다.

한자쌍의호연

음운의 탈락에는 모음 탈락 외에도 자음 탈락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ㄹ’ 탈락과 ‘ㅎ’ 탈락이 있지요. ‘ㄹ’ 탈락의 예로는 ‘부삼(불+삼)’, ‘우짚다(울+짚다)’가 있고, ‘ㅎ’ 탈락의 예로는 ‘날은[나은], ‘많아[마나], ‘싫어도[시려도]’가 있어요.

31 ‘부엌문 → [부억문] → [부영문], 밥물[밤물], 빗나무 → [빈나무] → [빈나무], 깎는 → [깍는] → [깡는]’에서 비음화가 나타난다. 즉,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의 개수는 총 4개이다.

[오답풀이] •맞추고[만추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

•계셨다(계시-+-았-+-다) → [계션다] → [계션따]: 모음 축약,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닫고[달꼬]: 된소리되기

•보였다 → [보연다] → [보연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같이[가치]: 구개음화

•돕기[뜹기]: 된소리되기

•칼날[칼날]: 유음화

•갈았다 → [가랴다] → [가랴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32 ⑤ ‘국화[구과](거센소리되기), 착잡하다[착짜파다](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셋노랑다[센노라타](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거센소리되기)’에는 모두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나타난다.

[오답풀이] ① 울지[울치]: 거센소리되기 / 담가(담그-+-아): ‘ㄴ’ 탈락 / 옷장 → [온장] → [온쟁]: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② 죽녹원[죽노권]: 비음화 / 신라[실라]: 유음화 / 영릉[영능]: 비음화

③ 막일 → [망일] → [망닐]: 비음화, ‘ㄴ’ 첨가 / 꽃꽂이[꼇꼬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 / 옷맵시 → [옴맵시] → [옴맵씨]: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비음화

④ 가을걷이[가을거지]: 구개음화 / 팔이[파치]: 구개음화 / 잔다: 음운 변동 없음.

33 ① ‘헛던’은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헛던]으로 발음되고, ‘ㄷ’으로 발음되는 받침 뒤에 ‘ㄷ’이 오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헛뎌]이 된다.

[오답풀이] ② [담녁]으로 발음되며, 비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③ [홀련]으로 발음되며, 유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④ [여덜]이 올바른 발음이다.

⑤ [노치]로 발음되며, 음운의 축약(거센소리되기)이 일어난 것이다.

34 ④의 ‘한여름’은 [한녀름]로 발음되는데, 이는 ‘ㄴ’ 음운이 첨가된 것이다.

[오답풀이] ① 향로[향노]: 비음화(교체)

② 밑줄[민줄]: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 된소리되기(교체)

③ 발달[발달]: 된소리되기(교체)

⑤ 감히다 → [가티다] → [가치다]: 거센소리되기(축약), 구개음화(교체)

02 우리말 바로 쓰기

확인 문제

263쪽 01 (1) × (2) ○ 02 ③ 03 어법

264쪽 04 ② 05 ① 06 (1) ○ (2) ○

- 01** (1)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해 놓은 것으로, 말로 할 때에는 맞춤법이 필요하지 않지만 글로 적을 때에는 맞춤법이 필요하다.
(2) 발음은 같아도 표기는 다를 수 있다([달기] → ‘닭이’, ‘달기’). 이를 통해 발음과 표기가 별개임을 알 수 있다.
- 02** ‘읽어’는 소리대로 적으면 ‘일거’가 되지만,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원칙에 따라 형태소의 원형(읽-)을 밝혀 적는 것이다.
- 03** 단어는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될 수 있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원칙을 제시해 각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어 단어의 뜻을 파악하기 쉽게 한다.
- 04** ‘둘▽모두가▽착한▽학생이다.’와 같이 세 군데를 띄어 써야 한다.
- 05** 조사는 단어에 해당하지만 특수하게 그 앞의 말에 붙여 쓰도록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용언을 활용할 때 붙는 어미는 단어의 일부로 간주한다. 즉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쓰지 않는다.
- 06** (1) 단어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최소의 언어 단위로, 그것을 기능·형태·의미에 따라 나눈 갈래를 품사라 한다.
(2) 띄어쓰기는 글을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띄어 쓰기를 안 한 경우보다 독해가 쉽다.

학습 활동

확인 문제

생각 모으기 01 ④ 02 (1) 법석 (2) 얼음 03 합성
269쪽 어, 고유어, 모음 04 (1) 해교는▽노력한▽만큼▽대가를▽얻었다. (2) 이곳은▽강당▽겸▽체육관으로▽이용하고▽있다.

생각 펼치기 05 (1) 아니에요 (2) 둘이데 (3) 안된다 (4) 출석률 (5) 가장으로서 06 ⑤

- 01** ④는 ‘오독이’를 소리대로 적은 것으로 어법에는 어긋난 표기이다. 나머지 단어의 표기는 실제 발음과는 다르지만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길이[기리], ② 읽다[익따], ③ 맞히다[마치다], ⑤ 넘어지다[너머지다]로 발음된다.

- 02** (1)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으나, ‘ㄱ, 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따라서 ‘법석’이 맞는 표기이다.
(2) ‘얼다’의 어간 ‘얼-’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음’이 붙어서 된 명사이므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얼음’으로 표기한다.
- 03** 사잇소리 현상은 합성 명사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파생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고유어+고유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로 된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 04** (1) ‘만큼’은 조사가 아니라 의존 명사로 쓰였으므로, 앞의 말과 띄어 써야 한다.
(2)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겸’)은 띄어 쓴다.
- 05** (1) 어미 ‘-에요’는 ‘이다’나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어 쓰이므로, ‘아니에요’로 쓰는 것이 옳바르다.
(2) 화자가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이야기한 문장이므로 ‘둘이데’로 쓰는 것이 옳바르다.
(3) 제시된 문장에서는 농사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안되다’와 같이 붙여 써야 한다.
(4) 한 단어 안에서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ㄹ’은 ‘을’로 적어야 한다. 그러나 ‘출석’은 ‘ㄹ’이 ‘ㄱ’ 받침 뒤에 오므로, ‘출석률’로 쓰는 것이 옳바르다.
(5) ‘-으로써’는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낼 때, ‘-으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낼 때 사용하므로 ‘가장으로서’로 써야 한다.
- 06**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따라서 ‘돌아가시오’는 ‘돌아가시오’로 적어야 한다.

소단원 평가 문제

275~276쪽

01 ⑤ 02 ⑤ 03 ③ 04 ③ 05 ④ 06 ⑤ 07 ③ 08 ④
09 ⑤ 10 ④ 11 언어 사용자들이 서로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이다.

- 01** 말로 할 때는 맞춤법이 필요하지 않지만 글로 적을 때에는 맞춤법이 필요하다. 즉 맞춤법은 글을 위한 것으로, 올바른 표기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
- 02** 한글 맞춤법에서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의미를 파악하기 쉽도록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말한다.

- 03 ③의 ‘기뻐서, 기뻐다’는 ‘기쁘-’라는 원래의 형태가 아닌 소리대로 적은 표기이므로 ㉠의 원칙을 따른 것이다.

【오답풀이】 ① 어간과 어미를 분리하여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었으므로, ㉠의 원칙을 따른 것이다.

② 발음과 상관없이 형태를 고정시켰으므로 ㉠의 원칙을 따른 것이다.

④ ‘미덥다’의 어간은 ‘믿-’이고, ‘우습다’의 어간은 ‘웃-’인데, 이러한 어간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미덥다, 우습다’와 같이 적었으므로 ㉠의 원칙을 따른 것이다.

⑤ ㉠은 발음과 상관없이 형태를 고정시키는 것인데, 한자 ‘女’를 ‘녀’와 ‘여’로 다르게 쓰고 있으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 04 <보기>의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고려할 때, ‘깍두기[깍뚜기]’는 ‘ㄱ’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난 경우이나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깍두기’라 적는다.

【오답풀이】 ①, ④, ⑤ 받침 ‘ㄴ, ㄹ, ㅁ, ㅇ’은 예사소리를 경음화(된소리되기)시키는 필연적인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살짝, 산뜻하다, 엉뚱하다’는 ‘살작, 산뜻하다, 엉뚱하다’라고 적을 이유가 없다.
② ‘소쩍새’의 [쩍]은 두 모음 사이에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이므로 된소리로 적는다.

한자병의 조건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란, 발음에 있어서 된소리되기
의 규칙성이 적용되는 조건(환경)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요,
바꾸어 말하면 본디 예사소리인 것이 환경에 따른 변이음(變異音)
으로서의 된소리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님을 말해요.

- 05 ‘높이나 경계로 가로막은 사물의 저쪽’을 의미하며 공간이나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인 ‘너머’는 ‘-이’나 ‘-음/-로’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 아니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오답풀이】 ① 어간에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이다.

② 어간에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다.

③ 어간에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이다.

⑤ 어간에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다.

- 06 ‘반듯이’는 ‘작은 물체, 또는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아니하고 바르게’의 의미이고,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의 의미이다. ‘반듯이’는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이므로 그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며, ‘반드시’는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이므로 소리대로 적어야 한다. ⑤에서는 밑줄 친 단어가 ‘틀림없이 꼭’의 의미를 지니므로 ‘반드시’로 써야 한다.

【오답풀이】 ①, ②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이다.

③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이다.

④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이다.

- 07 ‘제삿날’은 ‘제사(祭祀)+날’의 ‘한자어+고유어’로 된 합성어로 [제산날]이라 소리 난다.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

리(모음)로 끝날 경우 뒷말의 첫소리 ‘ㄴ’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한 것이므로 ③의 이유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뱃길’은 ‘고유어+고유어(배+길)’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모음)로 끝날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배길/뱃길])이다.

② ‘위층’은 ‘고유어+한자어(위+層)’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뒷말의 첫소리가 거센소리인 ‘ㅈ’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다.

④ ‘보리쌀’은 ‘고유어+고유어(보리+쌀)’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인 ‘ㅅ’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다.

⑤ ‘훗날’은 ‘한자어+고유어(後+날)’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모음)로 끝날 경우 뒷말의 첫소리 ‘ㄴ’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훗날])이다.

- 08 ㉠의 ‘같이’는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지닌 조사이므로, 체언 뒤에 붙여 쓴다. 그러므로 ㉠은 ‘나같이’로 써야 한다.

【오답풀이】 ① ‘누나와 같이’의 ‘같이’는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라는 뜻의 부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② ‘너대로’의 ‘대로’는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조사로 쓰였으므로 체언 뒤에 붙여 쓴다.

③ ‘아는 대로’의 ‘대로’는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라는 뜻을 지닌 의존 명사로 쓰였으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⑤ ‘그와 같이’의 ‘같이’는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이라는 뜻의 부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09 ‘군’은 ‘(성이나 이름 뒤에 쓰여) 친구나 아랫사람을 친근하게 부르거나 이르는 말’로 의존 명사이다.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으므로 ⑤의 ‘김군’은 ‘김 군’으로 띄어 써야 한다.

【오답풀이】 ① ‘것’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② ‘대’는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이므로 띄어 쓴다.

③ ‘간다’는 ‘꺼져(꺼지-+~어)’의 ‘-어’ 뒤에 붙은 보조 용언이므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④ ‘컬레’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10 ‘베개’는 ‘베다’라는 동사의 어간 ‘베-’에 접미사 ‘-개’(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그러한 행위를 하는 도구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가 붙어서 된 말이다.

【오답풀이】 ① ‘설거지’, ② ‘김치찌개’, ③ ‘떡볶이’, ⑤ ‘불엿다’가 올바른 표기이다.

11 서술형

<보기>에서는 한글 맞춤법을 지키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한글 맞춤법에 맞게 올바른 표기 생활을 해야 한다.

03 책임감 있게 글을 쓰려면

확인 문제

280쪽 01 쓰기 윤리 02 ④

281쪽 03 개인, 사회 04 ③ 05 글쓴이의 경험이나 생각이 담긴 글을 읽는 사람은 글의 내용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이다.

282쪽 06 ④

283쪽 07 (1) ○ (2) × (3) ○ 08 거짓이나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84쪽 09 ②

01 (가)에 따르면 쓰기 윤리는 ‘글쓴이가 글을 쓰는 모든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인 규범’이라고 하였다.

02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은 매체의 특성상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 나갈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기가 매우 어렵다.

[오답풀이] ①, ③ 인터넷 매체에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글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이에 반응하면서 의견을 덧붙여 사회 공동의 의견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 매체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문화적 관심을 확장해 나가는 데에 도움을 주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블로그, 누리소통망(SNS)과 같은 인터넷 매체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소통할 기회를 제공한다.

⑤ 인터넷 매체의 익명성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기도 하는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무분별하게 전달하여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부적절하고 과격한 표현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 등이 그것이다.

03 쓰기 윤리는 글을 쓰는 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이 개인적인 성격을 지니는지, 아니면 사회적인 성격을 지니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를 ‘개인적 쓰기 윤리’라고 하고, 후자를 ‘사회적 쓰기 윤리’라고 한다.

04 설명문은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등을 바탕으로 쓰는 글이 아니라 객관적·사실적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므로 개인적 쓰기 윤리가 특히 중요한 글쓰기라 보기 어렵다.

05 글쓴이의 실제 경험이 밑바탕이 되는 글 또는 글쓴이의 생각이나 의견, 신념 등을 담는 글은, 읽는 사람들이 글의 내용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개인적인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06 글을 쓸 때에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의견 등을 거짓으로 꾸며 쓰지 않고 진실하게 쓰는 것은 개인적 쓰기 윤리에 해당한다. ④는 독후감을 쓰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표현하였으므로 개인적 쓰기 윤리를 위반한 사례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인 사진 자료를 원저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사회적 쓰기 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②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한 것은 표절로, 사회적 쓰기 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③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짜깁기해서 자기가 직접 쓴 것처럼 꾸며 쓴 것으로, 사회적 쓰기 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⑤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자기가 직접 쓴 것처럼 꾸며 쓴 것으로, 사회적 쓰기 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07 (1) 거짓이나 허위 사실을 글로 쓰면 그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글의 내용은 사실 그대로를 담고 있어야 하며 오류 없이 정확해야 한다.

(2) 인터넷 매체에 올리는 글은 다양한 계층, 지역, 나이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으므로 내용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글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표현이 과격하거나 저급하여 읽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글을 쓴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폭력적인 언어 표현은 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므로, 글을 읽는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08 (자)에 따르면 거짓이나 허위 사실을 글로 쓸 경우 그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만을 내용에 담아야 한다.

09 다른 사람이 쓴 글의 고유한 내용을 원저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행위를 ‘표절’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표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오답풀이] ①, ④, ⑤ 글의 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쓰거나 과장, 축소, 왜곡하지 않는 것은 책임감 있는 글쓰기 태도에는 해당하나, 표절을 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아니다.

③ 글을 읽는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책임감 있는 글쓰기 태도에는 해당하나 표절을 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아니다.

학습 활동

확인 문제

289쪽 **생각 모으기** 01 (1) ㉠ (2) ㉡ (3) ㉢ 02 ②

291쪽 **생각 펼치기** 03 ④ 04 ③

01 (1)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낌, 경험, 의견 등에 대한 것이므로, 개인적 쓰기 윤리에 해당한다.

(2) 글을 쓸 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베끼지 않는 것은 사회적인 성격의 윤리 규범으로, 사회적 쓰기 윤리에 해당한다.

(3) 표절은 사회적 쓰기 윤리를 어긴 예에 해당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어서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

02 인용 허락을 받은 저작물은 원저자의 의도가 변질되지 않도록, 내용을 있는 그대로 수록하는 것이 좋다.

03 준말과 그림말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고, 의사소통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04 인터넷에 있는 자료도 필요한 경우에는 인용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을 인용할 때에는 원저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고, 출처 표기를 하는 등 표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이용해야 한다.

소단원 평가 문제

294~295쪽

01 ③ **02** ④ **03** ④ **04** ⑤ **05** ④ **06** ⑤ **07** 우리는 글을 쓰는 환경이 변화한 만큼 자기가 쓴 글이 독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글을 써야 한다.

01 (라)에서 표절이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어서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라)에서는 표절의 개념을 다른 사람이 쓴 글의 고유한 내용을 원저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② (가)에서는 쓰기 윤리의 개념을 글쓰기가 글을 쓰는 모든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인 규범이라고 하였다.

④ (나)는 개인적 쓰기 윤리를 위반한 사례에 해당한다.

⑤ (가)에서는 최근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글을 쓰는 환경이 변화하면서 쓰기 윤리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하였다.

02 (나)는 개인의 실제 경험이 밑바탕이 되는 글을 쓸 때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표현한, 개인적 쓰기 윤리를 위반한 사례이다. (나)의 학생에게는 글을 쓸 때 거짓이나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충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②, ③, ⑤ 책임감 있는 글쓰기의 자세에 대한 내용이지는 하나, 개인적 쓰기 윤리를 위반한 학생에게 할 충고로는 적절하지 않다.

03 (다)는 사회적 쓰기 윤리를 위반한 사례이다. 자료를 완전히 베끼지 않았다 해도 부분적으로 잘라 짜깁기하는 것 역시 표절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쓰기 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04 (가)에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글을 쓰기 위한 방법에 대해 묻고, (나)~(마)에서 그에 대해 답하고 있다(ㄷ). 또한 (가)에서 개인 간의 대화나 편지, 전화와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의 파급력의 차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ㄹ).

05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어서 글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크다. 따라서 인터넷 매체에 글을 써서 올릴 때 특히 책임감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06 쓰기 윤리를 준수하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글을 쓴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글 역시 써도 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과격하거나 저급한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 읽는 사람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07 글쓰기가 이 글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에 제시되어 있다. 글쓰기는 독자에게 자기가 쓴 글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글을 쓸 것을 당부하고 있다.

어휘 어법 활동

확인 문제

299쪽 **01** ③ **02** (1) 수평 (2) 수탕나귀 **03** (1) 얼마▽만이야 (2) 송아지만▽하다 **04** 규칙, 원칙

01 모음이나 ‘ㄴ’ 받침 다음에는 ‘을’이 오고, ‘ㄴ’을 제외한 나머지 자음 받침 뒤에는 ‘를’이 오므로 ③은 ‘외형를’로 써야 맞다.

02 (1)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는 표준어 사정 원칙에 따라 ‘수평’으로 표기한다.
(2)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하여 ‘수탕나귀’로 표기한다.

03 (1) 여기서의 ‘만’은 동안이 얼마간 계속되었음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쓰였다. 따라서 ‘얼마▽만이야?’와 같이 띄어 쓴다.

(2) 여기서의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였다. 따라서 ‘송아지만 V하다.’와 같이 띄어 쓴다.

- 04** 한글 맞춤법은 한글로써 우리말을 표기할 때 다 같이 지키기로 한 법칙을 말하므로 ‘규칙’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문장의 각 단어를 띄어 쓰는 것은 일괄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므로 ‘원칙’이 들어가야 한다.

대단원 모의고사

302~305쪽

01 ③ 02 ⑤ 03 ① 04 ⑤ 05 ④ 06 ⑤ 07 ③ 08 ②
09 ⑤ 10 ④ 11 ④ 12 떠난V지 사흘V만에 돌아왔다. ‘지’와 ‘만’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 단어와 띄어 쓴다. 13 ④ 14 ⑤
15 ④ 16 ④ 17 ③ 18 표절은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일어서서 범죄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19 ⑤
20 ⑤

- 01** <보기>의 제9항에 따라 ‘꽃’의 받침 ‘ㅈ’은 대표음 ‘ㄷ’으로 발음된다. 그러나 ‘꽃이’는 ‘어말 또는 자음 앞’이라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꼬치]로 발음한다.

|오답풀이| ① ‘앞’은 <보기>의 제9항에 따라 [입]으로 발음되므로 ‘밥’과 ‘앞’의 끝소리 발음은 ‘ㅂ’으로 같다.

- ② <보기>의 제9항에 따라 ‘낮[넉]’과 ‘낮[넉]’의 발음은 같다.
④ <보기>의 제9항에 따라 ‘동넉[동넉]’과 ‘바깥[바깥]’으로 발음된다.
⑤ ‘강산, 달, 밤’의 받침은 <보기>의 제8항에서 제시한 7개 자음에 해당하므로, 발음할 때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지 않는다.

- 02** ‘만형[마형]’에서는 ‘ㄷ’과 ‘ㅎ’이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다. ㉞ ‘꽃고[꼇고]’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 현상은 나타나지만, 거센소리되기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국물[국물]’은 ‘ㄱ’이 ‘ㅇ’으로 교체된 것이고, ㉞ ‘첫눈 → [첸눈] → [첸눈]’은 ‘ㅌ’이 ‘ㄷ’으로, 다시 ‘ㄷ’이 ‘ㄴ’으로 교체된 것이다.

② ‘옆집[옆집]’에서 ‘ㅍ’은 음절 끝에 발음될 수 없으므로 ‘ㅂ’으로 바뀌어 발음된 것이다. ㉞ ‘첫눈 → [첸눈] → [첸눈]’에서 ‘ㅌ’은 음절 끝에 발음될 수 없으므로 ‘ㄷ’으로 바뀌어 발음된 것이며, ㉞ ‘불는 → [분는] → [분는]’에서는 ‘ㅌ’은 음절 끝에 올 수 없으므로 ‘ㄷ’으로 바뀌어 발음된 것이다.

③ ‘닭장 → [닥장] → [닥장]’에서는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발음되지 못하고 받침 ‘ㄹ’이 ‘ㄱ’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㉞ ‘읽네 → [익네] → [익네]’에서도 이러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④ ‘잡는[잠는]’에서는 ‘ㅂ’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ㅁ’으로 바뀐 비음화가 일어난다. ㉞ ‘읽네 → [익네] → [익네]’에서는 ‘ㄱ’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ㅇ’으로 바뀐 비음화가 일어났고, ㉞ ‘불는 → [분는] → [분는]’에서는 ‘ㄷ’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ㄴ’으로 바뀐 비음화가 일어났다.

- 03** ‘막일 → [막닐]’은 ‘ㄴ’ 첨가(첨가), ‘[막닐] → [망닐]’은 ‘ㄱ’이 ‘ㄴ’ 앞에서 비음 ‘ㅇ’으로 바뀐 비음화(교체)가 일어났다.
|오답풀이| ②, ③, ④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뒤에 교체(비음화)가 일어났다.

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뒤에 축약(거센소리되기)이 일어났다.

- 04** <보기>는 비음화에 관한 발음 규정이다. ‘줄넘기’는 [줄럼끼]로 발음되는데, 이것은 ‘ㄴ’이 유음 ‘ㄹ’의 뒤에서 유음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가 나타난 뒤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결과이다.

|오답풀이| ① ‘흙만 → [흑만] → [흥만]’으로 ‘ㄹ’ → ‘ㄱ’이 ‘ㄷ’ 앞에서 ‘ㅇ’으로 발음된다.

② ‘꽃망울 → [꼇망울] → [꼇망울]’로 ‘ㅈ’ → ‘ㄷ’이 ‘ㄷ’ 앞에서 ‘ㄴ’으로 발음된다.

③ ‘앞마당 → [암마당] → [암마당]’으로 ‘ㅍ’ → ‘ㅂ’이 ‘ㄷ’ 앞에서 ‘ㄷ’으로 발음된다.

④ ‘옷맵시 → [옇맵시] → [옇맵시]’으로 ‘ㅌ’ → ‘ㄷ’이 ‘ㄷ’ 앞에서 ‘ㄴ’으로 발음된다.

- 05** <보기>는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사례이다. ‘갸깝히’는 [갸깝히]로 발음되며,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발이[바치]

② 날날이 → [날날티] → [날날티]

③ 굳히다 → [구티다] → [구티다]

⑤ 곧이듣다 → [고지듣다] → [고지듣다]

- 06** 거센소리되기는 ‘ㄱ, ㄷ, ㅂ, ㅈ’과 ‘ㅎ’이 만날 때 거센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천하다’에서 ‘ㅎ’과 만나는 것은 ‘ㄴ’으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음운 변동 없이 [천하다]로 발음한다.

|오답풀이| ① ‘각하[가카]’에서는 ‘ㄱ’과 ‘ㅎ’이 합쳐져서 ‘ㅋ’으로 소리 난다.

② ‘입학식[이팍씩]’에서는 ‘ㅂ’과 ‘ㅎ’이 합쳐져서 ‘ㅍ’으로 소리 난다.

③ ‘먹히다[머키다]’에서는 ‘ㄱ’과 ‘ㅎ’이 합쳐져서 ‘ㅋ’으로 소리 난다.

④ ‘좁히다[조피다]’에서는 ‘ㅂ’과 ‘ㅎ’이 합쳐져서 ‘ㅍ’으로 소리 난다.

- 07** ③의 ‘갈등(葛藤)[갈똥]’, ‘발전소(發電所)[발쩐소]’는 한자어로서 ‘ㄷ’ 받침 뒤에 각각 ‘ㄷ’, ‘ㅌ’이 와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㉞의 예에 해당한다. 그러나 ‘살색’은 고유어인 ‘살’과 한자어인 ‘색(色)’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한자어만으로 이루어진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㉞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살색’이 [살쌔]와 같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은 표준 발음법 제28항에 따른 것이다.

|오답풀이| ① 국밥[국뽕], 있든[있똥], 뎡개[뎡개]

② 신고[신꼬] 앓고[안꼬], 더듬지[더듬지]

④ 갈 곳[갈꼇], 할 도리[할뜨리], 할 적에[할쩌개]

⑤ 할결[할꼇], 할수록[할쑤록], 할지라도[할찌라도]

배경지식+ 표준 발음법 제28항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문-고리[문꼬리] 눈-동자[눈똥자] 신-바람[신빠람]
산-새[산새] 손-재주[손째주] 길-가[길까]

- 08** ‘물상식[沒常識][몰쌍식]’은 한자어로, ‘ㄹ’ 받침 뒤에 ‘ㅅ’이 와 된소리로 발음된다. 나머지는 불필요하게 된소리로 발음하는 단어들이다.

|오답풀이| ⑤ ‘고가’를 [고까]로 발음하는 것은 고가(高價)뿐이다. ‘고가(高架) 도로’에서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 09** ‘루각’은 ‘ㄱ, ㅋ, ㆁ, ㄷ, ㄴ, ㄹ, ㄷ, ㄹ’ 앞의 ‘ㄹ’이 ‘ㄴ’으로 바뀌는 두음 법칙에 따라 ‘누각’으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고유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③ 외래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두음 법칙은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 적용되는 것으로,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 10** <보기>는 모음 탈락에 대한 설명이다. ④ ‘배우-+-어’는 ‘ㄱ’과 ‘ㄴ’이 이중 모음 ‘ㄲ’로 줄어 ‘배워’가 되며, 이것은 음운 탈락이 아니라 축약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쓰-+-어서 → 써서: ‘ㄴ’ 탈락

② 건너-+-어 → 건너: ‘ㄴ’ 탈락

③ 나사-+-어 → 나사: ‘ㄴ’ 탈락

⑤ 슬프-+-어서 → 슬퍼서: ‘ㄴ’ 탈락

- 11** <보기>의 단어 중 소리대로 적은 것은 ‘하늘[하늘]’, ‘달리다[달리다]’, ‘드러나다[드러나다]’이다.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은 ‘절다[절따]’, ‘높이[노피]’, ‘정직하다[정지카다]’로, 표기가 실제 발음과는 다르지만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12 서술형

‘지’와 ‘만’은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문장은 ‘떠난 ㅅ지 사흘 ㅅ만에 돌아왔다.’로 고쳐야 한다.

- 13** ‘영화나 연극, 드라마 등에서, 배우가 극에 등장하는 인물을 맡는 일’을 뜻하는 단어는 ‘역할’로, ‘역활’이라고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오십시오 → 오십시오

② 꼼꼼이 → 꼼꼼히

③ 낳았어요 → 낳았어

⑤ 안성마춤 → 안성맞춤

- 14** ‘반듯하다[正, 直]’의 ‘반듯-’에 ‘-이’가 붙은 ‘반듯이(반듯하게)’와 ‘반드시[必]’는 뜻이 다른 단어이다. ㉔의 밑줄 친

단어는 의미상 ‘틀림없이 꼭’이라는 의미이므로 ‘반드시’라고 적어야 한다. ‘반듯이’는 ‘작은 물체, 또는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비틀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아니하고 바르게’나 ‘생김새가 아담하고 말끔하게’를 뜻하는 단어이다.

|오답풀이| ① ‘잔뜩’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잔뜩’으로 적는다.

② ‘몹시’는 [몹씨]로 발음되지만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몹시’로 적는다.

③ ‘얼음’은 ‘얼다’의 어간 ‘얼-’에 명사형 어미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으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얼음’으로 적는다.

④ ‘꾸준히’는 ‘꾸준하다’의 어근 ‘꾸준-’에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으로, 그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꾸준히’로 적는다.

- 15** ‘허리춤[허리춤]’은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ㄴ’ 또는 ‘ㄴㄴ’ 소리가 덧나지 않고, ‘ㅈ’의 제 음가대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보기 1>의 사이시옷 표기와 관련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허릿춤’이 아닌 ‘허리춤’으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잇몸[인몸]’은 뒷말의 첫소리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② ‘나뭇잎[나뭇잎]’은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③ ‘뺨가죽[배가죽/뺨가죽]’은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⑤ ‘셋집[세집/셋집]’은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 16** <보기>에서 다른 사람이 쓴 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것은 ‘모험가’와 ‘소나무’의 글이다. 그들의 글은 적절한 비판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쓴 글에 대해 근거 없이 비판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맛집도사’가 쓴 허위 사실로 인해 ‘소나무’의 가게에 손님이 줄었다.

② ‘맛집도사’는 원저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③ ‘즐거우리는’ ‘맛집도사’가 쓴 글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비방하였다.

⑤ ‘파란하늘’은 ‘맛집도사’가 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동조했으며 그 내용을 무분별하게 퍼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런 행동은 ‘소나무’의 가게에 지속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 17** 글을 쓰는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 신념 등을 담아야 하는 글을 쓸 때는 사회적 쓰기 윤리보다는 개인적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18 서술형

표절은 다른 사람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종의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 19 ⑤는 전문가나 독자의 반응을 고려하는 글쓰기를 했는지 점검하는 기준이다. 독자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글을 쓰는 것이 쓰기 윤리에 어긋나는 태도라 할 수 없으므로, ⑤는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썼는지 점검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오류가 있는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글로 쓰면 그 글을 읽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①에 제시된 내용은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썼는지 점검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절하다.

② 언어 표현이 과격하거나 저급하여 읽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글을 쓴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②에 제시된 내용은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썼는지 점검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절하다.

③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하거나 이용할 때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훔치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그러므로 ③에 제시된 내용은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썼는지 점검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절하다.

④ 인터넷 매체에 올리는 글은 다양한 계층, 지역, 나이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으므로 내용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글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④에 제시된 내용은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썼는지 점검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절하다.

- 20 예상과 다르게 나온 실험 결과를 자신이 예상한 것과 맞게 고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로 개인적 쓰기 윤리를 어긴 것이다.

[오답풀이] ① 내용을 과장한 것은 허위로 글을 쓰는 것이므로 개인적 쓰기 윤리를 어긴 것이다.

② 자기 생각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거짓으로 글을 쓰는 것이므로 개인적 쓰기 윤리를 어긴 것이다.

③ 다른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사회적 쓰기 윤리를 어긴 것이다.

④ 인터넷의 글을 자신의 글처럼 제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사회적 쓰기 윤리를 어긴 것이다.

대단원 서술형 평가

306~308쪽

01 ㉠: 뱀물 ㉡: 암마당 / 이처럼 발음되는 이유는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 앞에서 각각 비음인 ‘ㅇ, ㄴ, ㄹ’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 현상 때문이다.

02 • ㉠ - 발음: 숨이불[숨니불] / 음운의 변화: ‘ㄴ’이 첨가되어 소리 남. / 음운 변동 유형: 첨가
• ㉡ - 발음: 좋다[조타] / 음운의 변화: ‘ㅎ’과 ‘ㄷ’이 만나 ‘ㅌ’으로 소리 남. / 음운 변동 유형: 축약

03 구개음화는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났을 때 ‘ㄷ, ㅌ’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ㄷ, ㅌ’이 ‘ㅣ’를 만날 때, 혀가 닿는 위치가 ‘ㅣ’와 가까운 구개음 ‘ㄷ, ㅌ’으로 바뀌면 자연스럽게 쉽게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04 ㉠의 ‘안다’는 기본형이 ‘안다’로, ‘ㄴ’으로 발음되는 용언의 어간 받침 뒤에 첫소리가 ‘ㄷ’인 어미가 온 경우이므로 [안따]로 소리 난다. 그러나 ㉡의 ‘안다’는 기본형이 ‘알다’이다. 여기서 ‘안다’의 ‘ㄴ’은 용언의 어간 받침이 아니라,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기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 ㉡의 발음은 다른 것이다.

05 ㉠ ‘담가’는 ‘담그-+-아’의 결합에서 ‘-’가 탈락한 것이고, ㉡ ‘삐다’는 ‘사-+-았+-다’의 결합에서 ‘ㅌ’가 탈락한 것이다.

06 ‘녀석, 뉘’ 등의 고유어나 ‘뉴스, 롤러스케이트’ 등의 외래어에서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한자어 가운데 거리의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리(理)와 그 앞의 말과 연결되어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는 의존 명사 년(年)은 본음대로 적으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07 한글 맞춤법에 맞게 적는 원칙으로는 ㉠과 같이 형태소의 본 모양(또는 원형)을 밝혀서 어법에 맞게 적는 것과 ㉡과 같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의 두 가지가 있다.

08 사이시옷은 합성어 중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는다. ‘공주님’은 어근인 ‘공주’에 접미사 ‘-님’이 붙은 파생어이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고 ‘공주님’으로 표기해야 한다.

09 ㉠은 체언 뒤에 붙여 쓰는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쓰고, ㉡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10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하면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쉽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즉 언어 사용자들이 서로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다른 사람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한글 맞춤법에 맞게 올바른 표기 생활을 해야 한다.

11 자서전이나 회고록은 글을 쓰는 사람의 실제 경험이 밑바탕이 되는 글로, 이러한 글을 읽는 사람들은 글의 내용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이다.

12 다른 사람의 글을 무단으로 베끼고 짜깁기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사회적 쓰기 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13 우리 사회에 더욱 성숙한 의사소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14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휴대가 편리한 전자 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쓰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

- 01** ‘뱀물’은 뒤에 오는 비음 ‘ㄹ’의 영향을 받아 앞의 ‘ㅂ’이 비음 ‘ㄴ’으로 바뀌어 [뱀물]로 발음된다. 또한 ‘암마당’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암마당]으로 바뀌고, 다시 뒤에 오는 비음 ‘ㄹ’의 영향을 받아 앞의 ‘ㅂ’이 비음 ‘ㄴ’으로 바뀌어 [암마당]으로 발음된다. 이는 모두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 예에 해당한다.

채점 기준	배점
㉠과 ㉡의 올바른 발음을 쓰고, 음운 변동 현상의 종류 및 그 개념을 정확히 서술하였다.	6점
㉠과 ㉡의 올바른 발음을 썼으나 음운 변동 현상의 종류 또는 그 개념을 서술하지 못하였다.	3점

- 02** ㉠의 ‘숨이불’은 [숨니불]로 발음되는데, 이것은 ‘ㄴ’이 첨가된 것으로 첨가 현상에 해당한다. ㉡의 ‘좋다’는 [조타]로 발음되는데, 이것은 앞에 오는 ‘ㅎ’과 뒤에 오는 ‘ㄷ’이

만나 거센소리인 ‘ㅌ’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 현상으로 축약 현상에 해당한다.

채점 기준	배점
두 단어의 발음과 음운의 변화 양상, 음운 변동 유형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6점
두 단어의 발음은 정확히 제시하였으나 음운의 변화 양상, 음운 변동 유형 중 일부를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3점

- 03** 구개음화란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그 ‘ㄷ, ㅌ’이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이다. 모음 ‘ㅣ’와 구개음인 ‘ㅈ, ㅊ’은 소리를 낼 때 혀가 닿는 위치가 비슷하므로, 보다 자연스럽게 쉽게 발음하기 위해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구개음화의 개념과 혀가 닿는 위치를 고려하여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6점
구개음화의 개념은 정확하게 서술하였으나,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혀가 닿는 위치를 고려하여 서술하지 못하였다.	4점
구개음화의 개념과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만을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2점

- 04** 형태가 같은 단어임에도 발음이 다른 경우에는 제시된 단어가 문맥상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고, 각 단어의 기본형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의 ‘안다’는 기본형이 ‘안다’이고, ㉡의 ‘안다’는 기본형이 ‘알다’로 ‘-ㄴ’이라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합해진 단어이다. 따라서 ㉡의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 ㉡이 다르게 발음되는 이유를 단어의 기본형을 들어 <보기 2>의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조건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6점
㉠, ㉡이 다르게 발음되는 이유를 <보기 2>의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조건을 바탕으로 서술하였으나 단어의 기본형을 들어 서술하지 못하였다.	4점
㉠, ㉡이 다르게 발음되는 이유를 단어의 기본형과 연관 지어 서술하였으나 <보기 2>의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조건을 바탕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2점

- 05** ‘담가’의 기본형은 ‘담그다’이며, 어간은 ‘담그-’이다. 여기에 ‘-아’라는 어미가 붙었으므로 ‘담그-+-아 → 담가’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ㄷ’가 탈락하였다. ‘샀다’의 기본형은 ‘사다’로 어간은 ‘사-’이다. 여기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과 어말 어미 ‘-다’가 붙어 ‘사-+-았-+-다 → 샀다’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ㅌ’가 탈락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두 단어의 음운 탈락 과정과 어떤 음운이 탈락했는지를 모두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6점
두 단어 중 한 단어의 탈락 과정과 탈락한 음운만을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3점

- 06** <보기 2>의 예들은 단어의 첫머리에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채 ‘ㄴ’, ‘ㄹ’ 소리가 살아 있는 경우이다. ‘녀석, 낚’은 고유어이고, ‘뉴스, 롤러스케이트’는 외래어이다. ‘리(理)’와 ‘년(年)’은 한자어이나 ‘리(理)’는 거리의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고, ‘년(年)’은 그 앞의 말과 연결되어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는 의존 명사이다. 이를 통해 고유어와 외래어, 일부 한자어로 된 의존 명사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고유어와 외래어, 한자어로 된 의존 명사의 경우 각각에 대하여 정확히 밝혀 서술하였다.	6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고유어와 외래어, 한자어로 된 의존 명사의 경우 중 두 가지에 대하여만 정확히 서술하였다.	4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고유어와 외래어, 한자어로 된 의존 명사의 경우 중 한 가지에 대하여만 정확히 서술하였다.	2점

- 07**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 경우는 실제 발음과는 다르지만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고, ㉡은 실제 발음과 같이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조건>에 맞게 한글 맞춤법의 두 가지 원칙을 모두 서술하였다.	6점
한글 맞춤법의 두 가지 원칙을 모두 서술하였으나, <조건>에서 제시한 문장 형식대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4점
한글 맞춤법의 두 가지 원칙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하였다.	2점

- 08** 사잇소리 현상의 전제 조건은 ‘합성어’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는지의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는 단어가 합성어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접사 ‘-님’이 명사 ‘공주’와 결합한 ‘공주님’은 파생어이므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채점 기준	배점
두 가지 표기 중 올바른 표기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6점

두 가지 표기 중 올바른 표기를 제시하였으나, 그 이유로 '공주님'이 파생어임을 밝히어 서술하지 못하였다.	4점
두 가지 표기 중 올바른 표기를 제시하였으나, 그 이유를 서술하지 못하였다.	2점

- 09**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 원칙으로 하되,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의 '만큼'은 체언 뒤에 붙어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그러나 ㉡의 '만큼'은 체언 뒤에 오지 않았으므로 조사가 아니며,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과 ㉡이 각각 어떤 품사인지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띄어쓰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6점
㉠과 ㉡이 각각 어떤 품사인지 구분하였으나, 띄어쓰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4점
㉠과 ㉡ 중, 하나에 대해서만 품사의 종류를 제시하고 그렇게 띄어쓰기를 한 이유에 대해 서술하였다.	2점

배경지식+ 의존 명사

개념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문장 안에서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
특징	- 주로 관형어의 수식을 받음. - 앞말과 띄어 씀.
예	- 좋은 것 - 그저 기쁠 따름이다. - 소 한 마리 - 기와집 몇 채 -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 그는 옷을 입은 채로 물에 들어간다. - 그는 빗 때문에 고생을 했다.

- 10** ㉠은 하나의 형태소를 소리 나는 대로 다르게 적어서 그 뜻을 바로 헤아리기 어렵다. ㉡은 띄어쓰기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 ㉡을 통해 한글 맞춤법을 지켜 표기할 때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쉬워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서로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다른 사람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한글 맞춤법에 맞게 올바른 표기 생활을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채점 기준	배점
㉠과 ㉡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한글 맞춤법의 중요성을 모두 언급하고, 한글 맞춤법에 맞게 올바른 표기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서술하였다.	6점

㉠과 ㉡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한글 맞춤법의 중요성을 한 가지만 언급하고, 한글 맞춤법에 맞게 올바른 표기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서술하였다.	4점
㉠과 ㉡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한글 맞춤법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고, 한글 맞춤법에 맞게 올바른 표기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서술하였다.	2점

- 11** (나)에서는 수필, 자서전, 회고록, 일기 등과 같은 글을 쓸 때 특히 개인적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 이러한 글을 읽는 사람들은 글의 내용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쓸 때 개인적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그 근거를 들어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6점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쓸 때 개인적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서술하였으나, 그 근거는 서술하지 못하였다.	3점

- 12** <보기>의 영수는 다른 사람의 자료를 무단으로 베끼고 내용을 짜깁기하는 등 변형하면서, 원저자의 허락을 얻거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행동은 (다)에 제시되어 있는 사회적 쓰기 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영수가 위반한 쓰기 윤리의 종류와 그 근거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6점
영수가 위반한 쓰기 윤리의 종류를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였으나, 그 근거는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4점
영수가 위반한 쓰기 윤리의 종류는 정확하게 서술하였으나, 그 근거를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2점

- 13** 쓰기 윤리를 지켰을 때의 긍정적인 효과는 (라)의 마지막 문장에 제시되어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라)의 마지막 문장을 문맥에 맞게 바르게 서술하였다.	6점
(라)의 마지막 문장을 제시하였으나, 문맥에 맞게 고치지 않고 그대로 서술하였다.	3점

- 14** ㉠의 구체적인 내용은 (라)의 첫 문장에 제시되어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라)의 첫 문장을 문맥에 맞게 바르게 서술하였다.	6점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쓰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만을 서술하였다.	4점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했다는 점만을 서술하였다.	2점

5 마음과 마음을 잇는 언어의 끈

01 듣기·말하기 방법의 다양성

학습 활동

확인 문제

317쪽 ●활동 1. 2● 01 개인적 성향의 차이 때문이다. 02 (1) × (2) ○ (3) × 03 (1) 듣기, 말하기 방법 (2) 다양성 (3) 공식적 (4) 상호 보완적

323쪽 ●활동 3, 4● 04 ② 05 ③ 06 (1) × (2) ○ (3) ○ 07 (1) 성 역할 (2) 친밀감, 동질감 (3) 갈등 (4) 전문 용어 (5) 성향, 존중

01 사람은 고유한 성격이나 가정 환경, 사회 집단, 지역 등 자신이 살아온 주변 환경에 따라 생각이나 행동의 차이를 보이며, 다양한 가치관이 형성된다. 이러한 개인적 성향의 차이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듣기·말하기 방법의 차이로 나타난다.

02 (1) 간접적인 표현은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게 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성향에 따라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상대방이 어떤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지를 파악하여 그것을 고려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그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친밀감과 연대감을 느낄 수 있다.
(3) 지역 방언은 각 지역의 향토적 특성을 담고 있다. 문학 작품에서는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생동감이나 현장감과 같은 표현 효과를 얻기 위해 지역 방언을 사용할 수 있다.

완자쌍의 조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화자의 의도를 상대방이 정확하게 알 수 있으나,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반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돌려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나, 화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어요.

03 (1) ‘나’는 경수가 입은 옷이 그에게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지만 친구의 기분을 배려하여 “그런대로 괜찮아.”라고 별로라는 자신의 뜻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런데 경수는 ‘나’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옷을 사고는

이후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괜찮다고 말한 ‘나’로 인해 자신의 기분이 상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상대방의 듣기·말하기 방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이다.

(2)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집단마다 듣기·말하기 방법이 다르다는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3) 표준어는 불특정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상황이나 다른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4) 표준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하거나 강의할 때, 신문, 방송과 같은 매체에서 보도할 때, 다른 지역 사람들과 대화할 때 사용한다. 한편 지역 방언은 가족이나 친척들과 모였을 때나 고향 친구들과 만났을 때 사용하므로 이 둘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담화 상황과 상대에 따라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04 듣기·말하기 방법의 차이는 크게 개인에 따른 것과 집단에 따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대, 성별, 직업, 지역은 모두 집단에 따라 듣기·말하기 방법의 차이를 보이는 요소이다.

핵심 요약 듣기·말하기 방법의 차이

개인에 따른 듣기·말하기 차이	사람은 각자 개인이 지닌 성격이나, 가정 환경·사회 집단·지역 등의 주변 환경에 따라 다양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이런 개인적 성향이 듣기·말하기 방법의 차이로 나타난다.
집단에 따른 듣기·말하기 차이	•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지역 방언에서 듣기·말하기 방법이 차이가 남. • 세대, 성별, 직업 등에 따라 특징적으로 사용하는 사회 방언에서 듣기·말하기 방법이 차이가 남.

05 청소년 세대는 ‘더럽, 고답이’ 등과 같은 은어나 줄임말, ‘같던데’와 같은 비격식체, ‘대박’과 같은 종결 어미를 사용하지 않고 끝나는 말 등을 주로 사용한다. 한자어는 노년 세대가 주로 사용한다.

06 (1) 남성은 ‘-ㅂ니까?, ㅂ니다.’ 등의 격식체를, 여성은 ‘-요.’와 같은 비격식체를 주로 사용한다.
(2) 남성은 ‘급한 일 아니면 끊어.’와 같이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데 비해 여성은 ‘안 그래요?’와 같이 완곡한 표현을 사용한다.

(3) 세대, 성별, 직업에 따른 사회 방언을 사용할 경우 대화 상황이 어떠하며 상대가 누구인지를 고려하여 듣고 말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배경지식+ 부가 의문문

평서문 뒤에 덧붙여서 만든 의문문으로, 상대방에게 동의나 확인을 구하는 의문문이다. ‘~해. ~그렇지?’와 같이 되묻는 문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평서문+평서문과 반대 상황(평서문이 긍정적 상황이었으면 부정적 상황, 평서문이 부정적 상황이었으면 긍정적 상황)의 의문문’으로 만들어진다.

- 07** (1) 남성과 여성의 듣기·말하기 방법에 차이가 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은 사회적 위치와 가치관 등이 다르다는 성 역할을 구분 짓는 사회적 고정 관념 때문이다.
 (2) 사회 방언은 같은 세대, 성별, 직업 안에서는 친밀감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반면, 집단 밖에서는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상대방에게 거리감을 줄 수 있다.
 (3) 개인이나 집단에 따른 듣기·말하기 방법의 다양성을 이해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언어를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기고, 이러한 오해가 개인적·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4) 전문 용어는 해당 직업의 사람들끼리 있을 때 사용하면 의사소통을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과 있을 때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다.
 (5)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개인적 성향이나 집단적 특성에 따른 듣기·말하기 방법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소단원 평가 문제

326~328쪽

01 ⑤ **02** ④ **03** 표준어와 지역 방언은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04 ④ **05** ④ **06** ② **07** ⑤ **08** ③ **09** ⑤ **10** ② **11** ④ **12** ②

- 01** (가)는 표준어, (나)는 지역 방언으로 말하고 있다. 같은 지역의 사람들끼리 있을 경우에는 표준어보다 지역 방언을 사용했을 때 친근감과 연대감을 느낄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텔레비전 방송의 날씨 예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므로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바르다.
 ②, ③ (가)는 날씨 예보를 하는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고, (나)는 가족 간의 대화로 비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다.
 ④ (가)와 같은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지역 방언을 쓴다면, 같은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질감과 거리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날씨 예보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

- 02** ㄱ, ㄴ처럼 같은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친구나 친척들과 대화하는 상황일 때는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또한 ㄷ과 같이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에서 그 지역의 방언으로 대사를 처리하면 그 지방 특유의 색을 담고 있어 생동감과 현장감을 느낄 수 있기에 표현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오답풀이] ㄷ. 다른 지역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표준어를 쓰는 것이 내용 전달에 효과적이다.

03 서술형

표준어와 지역 방언은 대화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 달리 사용된다. 대체로 불특정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같은 지역 사람인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는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표준어와 지역 방언은 상호 보완적 관계라 할 수 있다.

고득점 전략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어떤 경우에 쓰는지 떠올려 보고 지역 방언을 쓰는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와 비공식적인 자리에 갔을 때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지를 생각하며 그 둘의 관계를 파악해 보세요. 표준어와 지역 방언이 대립적인 관계가 아님을 명심하도록 해요.

- 04** ‘나’와 경수는 개인적 성향에 따라 듣기·말하기 방법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 방언과 같은 지역적 차이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② ‘나’는 경수를 배려하여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였다.

③ 경수는 솔직하게 말해 주지 그랬냐고 상대방을 책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사람은 각자 자신이 살아온 가정 환경이나 사회 집단, 지역 등의 주변 환경에 따라 생각이나 행동의 차이를 보이며 다양한 가치관과 성격을 형성한다. 이러한 개인적 성향으로 인해 듣기·말하기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 05** 이 대화에서 ‘안 그래요?’처럼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부가 의문문을 사용한 사람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다. 남성은 직설적이고 명령적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남성은 ‘-버니까?, 버니다.’ 등의 격식체를 많이 사용하고, 여성은 ‘-요.’와 같은 비격식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② 여성은 ‘쪼금’과 같은 된소리와 ‘아, 네, 아뇨, 뭐’와 같은 감탄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③ 남성은 ‘급한 일 아니면 끊어.’처럼 상대방에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여성은 ‘아뇨, 뭐……. 그럴 수 있죠. 안 그래요?’처럼 부드럽고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⑤ 여성은 ‘요걸로’처럼 ‘ㄹ’을 첨가하여 발음하거나 ‘아뇨, 뭐…….’처럼 미완성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06 성별에 따라 듣기·말하기 방법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단지 성(性)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 역할을 구분 짓는 사회적 고정 관념 때문이다. 즉, 남성과 여성은 사회적 위치와 가치관 등이 서로 다르다는 인식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 반영되면서 성별에 따라 듣기·말하기 방법에 차이가 생긴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로의 듣기·말하기 방법이 다를 것을 알고 이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07 세대에 따른 사회 방언을 사용하면 다른 세대와 대화할 때는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상대방에게 이질감이나 거리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②, ③ 노년 세대와 청소년 세대는 서로 사용하는 어휘나 말하기 방식, 말하는 내용이 다르다. 노년 세대는 ‘-ㄴ가, -게’ 등의 격식체와 ‘춘부장, 가친’과 같은 한자어를 많이 사용한다. 청소년 세대에서는 ‘대박’처럼 종결 어미 없이 끝나는 말을 자주 사용하며, ‘더럽, 고답이’와 같은 은어나 줄임말을 많이 사용한다.

④ 세대에 따른 사회 방언을 사용하면 동일한 세대 내에서 대화할 때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친밀감 및 동질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핵심콕! 세대 간 언어 차이

노년 세대	• ‘춘부장, 가친, 선친, 자당, 처자’ 등의 한자어와 ‘자네’와 같은 예스러운 표현을 사용함. • 주로 하계체와 하오체 등의 격식체를 사용함.
청소년 세대	• ‘생선(생일 선물), 솔까말(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ㅂㄷㅂㄷ(부들부들)’ 등 유행어, 통신어, 줄임말, 신조어, 은어 등을 많이 사용함. • 대화 내용은 대중문화에 대한 것이 많음.

08 듣기·말하기는 개인적 성향이나 지역, 세대, 성별, 직업과 같은 집단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지역과 세대, 성별과 직업이 같더라도 개인적 성향에 따라 듣기·말하기 방법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②, ④, ⑤ 듣기·말하기 방법은 개인적 성향이나 지역, 세대, 성별, 직업과 같은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개인 성향에 따라 사람마다 듣기·말하기 방법의 차이가 있으므로 같은 내용이라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또 듣기·말하기 방법이 같은 집단 안에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다른 집단 간에는 의사소통에 불편을 주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듣기·말하기 방법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09 (가)에서 직업적 특성이 반영된 말로는 ‘시티, 만니톨, 에이에이피, 엔시드, 모르핀, 앰폴, 멘탈 스투퍼’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의학 전문 용어로, 이러한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같은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끼리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공적인 공간인 직장에서 같은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끼리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서로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 따라서 비공식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동일한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끼리는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므로 이질감과 거리감을 느끼지 않는다.

③, ④ 전문 용어의 특성과는 거리가 멀다. 향토적 정감을 느낄 수 있고 문학 작품에서 생동감과 현장감의 표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지역 방언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이다.

핵심콕! 전문 용어의 의미와 특징

의미	전문 분야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
특징	•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나 대상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해당 분야 종사자가 아닌 사람과 대화할 때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함.

10 ‘통증’은 아픈 증세를 뜻하는 말로 특정 직업군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가 아니다.

[오답풀이] ‘통증’을 제외한 나머지는 의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이다.

11 (나)에서 전공의와 환자 보호자 간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긴 이유는 전공의가 환자 보호자와 같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 분야의 전문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기>와 같이 고치면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을 줄여 줄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② (나)의 ‘이데마, 디프레션’은 직업적 특성이 반영된 의학 분야의 사회 방언이다.

③ (나)에서 전공의가 환자 보호자와 같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 분야의 전문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환자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겼다.

⑤ <보기>에서는 전공의가 일반인인 환자 보호자도 이해하기 쉽게 전문 용어를 풀어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화 상황과 상대를 고려한 말하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지역 방언에는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 그곳 사람들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어,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친밀감과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과 대화할 때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이질감과 거리감을 느끼기 쉽고, 의사소통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②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지역 방언은 한 언어에서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말이다.

③, ④ 사회 방언은 세대, 성별, 직업 등의 집단에 따라 사용되는 말로 같은 집단 안에서는 동질감, 소속감,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반면, 해당 집단 밖에서 사용하면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상대방에게 거리감을 줄 수 있다.

⑤ 듣기·말하기 방법은 집단적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적 성향에 의해서도 차이를 보인다.

02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기

확인 문제

332쪽 01 (1) 예의, 정중 (2) 상황 02 몸의 건강이 안녕하지 못한 상황에서 남학생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기 때문에

333쪽 03 ③ 04 처지, 완곡

334쪽 05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06 실현하기 어려운 방안을 제시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335쪽 07 (1) 완곡, 정중 (2) 사과 08 여학생의 제안에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거절 의사만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336쪽 09 (1) × (2) × 10 (1) 기본 (2) 언어 예절

01 (1) 대화의 기본 원리는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다. (2)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대화 상황이나 대화 상대에 맞는 적절한 말하기를 해야 한다.

02 (가)의 그림은 남학생이 병원에 입원하신 할아버지께 안부 인사를 하는 상황을 그린 것이다. 대화에서는 말하는 내용 자체가 타당하더라도 대화 상황이나 대화 상대에도 맞아야 적절한 말하기가 될 수 있다. (가)에서 남학생은 아픈 사람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몸의 상태가 안녕하지 못한 할아버지가 남학생의 인사에 당황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03 가의 남학생은 부탁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일방적으로 명령하듯이 요구하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기분을 상하게 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04 나 의 남학생은 먼저 부탁을 하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미안하지만 ~ (해) 줄래?"라고 완곡하게 말함으로써 여학생의 부담을 덜어 주었다. 이러한 말하기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여학생이 남학생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다.

05 건의하는 말하기를 할 때나 거절하는 말하기를 할 때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좋다.

06 다 의 여학생은 본관에 도서관을 신설해 달라는 실현하기 어려운 방안을 제시하면서 교장 선생님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새로 만들

수 없다면 차라리 별관에 있는 도서관을 없애는 게 낫다고 하며 극단적·감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말하기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느끼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07 (1) 거절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거절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완곡하고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말하기는 사과이다.

08 마 의 남학생은 영화 보러 가자는 여학생의 제안에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시간 없어.'라고 거절 의사만을 성의 없이 밝히고 있다.

09 (1) 감정을 자극하는 말하기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상대방과 더 심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말하기가 긍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대화 내용 자체는 타당하더라도 대화 상황이나 대화 상대에 맞게 적절하게 말하지 않으면 언어 예절에 어긋날 수 있다.

10 (1) 사과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면서 정중하고 공손하게 말해야 한다.

(2) 언어 예절이란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예절로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사회적 관습이다. 언어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습 활동

확인 문제

340쪽 **생각 모으기** 01 ③ 02 ⑤ 03 (1) × (2) ○ (3) ×
04 (1) 청자, 화자 (2) 공손성

342쪽 **생각 펼치기** 05 ④ 06 (1) ○ (2) ○ 07 ② 08 (1)
대화 상대 (2) 입장, 언어 예절

01 부탁하는 말하기를 할 때에는 상대방이 부담을 가질 수 있으므로 화자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완곡하게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말하는 것이 좋다.

[오답풀이] ① 건의하는 말하기를 할 때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며, 문제 상황과 그에 대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차분하게 말하면서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좋다.

- ② 거절하는 말하기를 할 때에는 상대방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거절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완곡하고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 ④ 사과하는 말하기를 할 때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면서 정중하고 공손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 ⑤ 위로하는 말하기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따뜻한 말로써 괴로움이나 슬픔을 덜어 주는 것이 좋다.

02 학급 문고의 도서 대출 기간을 정하자고 건의하는 말하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화자가 자신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을 간접하게 호소하는 감정적인 말하기 방식은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부담을 느끼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②, ③, ④ 건의하는 말하기를 할 때는 먼저 인사 말을 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문제 상황과 그에 대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차분하게 말하면서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좋다.

03 (1) '수고'는 '일을 하느라 힘을 들이고 애를 씀.'을 뜻하는 말로, '수고하세요.'는 '남아서 더 고생을 하세요.'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뒷사람에게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2) 화자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바(다시 한번 말해 달라.)를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 예절을 잘 지킨 표현이라 할 수 있다.

(3) 상대방의 말 중간에 끼어들어 말하는 것은 언어 예절에 어긋난 행동이다.

04 (1) 대화가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하는 순서가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대화의 원리를 순서 교대의 원리라고 한다. 청자와 화자의 역할이 이와 같이 원활하게 바뀌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면 대화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2)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서로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말을 주고받는 것은 대화의 원리 중 공손성의 원리에 해당한다. 가깝고 친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면 인간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 원리를 지켜 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05 <보기>는 '나'가 할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쳐야 하는 거절의 상황이다. 거절하는 말하기를 할 때에는 거절 의사를 제일 먼저 말하기보다는 공감의 뜻을 표현하거나 거절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대방이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며 거절 의사를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06 (1) 병문안을 간 상황에 맞지 않게 장난말을 하고 있어 대화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

(2) 친하다는 이유로 장난으로 한 말이라도 아픈 상황에 있는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07 부탁하는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야 하지만, 반드시 상대방의 기분에 대해 공감을 표현할 필요는 없다.

[오답풀이] ①, ③, ⑤ 부탁하는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선생님)이 부담을 가질 것을 고려하여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④ 학원 선생님께 지난 수업 시간에 아파서 빠진 부분에 대해 보강을 부탁하는 상황이라면 부탁을 받는 선생님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08 (1) 원활한 의사소통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대화 상황과 대화 상대에 맞게 말해야 한다.

(2) 상대방의 입장 배려하기,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언어 예절을 지켜 말하기는 대화할 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태도이다. 자신의 언어생활을 점검할 때는 이러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

소단원 평가 문제

345~347쪽

01 ③ **02** ⑤ **03** ④ **04** <보기>는 건의하는 말하기로, 이때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며 차분하게 말해야 한다. **05** ③ **06** ② **07** ④ **08** 순서 교대의 원리 **09** ③ **10** ③

01 이 글은 여러 가지 대화 상황에 따른 말하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대화 상황에서의 말하기 방법에 대해 공통점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화 상황을 보여 주고 이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말하기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② 부탁, 건의, 거절, 사과의 상황에 따른 말하기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④ 부탁, 건의, 거절, 사과의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말하기 방법과 바람직한 말하기 방법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⑤ 부탁, 건의, 사과의 개념을 먼저 제시한 뒤 각각의 말하기에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2 (가)의 부탁하는 말하기에서는 직접적인 말하기보다는 완곡하게 말하는 방법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으며, (다)의 거절하는 말하기에서도 완곡하게 말하는 방법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완곡하게 말하기보다 직접적인 말하기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부탁, 건의, 거절, 사과 등의 대화 상황과 대화 상대에 맞게 말하는 경우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바람직한 말하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부탁, 건의하는 말하기에서 상대방이 부담을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는 말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말하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부탁, 건의하는 말하기에서 상대방이 부담을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고 사과하는 말하기에서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한 말하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가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정중한 태도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말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다에서는 여학생의 제안에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거절 의사만을 성의 없이 밝힘으로써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있으며, 사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대화할 때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03 가의 남학생은 여학생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인 ‘문 닫기’를 “거기 문 좀 닫아.”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남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바인 ‘문 닫기’를 “미안하지만 문 좀 닫아 줄래?”라고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부탁을 받은 여학생은 바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남학생이 여학생의 바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나,의 남학생은 ‘내가 추워서 그러는데’라며 자신이 추위를 느끼는 상황임을 먼저 설명하며 부탁하는 근거를 들고 있다.

③ 부탁하는 말하기에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덜 수 있으므로 가보다는 나,의 여학생의 부담이 적을 것이다.

⑤ 가와 나,의 상황 모두 부탁하는 말하기이다. 가의 남학생은 여학생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말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반면 나,의 남학생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완곡하게 말하여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있다. 이 두 경우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말하기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경지식+ 발화의 표현 방식

- 직접적 표현 방식: 발화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화자의 의도를 정확히 알릴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청자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예 교실이 시끄러울 때: “너희들, 좀 조용히 해라.”
- 간접적 표현 방식: 발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좀 더 겸손하고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다.
예 교실이 시끄러울 때: “너희들은 목도 안 아프니?, 책 좀 읽게 해 줄래?”

04 서술형

〈보기〉는 학급 문고의 도서 대출 기간을 정하자고 ‘건의하는 말하기’이다. (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건의하는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차분하게 말해야 한다.

고득점 전략

〈보기〉에서 화자가 학급 문고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어떤 말하기인지를 파악해 보세요. 문제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의의 말하기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건의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효과적인 말하기 방법이 무엇인지를 (나)에서 찾아보세요.

05 ‘상황 1’은 사과하는 말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기 처지를 설명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여 상대방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말하는 것은 부탁하는 상황에서의 말하기 방법이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상황 1’은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는 사과의 말하기. ‘상황 2’는 친구의 제안을 거절하는 말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② ‘상황 1’처럼 사과하는 상황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면서 정중하고 공손하게 말해야 한다.

④ ‘상황 2’처럼 거절하는 상황에서는 제한한 친구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거절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완곡하고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⑤ ‘상황 2’와 같은 거절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인간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며 정중하게 말해야 한다.

06 〈보기〉와 같이 친구가 아픈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난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친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오답 풀이] ① 친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말을 한다면 친구와의 심리적 거리감이 멀어질 수 있다.

③ 대화 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말하기는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지만, 부탁이나 건의, 거절의 말하기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④ 언어 예절을 지키지 않고 말할 경우 친구와의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⑤ 대화 상대와 대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말하기이기 때문에 친구를 배려했다고 볼 수 없다.

07 ㉔의 앞을 보면 서준은 엄마에게 들릴 듯 말 듯하게 말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엄마의 부탁을 거절하려는 의도는 맞으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동생 혼자 다녀와도 되지 않느냐고 말하며 자신의 거절 의사를 돌려 표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서준은 엄마가 자신의 방에 들어온 이유를 묻지도 않고 추측하여 말하고 있다.

② 엄마는 서준에게 동생을 데리고 치과에 다녀오라는 부탁을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저녁 준비 때문에 바쁘다는 처지를 설명하고, 권유의 형식인 ‘안 될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완곡하게 전하고 있다.

③ 엄마는 서준에게 부탁하는 상황인데도 ‘얼른 다녀와.’라고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서준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⑤ 엄마는 서준이 작게 말해서 그의 말을 듣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자신이 잘 못 들었다며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 이야기하고 있다.

완자생의 조언

서준의 엄마가 만약 “네가 말을 작게 하니가 잘 못 들겠잖아.”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서준은 엄마의 말에 마음이 상해서 동생을 데리고 치과에 가지 않았겠죠?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예요. 자신이 못 들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을 지지 않고 상대방에게는 부담을 주는 표현이지요. 이 글에서처럼 못 들은 책임을 자신의 부주의 탓으로 돌려서 자신의 부담을 최대화하는 대신 상대방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대화의 원리 중 공손성의 원리에 해당됩니다.

08 서준이 ‘엄마의 말을 끊으며’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청자와 화자의 역할이 원활하게 바뀌는 ‘순서 교대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09 이 글의 글쓴이는 자신이 친구의 손목시계를 망가뜨린 상황에 대해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는 사과의 말하기를 하려고 한다. 사과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면서 정중하고 공손하게 말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어떤 일을 해 달라고 청하거나 말기는 말하기는 부탁하는 말하기이다.

② 사과하는 말하기에서는 자신의 미안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진솔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④ 상대방의 부탁이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말하기는 거절하는 말하기이다.

⑤ 친구에게 사과하는 상황의 말하기이므로 거절의 의사와는 관련 없다. ⑤는 거절하는 말하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10 대화를 할 때 화자는 자기와 청자와의 관계, 청자의 나이,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높임 표현과 어휘를 선택해야 한다. 제시된 상황에서 손녀는 청자인 할머니께 ‘생일 축하해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와 같은 적절하지 않은 높임 표현과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축하해요.’는 할머니에 대한 공손함이 들어 있지 않은 표현이고 ‘오래 사세요.’와 같은 수명과 관련된 표현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의 기분을 언짢게 할 수도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이 좋다. 이 상황에서는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내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답풀이] ① 화자가 청자에게 적절하지 않은 높임 표현과 어휘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청자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청자를 존중하지만 높임 표현과 어휘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② 화자가 청자인 할머니께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한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④ 화자가 청자인 할머니께 적절하지 않은 높임 표현과 어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격식에 맞는 바람직한 대화라고는 볼 수 없다.

⑤ 화자가 청자에게 생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대화 상황에 맞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높임 표현과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03 상황에 따른 문법 요소의 활용

학습 활동

확인 문제

357쪽 **활동 1, 2** **01** (1) 객체 높임 표현 (2) 상대 높임 표현 (3) 주체 높임 표현 **02** ㉠ **03** (1) ㉠ (2) ㉡ (3) ㉢ **04** (1) × (2) × **05** (1) 주체의 의지를 나타냄. (2) 미래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나타냄.

364쪽 **활동 3, 4** **06** ㉡ **07** (1) 불리운다 → 불린다 (2) 믿겨지지 → 믿기지 / 믿어지지 **08** (1) 연사는 우리들에게 꿈을 찾으라고 말했다. (2) 그는 정말 고맙다고 여러 번 말했다. **09** (1) ○ (2) × **10** (1) 부사어, 주어 (2) 생생한, 매끄럽고

01 (1) 화자가 문장의 객체, 즉 목적어인 ‘선생님’을 ‘뵤다’라는 객체 높임말을 사용하여 높이고 있으므로 객체 높임 표현에 해당한다.

(2) 화자가 청자인 ‘어머니’를 ‘-버니다’라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높이고 있으므로 상대 높임 표현에 해당한다.

(3) 문장의 주체, 즉 주어인 ‘할아버지’를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높이고 있으므로 주체 높임 표현에 해당한다.

배경지식+ 상대 높임 표현

상대 높임 표현은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되는데, 종결 어미는 격식을 차려 상대를 깎듯하게 대하는 격식체와 거리감 없이 친근하게 상대를 대하는 비격식체로 나뉜다. 보통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격식체를 많이 사용하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비격식체를 주로 사용한다. 격식체는 단정적이고 객관적인 느낌을 주고, 비격식체는 부드럽고 주관적인 느낌을 준다.

- 02** 상대 높임 표현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이다. 상대 높임의 격식체에는 하십시오체(아주높임), 하오체(예사 높임), 하계체(예사 낮춤), 해라체(아주낮춤)가 있고, 비격식체에는 해요체(두루높임), 해체(두루낮춤)가 있다. '가요.'는 해요체로 비격식체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가게'는 하계체, ② '가라'는 해라체, ④ '가시오'는 하오체, ⑤ '가십시오'는 하십시오체로 격식체에 해당한다.

- 03** (1) '어제'와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2) '내일'과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3) '오늘'과 선어말 어미 '-는-'을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핵심콕! 시제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

과거 시제	•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앞서는 시제 • 선어말 어미 '-았-/었-', 관형사형 어미 '-더-'나 '-(으)ㄴ',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 '어제, 아까, 이미' 등을 통해 실현됨.
현재 시제	•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과 일치하는 시제 • 선어말 어미 '-ㄴ-/는-'이나 관형사형 어미 '-(으)ㄴ/-는',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 '지금, 이제' 등을 통해 실현됨.
미래 시제	•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나중인 시제 • 선어말 어미 '-겠-'이나 관형사형 어미 '-(으)ㄹ',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 '내일, 모레' 등을 통해 실현됨.

- 04** (1) 학급 회의 상황은 공식적인 자리이므로 친구 사이라도 격식체를 사용해야 하는데, '볼래?'는 비격식체인 해체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높임 표현이다. 이 상황에서는 '여기를 좀 봐 주십시오.'와 같이 격식체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이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은 '선생님'인데, 들어오는 주체인 '너'를 높여 '들어오시래.'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높임 표현이다. '선생님께서 너 교실로 빨리 들어오라고 하셔.'가 바른 높임 표현이다.

- 05** (1) 이 문장에서 '-겠-'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들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 표현이다.
 (2) '혼났다'의 '-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임을 나타낸 표현이다.

고득점 전략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인 '-았-/었-'은 과거를 나타내는 것 외에도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미래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나타내기도 해요. '아가기가 엄마를 닮았다.'라는 문장을 보면 과거에 완결된 상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죠? '오늘 잠은 다 잤네.'에서는 미래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확신하여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인 '-겠-'은 미래를 나타내는 것 외에도 추측이나 의지, 가능성 등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해요. '철수는 벌써 숙제를 끝냈겠다.'에서는 추측을, '말은 바 책임을 다하겠 습니다.'에서는 의지를, '나도 선생님이 될 수 있겠다.'에서는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처럼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문장에서 다른 역할도 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도록 해요.

- 06** ②는 주어인 '그들'이 낙서를 없애는 행위를 자기 의지대로 한 것이므로 능동 표현이다.

[오답풀이] ①, ③, ④, ⑤는 모두 피동 표현이다. ①의 불길은 다른 대상에 의해 그 기세를 누그러뜨리는 행위를 당한 것이며, ③의 사람은 개에 의해 물림을 당한 것이며, ④의 쥐는 고양이에게 쫓김을 당한 것이며, ⑤의 행인은 자전거에 의해 치임을 당한 것이다. ① '잡히다'(피동 접사 '-히-' 사용), ③ '물렸다'(피동 접사 '-리-' 사용), ④ '쫓기고'(피동 접사 '-기-' 사용), ⑤ '치였다'(피동 접사 '-이-' 사용)에서 피동 표현이 쓰였다.

- 07** (1) '불리운다'를 분석해 보면 '불-+-리-+-우-+-ㄴ다'가 된다. 피동 접사 '-리-'만 사용하여 '불리다'라고 적는 것이 적절한 피동 표현인데 불필요하게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우-'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2) '믿겨지지'는 '믿-+-기-+-어지(다)+-지'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피동 접사 '-기-'와 '-어지다'라는 표현이 함께 쓰인 이중 피동으로, 피동 접사 '-기-'만 사용한 '믿기지'나 '-어지다'만을 사용한 '믿어지지'로 적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배경지식 + 주동 표현과 사동 표현

주동 표현	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는 것 예) 아이가 옷을 입는다.
사동 표현	• 주어가 다른 사람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 • 사동 접사 '-이-', '-하-', '-리-', '-기-', '-우-', '-구-', '-추-' 등을 붙여 만들. 예)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옷을 입히신다. • '-게 하다'를 붙여 만들. 예) 동생이 강아지에게 밥을 먹게 한다.

08 (1) 인용절이 명령문이므로 종결 어미를 ‘-(으)라’로 바꾸고 인용절 다음에 조사 ‘고’를 쓴다.

(2) 인용절이 평서문이므로 종결 어미를 ‘-다’로 바꾸고 인용절 다음에 조사 ‘고’를 쓴다.

09 (1) 피동 표현은 주로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가 확실하지 않거나 밝히지 않고자 할 때,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고자 할 때,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거나 내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2)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 큰따옴표는 사라지고 조사 ‘라고’가 ‘고’로 바뀌며 인용절 문장의 종결 어미도 변화한다. 또한 때에 따라 인칭 대명사나 지시 대명사도 변화한다.

10 (1)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눈이(주어)+세상을(목적어)+덮었다(서술어). → 세상이(주어)+눈으로(부사어)+덮었다(서술어).’와 같이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

(2)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말을 직접 전하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주며, 간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직접 인용 표현보다 생생한 느낌은 덜하지만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준다.

소단원 평가 문제

367~369쪽

01 ⑤ **02** ㄱ. 상대 높임 표현 **나**. 주체 높임 표현 **03** 할아버지께서는 책을 읽으시고 난 뒤 주무신다. **04** ⑤ **05** ④ **06** ② **07** ④ **08** ④ **09** ③ **10** ③ **11** 돌아올 **12** ② **13** ④ **14** ① **15** ② **16** ④ **17** ④

01 문장의 주체, 즉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술어에 어미 ‘-(으)시-’를 붙이거나 주격 조사 ‘이/가’ 대신 ‘께서’를 사용해야 한다.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는 것은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02 ㄱ은 ‘-어라’라는 ‘해라체’의 종결 어미를 통해 청자인 수현을 낮추어 말하고 있으므로 상대 높임 표현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고 서술어에 어미 ‘-시-’를 붙여 주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주체 높임 표현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03 서술형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은 주체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서술어에 어미 ‘-(으)시-’를 붙이거나 주격 조사 ‘이/가’ 대신 ‘께서’를 사용하여 실현된다. 또한 ‘주무시다, 계시다’ 등의 주체 높임말을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할아버지는 책을 읽고 난 뒤 잔다.’는 ‘할아버지께서는 책을 읽으시고 난 뒤 주무신다.’로 바뀌어야 한다.

04 **나**. ‘선생님이 너 교무실로 빨리 오시래.’는 주체를 높이는 어미 ‘-시-’와 조사를 잘못 사용하여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을 높이지 않고 높임의 대상이 아닌 ‘너’를 높여 표현한 문장이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너 교무실로 빨리 오라셔.’ 혹은 ‘선생님께서 너 교무실로 빨리 오라고 하셔.’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ㄷ. ‘이 구두는 최신 유행 상품이십니다.’는 주체를 높이는 어미 ‘-시-’를 사용하여 높임의 대상이 아닌 ‘구두’를 높여 표현한 문장이다. 사물인 구두를 높이는 것은 옳바르지 않으므로 ‘이 구두는 최신 유행 상품입니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ㄹ. ‘나는 선생님에게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러 갔다.’에서 높여야 할 대상은 객체인 ‘선생님’이다. 따라서 ‘선생님’이라는 부사어에 조사 ‘에게’ 대신 ‘께’를 사용하고, ‘문다’를 ‘여쭙다’라는 객체 높임말로 바꾸어서 ‘나는 선생님께 모르는 문제를 여쭙(여쭙어)보러 갔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ㄱ. ‘형이 할아버지를 만나러 집에 왔다.’에서 높여야 할 대상은 객체인 ‘할아버지’이다. 따라서 객체 높임말 ‘되다’를 사용하여 ‘형이 할아버지를 뵈러 집에 왔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05 상대 높임 표현은 담화 상황, 화자와 청자의 관계, 화자의 의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실현된다. **가**에서는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친구 사이에 친밀감을 드러내기 위해 비격식체인 해체를 사용하였다. 반면, **나**에서는 학급 회의라는 공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친구 사이지만 공식적인 말하기를 하기 위해 격식체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상대 높임 표현을 사용한 것이며, 다만 **가**는 상대를 낮춘 표현을, **나**는 상대를 높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오답풀이 ① **가**는 학급 친구 사이라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드러내기 위해 비격식체의 두루뎡춤인 해체를 사용하였다.

②, ⑤ 상대 높임 표현은 담화 상황, 화자와 청자의 관계, 화자의 의도 등을 고려하여 실현되는데, **가**와 **나**의 청자가 모두 친구라 하더라도, **나**에서는 학급 회의라는 공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격식체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③ **가**의 ‘볼래?’는 비격식체의 두루뎡춤인 해체이고, **나**의 ‘보시겠습니까?’는 격식체의 아주높임인 하십시오체이다.

만자생의 조언

주체 높임 표현과 객체 높임 표현은 문장의 주체와 객체를 높이는 표현인 데 비해, 상대 높임 표현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청자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06 (가)와 (나)에 사용된 상대 높임 표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장안: 자네, 이리 와서 ㉠앉게,
하계체(예사 낮춤)
사위: 네, 그럼 감사히 ㉡앉겠습니다.
하십시오체(아주높임)
장모: 정연아, 너도 여기 와서 ㉢앉아. 어머니, 어머니도 이쪽
해체(두루낮춤)
에 ㉤앉으세요, 아버님도 ㉥앉으시고요,
해요체(두루높임) 해요체(두루높임)
나 박 부장: 김 과장, 이리 와서 ㉦앉으시오,
하오체(예사 높임)
김 과장: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도 ㉧앉으십시오,
하십시오체(아주높임)

㉠의 '앉겠습니다'와 ㉣의 '앉으십시오'는 아주높임의 하십시오체에 해당하지만, ㉤의 '앉으시오'는 예사 높임인 하오체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은 예사 낮춤의 하계체이며, ㉤은 두루낮춤의 해체이다.

③ ㉤의 '앉으세요'는 해요체로 두루높임이고, ㉥은 하계체로 예사 낮춤, ㉦은 해체로 두루낮춤이다. 따라서 ㉠과 ㉤에 비해 ㉤의 높임 정도가 더 높다. 또한 ㉤은 두루높임의 해요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 높임의 정도가 같다.

④ 하십시오체(㉠, ㉣), 하오체(㉤), 하계체(㉠)는 격식체이고, 해요체(㉤, ㉥)와 해체(㉢)는 비격식체이다.

⑤ ㉠과 ㉣은 아주높임이고, ㉤과 ㉥은 두루높임, ㉦은 예사 높임이다. 반면 ㉠은 예사 낮춤, ㉤은 두루낮춤에 해당한다.

07 이 대화 상황에서 화자는 '어머니'이고 청자이자 문장의 주체는 '승찬'이다. 높여야 할 대상은 문장의 객체인 '할머니'이므로, 부사어인 '할머니'에 조사 '께'와 높임말인 '드리다'를 사용하여 높이고 있다. 어머니는 청자인 승찬에게 종결 어미를 통해 상대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문장의 객체(부사어)인 할머니에게 상대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드리렴'의 어미 '-렴'은 해라할 자리에 쓰여, 부드러운 명령이나 허락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08 과거 시제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앞서는 시제로, 어미 '-았-/~었-', '-더-'나 '-(으)ㄴ'이 쓰이며, 부사어 '어제, 아까' 등을 통해 실현된다. 따라서 ㄷ에서 '어제'를 삭제하더라도 '-았-'의 어미를 통해 과거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ㄱ은 미래, ㄴ은 현재, ㄷ은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므로 각각 다른 시제이다.

② 미래 시제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나중인 시제이다. 어미 '-겠-'이나 '-(으)ㄹ'이 쓰이며, 부사어 '내일, 모레' 등을 통해 실현된다. ㄱ에서도 '떠날'의 '-ㄹ'과 '갈게'의 '-ㄹ'이라는 표현을 통해 미래를 나타내고 있다.

③ 현재 시제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과 일치하는 시제이다. 어미 '-ㄴ-/~는-'이나 '-(으)ㄴ-/~는'이 쓰이며, 부사어 '지금, 이제' 등을 통해 실현된다. ㄴ에서는 '지금'과 '읽는'의 '-는'을 통해 현재를 나타내고 있다.

⑤ ㄱ은 '떠날'에서 '-ㄹ'을 통해 미래 시제를, ㄴ은 '읽는'에서 '-는'을 통해 현재 시제를, ㄷ은 '뒤었다'에서 '-았-'을 통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09 ㄱ. '그 일을 혼자 다 할 수 있겠어?'에서 '-겠-'은 가능성이나 능력을 의미한다.

ㄴ. '하늘을 보니 내일은 비가 오겠다.'에서 '-겠-'은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의미한다.

ㄷ.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에서 '-겠-'은 주체의 의지를 의미한다.

ㄹ. '이 시간이면 그가 역에 벌써 도착했겠다.'에서 '-겠-'은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의미한다.

따라서 '-겠-'이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것은 ㄴ과 ㄹ이다.

10 ㄱ은 과거, ㄴ은 현재, ㄷ은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ㄴ은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지속되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나는 책을 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한다면 사건이 현재까지 지속된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과거 시제는 어미 '-았-/~었-', '-더-'나 '-(으)ㄴ'이 쓰이며, 부사어 '어제, 아까' 등을 통해 실현된다.

② 현재 시제는 어미 '-ㄴ-/~는-'이나 '-(으)ㄴ-/~는'이 쓰이며, 부사어 '지금, 이제' 등을 통해 실현된다.

④ 미래 시제는 어미 '-(으)ㄹ'이나 '-겠-'이 쓰이며, 부사어 '내일, 모레' 등을 통해 실현된다.

⑤ ㄱ은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앞선다고 볼 수 있다. 반면 ㄷ은 미래 시제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나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11 제시된 문장의 '돌아온'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ㄴ'이 사용되었다. 바로 앞에 쓰인 '머지 않아'는 '시간적으로 멀지 않다.'라는 의미의 부사어이므로, '돌아온'을 미래 시제로 서술해야 한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이 결합한 '돌아올'로 고쳐야 한다.

12 ㄴ. 가의 주어는 '모기'로 이 주어는 무는 행위를 하는 입장이기에, 자신의 의지대로 동작이나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능동 표현이라고 한다.

ㄷ. 나.의 주어는 '아이'로, 이 주어는 모기에게 물리는 행위를 당하는 입장이다. 이를 피동 표현이라고 한다.

[오답풀이] ㄱ. ㄱ은 능동 표현, ㄴ은 피동 표현이다.

ㄴ.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 그리고 피동 접사 ‘-이-, -히-, -리-, -기-’를 사용하거나 ‘-어지다’, ‘-되다’ 등을 통해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 ㄱ을 피동 표현으로 바꿀 때 피동 접사 ‘-리-’를 붙여 ‘물렸다’로 만들 수는 있으나, ‘-어지다’를 사용하여 ‘물어지다’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3**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밝히기 어렵거나 밝히고 싶지 않을 경우 그 주체를 제시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내용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고,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할 수 있으며, 내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제시된 상황에서 업체가 환불 규정을 피동 표현으로 서술한 이유는 환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 것이다.

배경지식+ 피동 표현은 무조건 쓰지 말아야 할까?

피동 표현을 불필요하게 사용하거나 이중 피동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잘못된 피동 표현을 고쳐 쓰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피동 표현은 무조건 쓰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담화 상황에 따라 피동 표현이 필요할 때가 있다. 가령, ‘작은 차이가 승패를 결정한다.’라는 문장을 보자. 이 문장은 잘못 쓴 문장이다. ‘작은 차이’가 능동적으로 행동을 해서 ‘승패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승패는 작은 차이로 결정된다.’라는 피동문으로 써야 한다.

- 14** 밑줄 친 부분은 능동 표현이고 괄호 안의 내용은 밑줄 친 부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능동 표현을 사용했을 경우 김 기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 화재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다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느낌을 준다.

[오답풀이] ②, ③ 이 방송 보도는 화재의 심각성을 부각하거나 화재 사고 예방을 촉구하기보다는 화재 사건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④ 화재의 원인이 된 자동차 부품 과열은 ‘불발터위’ 때문에 일어났음을 이미 밝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의 주체를 밝히지 않기 위해 피동 표현으로 바꾸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신문, 방송 보도와 같은 언론 매체는 어떤 사건에 대해 기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 15** 피동 표현을 중복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피동 접사 ‘-이-, -히-, -리-, -기-’만으로도 피동의 의미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데,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을 또 사용하여 이중 피동을 만드는 것이다. ‘모여지지’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으다’에 피동 접사 ‘-이-’가 붙은 ‘모이다’만으로도 그 의미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데 ‘-어지다’를 겹쳐 피동 표현을 중복 사용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되었다. ‘모여지지’는 ‘모이지’로 바꾸면 바른 피동 표현이 된다.

- 16** 직접 인용 표현은 인용절에 큰따옴표를 넣어 표시하고, 인용절 다음에 조사 ‘라고’를 사용한다. 반면 간접 인용 표현은 큰따옴표 없이 인용절 다음에 조사 ‘고’를 사용한다.

- 17** ㉠에서 ‘내가’가 ‘자기가’로 바뀌었고, 마찬가지로 ㉡에서도 ‘저도’가 ‘자기도’로 바뀌었기에 인칭 대명사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에서는 직접 인용문일 때와 간접 인용문일 때 모두 ‘나에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③ 간접 인용절의 문장 종결 어미는 평서문은 ‘-다’고, 의문문은 ‘-냐’고, 명령문은 ‘-(으)라’고 사용한다.

② 직접 인용 표현에서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뀔 때는 인용절 속의 어미, 인용 조사,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 높임 표현 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에서도 지시 대명사 ‘거기’가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뀌면서 ‘여기’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직접 인용 표현은 인용절에 큰따옴표를 넣어 표시하지만, 간접 인용 표현은 인용절에 큰따옴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핵심체크 인용 표현

직접 인용 표현	• 만드는 방법: 인용절에 큰따옴표를 넣어 표시하고 인용절 다음에 조사 ‘라고’를 씀. • 표현 효과: 직접 말을 전하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줌.
간접 인용 표현	• 만드는 방법 - 큰따옴표를 생략하고 인용절 다음에 조사 ‘고’를 씀. - 인용절의 종결 어미를 평서문은 ‘-다’로, 의문문은 ‘-(으)냐’로, 명령문은 ‘-(으)라’로, 청유문은 ‘-자’로, 감탄문은 평서문과 같이 ‘-다’로 바꿈. -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 및 상대 높임 표현을 바꿈. • 표현 효과: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할 때보다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줌.

어휘 어법 한글

확인 문제

- 373쪽 **01** (1) 분화되고(분화되면서) (2) 혼란스럽게 (3) 완곡하게
02 (1) ㄴ (2) ㄱ (3) ㄷ

- 01** (1) 직업이 세밀하게 나누어지거나 변화되었다는 의미이므로 ‘단순하거나 등질인 것에서 복잡하거나 이질인 것으로 변함.’이라는 의미를 지닌 ‘분화’의 활용 형태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남용'은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씀'이라는 의미이다. '소비'는 '돈이나 물자, 시간, 노력 따위를 들이거나 써서 없앴'이라는 의미이다.

(2) 이 제도가 시장의 유통 구조를 어지럽혔다는 의미이므로 '뒤죽박죽이 되어 어지럽고 질서가 없음.'이라는 의미를 지닌 '혼란'의 활용 형태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혼돈'은 '마구 뒤섞여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음. 또는 그런 상태'라는 의미이다. '혼동'은 '구별하지 못하고 뒤섞어서 생각함'이라는 의미로, 혼동되는 두 대상이 있어야 한다.

(3) 아버지의 제안을 어떻게 거절했는지 나타내는 것이므로 '말하는 투가,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모나지 않고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지닌 '완곡하다'의 활용 형태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각인되다'는 '머릿속에 새겨 넣듯 깊이 기억되다'라는 의미이다. '엄격하다'는 '말, 태도, 규칙 따위가 매우 엄하고 철저하다'라는 의미이다.

- 02** (1) 사기꾼에게 해를 입은 것이므로 '해를 입거나 놀림을 받다.'라는 의미의 '당하다'가 사용된 것이다.
 (2) 우리가 그들을 맞설 힘이 없는 것이므로 '맞서 이겨내다.'라는 의미의 '당하다'가 사용된 것이다.
 (3) 이런 사태에 처한 것이므로 '어떤 때나 형편에 이르거나 처하다.'라는 의미의 '당하다'가 사용된 것이다.

대단원 모의고사

376~379쪽

- 01** ① **02** 아버지가 쓴 말은 특정 직업에서 쓰는 전문 용어로 이와 같은 사회 방언은 해당 집단 밖에서 사용하면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상대방에게 거리감을 줄 수 있다. **03** ② **04** ① **05** ③
06 ⑤ **07** ① **08** ③ **09** ② **10** ⑤ **11** ④ **12** ③ **13** ③
14 ③

- 01** 지역 방언은 각 지역의 향토적 특성을 담고 있어, 생동감이나 현장감과 같은 표현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문학 작품에 자주 쓰인다. <보기>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강원도 방언으로 옮겨 쓴 것으로, 원작 시와는 또 다른 즐거움과 향토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두 작품 모두 독백체를 사용하였을 뿐,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한 것은 아니다.

③ 영탄적 표현이 추가되지 않았고, <보기> 시 또한 화자의 감정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고조된 정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④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이 시는 '-오리다', '-소서', <보기>는 '-래요', '-우야' 등의 높임 종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02 서술형

<보기>의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아버지가 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원에 분야의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특정 직업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해당 직업군에 속하지 않은 사람과 대화할 때 사용하면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상대방에게 거리감을 줄 수 있다.

고득점 전략

아들과 아버지가 나눈 대화의 문제점을 '방언의 유형과 관련지어' 쓰라고 했으므로 <보기>에서 먼저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에서 어떤 어려움이 나타나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럼 그 원인이 아버지가 사용한 말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어떤 방언과 관계되는지 찾아보고 일반인과의 대화에서 그 방언을 사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서술해 보세요.

- 03** 이 글에서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말을 '지역 방언', 세대, 성별, 직업 등에 따라 특징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사회 방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②의 '우야꼬'는 '어떻게 할까?'라는 뜻의, '애비가네'는 '야위어 가네.'라는 뜻의 경상도 방언으로 지역 방언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춘부장'과 같은 한자어와 '-노가'라는 격식체를 많이 사용하는 노년 세대의 말로 세대에 따른 사회 방언을 보여주는 예이다.

③ '대박'처럼 종결 어미 없이 끝나는 말이나 '더럽'과 같은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청소년 세대의 언어 표현의 특징으로 세대에 따른 사회 방언을 보여주는 예이다.

④ '엔시드, 모르핀, 앰폴'은 의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로, 직업에 따른 사회 방언을 보여주는 예이다.

⑤ 인물 1은 격식체를 사용하며 직설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남성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임을 알 수 있다. 인물 2는 '고거, 요걸로'와 같이 부드럽고 귀여운 어감의 어휘를 사용하고 '찍은 거'와 같이 경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임을 알 수 있다. 즉 이것은 성별에 따른 사회 방언을 보여주는 예이다.

해설곡관! 성별에 따른 듣기·말하기 방식의 차이

발음할 때 여성은 남성보다 된소리를 많이 사용하며 '르'를 첨가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또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부사나 감탄사를 자주 사용하고 지시어에서 작고 귀여운 어감의 어휘를 쓰는 경향이 있다. 요청하는 상황에서 남성은 직설적 표현의 명령문을 선호하나, 여성은 청유문이나 의문문을 선호하며 상대방에게 동의나 확인을 구하는 부가 의문문을 사용하기도 한다. 상대 높임 표현에서도 남성은 격식체, 여성은 비격식체를 주로 쓴다. 이와 같은 성별에 따른 언어 차이는 성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04 우리 주변에서 남녀에 따라 듣기·말하기 방법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타고난 성(性)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 역할을 구분 짓는 사회적 고정 관념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인식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 반영되어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이므로 ①은 적절하지 않다.

05 이 글은 대화의 개념과 기본 원리 및 건의, 사과 등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 그 뒤에 각 상황에서의 바람직한 말하기와 바람직하지 않은 말하기의 사례를 제시하여 대화 상황과 대화 상대에 맞는 언어 예절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서로 다른 관점을 절충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에서 상황에 맞지 않게 표현한 경우와 상황에 맞게 올바르게 표현한 경우를 예로 들어 상황에 따른 올바른 말하기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② 다양한 말하기 상황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대화 방법의 장단점을 도출하지는 않았다.

④ 새로운 말하기 방법을 소개하지 않았고 학자들의 견해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말하기와 관련된 일반적인 개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06 사과는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면서 정중하고 공손하게 말해야 한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는 있으나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가)에 제시된 대화의 기본 원리에 관한 내용이다.

② (나)에서 건의하는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③ (가)에서 남학생이 문병을 가서 대화 상황과 대화 상대에 맞지 않게 ‘안녕하세요?’라는 안부 인사를 한 사례를 통해 대화 내용이 올바르게 대화 상대에 맞지 않는 말하기는 적절한 말하기가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④ (가)에 제시된 사례에서 남학생은 문병의 상황에 맞지 않게 ‘안녕하세요?’라는 안부 인사를 하여 예의에 어긋나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 문병할 때는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하루 빨리 건강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등 입원한 상대방의 상황에 맞는 인사 말을 해야 한다.

07 ㄱ, ㄴ, ㄷ의 여학생은 본관에 도서관을 새로 만들어 달라는 실현하기 어려운 방안을 제시하면서 새로 만들 수 없다면 차라리 도서관을 없애는 게 낫다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는 별관을 도서관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점을 각인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부담을 느끼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ㄷ. ㄹ의 남학생은 본관의 빈 교실을 도서관으로 활용하게 해 달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ㄹ. ㄹ의 남학생은 먼저 인사말을 하며 교장 선생님께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볼 때 공손성의 원리에 따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관의 빈 교실을 도서관으로 활용한다면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차분하게 이야기하면서 상대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ㄱ. ㄱ과 ㄴ는 개인이나 단체가 의견이나 희망 사항을 내놓는 건 의하는 말하기로, 이때는 부탁할 때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야기해야 한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면서 자신의 마음을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은 사과하는 상황의 말하기 방법이다.

08 상대 높임 표현은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으로, 주로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상대 높임의 격식체에는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가 있고, 비격식체에는 ‘해요체, 해제’가 있다. <보기 1>의 ‘있습니다’는 격식체 중 아주높임인 하십시오체이다. <보기 2>의 ㉠ ‘누굽니까?’ 또한 하십시오체이다.

[오답풀이] ① ㉠는 비격식체 중 두루높임인 해요체이다.

②, ⑤ ㉡와 ㉢는 격식체의 아주낮춤인 해라체이다.

④ ㉣는 격식체의 예사 낮춤인 하계체이다.

09 ㉠의 ‘어머니께서는 어디에 계셔?’에서 ‘어머니’는 서술의 주체이다. 주체 높임 표현은 기본적으로 서술어에 어미 ‘-(으)시-’를 붙이거나 주격 조사 ‘이/가’ 대신 ‘께서’를 사용하여 실현하며, ‘계시다’ 등의 주체 높임말을 사용하여 실현하기도 한다.

[오답풀이] ① ‘다녀왔습니다’는 청자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하십시오체’를 사용한 상대 높임 표현이다.

③ ‘할머니’는 서술의 객체로, ‘모시다’라는 객체 높임말을 통해 높이고 있다.

④ 어머니는 ‘할머니께 여쭙고’ 공원에 간 상황으로, 서술의 객체인 ‘할머니’를 ‘여쭙다’라는 높임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높이고 있다.

⑤ ‘할머니’라는 주어를 주격 조사 ‘께서’ 및 ‘나가시면서’와 ‘오라셨어’에 사용된 ‘-(으)시-’를 통해 높이고 있다. 이는 주체 높임 표현에 해당한다.

10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았-/었-’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⑤의 ‘-었-’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하여진 사실인 양 말하는 의미를 지닌다. 나머지는 모두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②, ③, ④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임을 나타낸다.

11 간접 높임은 주어와 관련된 대상인 신체의 일부나 소유물, 생각 등 주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을 통하여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인데, 이때 높여야 할 대상을 제대로 높이지 않는 경우와 높이지 말아야 할 대상

을 높이는 경우에는 비문이 된다. ④의 ‘고객님, 불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에서 ‘불편 사항’은 주어인 ‘고객님’과 관련된 대상이므로 이를 높여 ‘있으시면’으로 표현한 것은 높여야 할 대상을 제대로 높인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고객님, 피자 나오십니다.’는 주체를 높이는 어미 ‘-시-’를 사용하여 ‘피자’를 높이고 있다. ‘피자’는 청자의 소유물이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높이지 말아야 할 대상을 높인 경우에 해당한다. ‘고객님, 피자 나오입니다.’가 바른 높임 표현이다.

② ‘할아버지의 눈은 할아버지의 신체의 일부이므로 이를 높여 할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여야 한다. ‘할아버지께서는 아직도 눈이 매우 밝으시다.’가 바른 높임 표현이다.

③ ‘선생님께서 너희들 빨리 집에 가시라고 하네.’는 주체를 높이는 어미 ‘-시-’를 잘못 사용하여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을 높이지 않고 높임의 대상이 아닌 ‘너희들’을 높이고 있다. ‘선생님께서 너희들 빨리 집에 가라고 하시네.’가 바른 높임 표현이다.

⑤ ‘연설’은 ‘회장님’과 관련된 말이지만, ‘계시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라는 의미의 ‘있다’를 높이는 말이기에 ‘연설이 계시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높이지 말아야 할 대상을 높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 문장에서는 연설을 듣는 청중을 고려하여 청자를 높인 상대 높임 표현도 함께 적용해야 하므로 ‘다음은 회장님의 연설이 있으오니 경청해 주세요.’가 바른 높임 표현이다.

핵심 꼭 읽! 간접 높임

- 간접 높임의 의미: 주어를 직접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어와 관련된 대상, 즉 주어의 신체 일부, 소유물, 생각을 통해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
- 간접 높임의 유형

주어와 관련된 사건	예 할아버지께서는 병환이 <u>있으시다</u> .
주어와 관련된 사물	예 할아버지께서는 안경이 <u>있으시다</u> .
주어의 신체 일부	예 할아버지께서는 피부가 <u>붉으시다</u> .
주어와 관계된 사람	예 할아버지께서는 딸이 <u>있으시다</u> .

12 ㄷ의 ‘쓰여졌다’는 ‘쓰다’에 피동 접사 ‘-이-’가 붙은 ‘쓰이다’로 피동의 의미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데도, ‘-어지다’를 겹쳐 만든 불필요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오답풀이] ① ㄱ의 ‘먹혔다’는 ‘먹다’에 ‘-히-’라는 피동 접사를, ㄴ의 ‘찢겼다’는 ‘찢다’에 ‘-기-’라는 피동 접사를 결합해 만든 피동 표현이다.

② ㄴ의 ‘부과되었다’는 ‘부과’에 ‘-되다’를, ㄹ의 ‘밝혀졌다’는 ‘밝히다’에 ‘-어지다’를 결합하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④ ㄹ의 ‘잡았다’는 주어 ‘그’가 자기 의지대로 도둑을 잡는 행위를 하는 능동 표현이며, ‘밝혀졌다’는 ‘그가 도둑을 잡았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의해 밝혀지는 동작을 당하는 피동 표현이다.

⑤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들 때는 ㄴ과 같이 능동문의 주어 ‘선생님이’가 피동문의 부사어 ‘선생님에’로 바뀌며, 능동문의 목적어 ‘사진을’은 피동문의 주어 ‘사진은’으로 바뀐다.

관자쌍의 주의

ㄹ에 쓰인 ‘밝히다’는 ‘밝다’에 피동 접사 ‘-히-’가 붙은 형태로 오해하기 쉬워요. 여기서 ‘밝히다’는 피동사가 아닌 ‘드러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내용, 생각 따위를 드러내 알리다.’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언론에 사건의 전모를 자세히 밝히다. / 경찰에게 이름과 신분을 밝히다.’와 같이 사용되요.

13 • 학생들이 현재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 →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과 일치하는 현재 시제로, 어미 ‘-ㄴ-/-는-’이나 ‘-(으)ㄴ-/-는’이 쓰이며, 부사어 ‘지금, 이제’ 등을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 동생은 어제 교실 창문을 ㉡뒀었다. →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앞서는 과거 시제로, 어미 ‘-았-/-었-’, ‘-더-’나 ‘-(으)ㄴ’이 쓰이며, 부사어 ‘어제, 야까’ 등을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 다음 주 일요일에 고향에 ㉢갈게. →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나중인 미래 시제로, 어미 ‘-겠-’이나 ‘-(으)ㄹ’이 쓰이며, 부사어 ‘내일, 모레’ 등을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14 밑줄 친 부분은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직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인용하는 표현으로,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직접 말을 전하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준다.

[오답풀이] ① 전문가가 화재의 원인이 불별더위에 의한 자동차 부품 과열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화재를 낸 책임의 주체를 밝히지 않으려 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화재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가 자신의 의견을 ‘추정된다’라는 피동 표현을 통해 제시하여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④ 밑줄 친 부분은 직접 인용 표현이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내용만 끌어다 쓰고 그 형식은 유지하지 않은 채 인용하는 것은 직접 인용 표현이 아니라 간접 인용 표현이다.

⑤ ‘추정된다’는 피동 표현을 중복 사용한 것이 아니다.

핵심 꼭 읽! 피동 표현의 종류와 실현 방법

종류	실현 방법	예
파생적 피동문	• 동사의 어간 + 피동 접사 ‘-이-, -히-, -라-, -기-’ • 체언 + ‘-되다’	• 도둑이 경찰에게 <u>잡혔다</u> . • 법안이 <u>통과되었다</u> .
통사적 피동문	동사나 형용사 어간 + ‘-아지다/-어지다’, ‘-게 되다’	• 비밀이 그에 의해 <u>밝혀졌다</u> . • 진실은 <u>드러나게</u> 되었다.

01 <보기>와 같이 표준어로 바꾸면 말하는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지역 방언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향토적 정서나 친근감은 사라진다.

02 전공의가 사용한 용어는 특정 직업군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이다. 환자 보호자와 같은 일반인과 대화하는 상황에서는 의학 분야의 전문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야 한다.

03 인물 2는 인물 1과 달리 비격식체인 '해요체'와 감탄사를 많이 사용한다. 또한 된소리와 'ㄹ'을 첨가하여 발음하거나 미완성형 문장을 사용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부가 의문문을 사용한다. 두 인물이 사용하는 듣기·말하기 방법을 살펴보면 인물 1은 남성, 인물 2는 여성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성별에 따라 특징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다른 것은 성 역할을 구분짓는 사회적 고정 관념에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04 서준은 할머니가 사용한 제주도 지역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할머니는 서준이 사용한 청소년 세대의 사회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05 엄마의 '안 돼, 저녁 먹기 전에 얼른 다녀와.'는 부탁하는 상황에 맞지 않는 말하기이다. 부탁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말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다음 주는 예약이 어렵다고 하는구나. 오늘 시간을 내서 다녀오면 안 되겠니?' 정도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06 손주의 입장에서 거절하는 상황의 말하기이다. 이때 손주는 할아버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거절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완곡하고 정중하게 말해야 한다.

07 ㄱ은 주체 높임법, ㄴ은 객체 높임법, ㄷ은 상대 높임법이다. ㄱ~ㄷ 모두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08 '이 상품은 요즘 인기가 많은데요.'가 높임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다. 이 문장은 주체를 높이는 어미 '-사-'를 사용하여 사물인 '옷'을 높여 표현했기 때문에, '이 상품은 요즘 인기가 많은 옷이에요.'로 고쳐야 한다.

09 '우리의 관심을 모았던 그 문제가 드디어 그에 의해 해결되어졌다.'에서 '해결되어졌다'는 이중 피동을 사용한 잘못된 표현이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을 모았던 그 문제가 드디어 그에 의해 해결되었다.'로 고쳐야 바른 표현이 된다.

10 ㄱ에서는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고, ㄴ에서는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나타낸다. ㄷ에서는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말하는 것을 나타낸다.

11 '할인 쿠폰을 사용하여 구매한 상품은 반품 및 환불되지 않습니다.'의 '환불되지'가 피동 표현이다. 이는 환불해 주지 않는 업체 측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

12 ㄱ은 '명수는 자기가 나중에 내린다고 말했다.'로, ㄴ은 '조카가 나에게 비 내리는 소리가 좋냐고 물었다.'로 바뀌어 한다.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큰따옴표가 사라지고, 조사 '라고'가 조사 '고'로 바뀐다. 또한 문장 종결 어미는 평서문은 '-다'로, 의문문은 '-냐'로 바뀌며, 상대 높임 표현과 인칭 대명사가 달라진다.

01 지역 방언은 각 지역의 향토적 특성을 담고 있어 생동감이나 현장감 등의 표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역 방언

을 표준어를 바꾸어 쓰면 의사소통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만, 지역 방언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향토적 정서나 친근감은 사라진다.

채점 기준	배점
방언을 표준어로 바꿨을 때 나타난 표현 효과의 차이를 장점과 단점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6점
방언을 표준어로 바꿨을 때 나타난 표현 효과의 차이는 설명하였으나, 이를 장점과 단점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지 못하였다.	4점
방언을 표준어로 바꿨을 때 나타난 표현 효과의 차이를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2점

02 전공의는 의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일반인인 환자 보호자에게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 보호자와 같은 일반인과 대화할 때는 의학 전문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전공의가 사용한 용어의 명칭을 정확히 쓰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가져야 할 태도를 올바르게 서술하였다.	6점
전공의가 사용한 용어의 명칭은 썼으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가져야 할 태도는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4점
전공의가 사용한 용어의 명칭을 정확히 썼으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가져야 할 태도를 서술하지 못하였다.	2점

03 두 인물의 듣기·말하기 방법을 살펴보면 인물 1은 남성, 인물 2는 여성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인물 1이 '하십시요체'라는 격식체를 많이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인물 2는 '해요체'라는 비격식체를 주로 사용한다. 발음을 할 때 인물 2는 '조끔'과 같은 된소리와 '저걸로'처럼 'ㄹ'을 첨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인물 2는 '야호, 뭐, 아'와 같은 감탄사를 많이 사용하거나, '뭐…….'처럼 미완성형 문장과 '안 그래요?'처럼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부가 의문문을 사용한다. 이는 인물 1과 인물 2의 성별에 따른 듣기·말하기 방법의 차이로 성 역할을 구분 짓는 사회적 고정 관념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인물 2가 인물 1과 다른 듣기·말하기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를 서술하고, 그 차이를 두 가지 이상 제시하였다.	6점
인물 2가 인물 1과 다른 듣기·말하기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를 서술하였으나, 듣기·말하기 방법의 차이를 한 가지만 제시하였다.	4점
인물 2가 인물 1과 다른 듣기·말하기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와 그 차이를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2점

고득점 전략

인물 1과 인물 2가 어떤 언어적 차이를 보이는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비교해 보도록 해요. 우선 인물 1은 일정하게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물 2는 ‘해요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물 1은 ‘너무 달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데 비해, 인물 2는 ‘가끔 한 잔 먹는 건데 괜찮겠조, 안 그래요?’라고 인물 1에게 동의나 확인을 구하며 완곡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를 비교할 기준을 찾아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이 나타나는지 파악해 보세요.

- 04** 할머니는 ‘무신거 험시니’와 같은 제주도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고 있고, 서준은 ‘갑툭튀’라는 청소년 세대의 사회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둘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할머니와 서준이 사용한 방언의 종류를 모두 정확히 쓰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를 올바르게 서술하였다.	6점
할머니와 서준이 사용한 방언의 종류를 모두 정확히 썼으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를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4점
할머니와 서준이 사용한 방언의 종류를 하나만 쓰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2점

- 05** (가)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엄마의 ‘안 돼, 저녁 먹기 전에 얼른 다녀와.’라는 말은 부탁하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말하기이다. 부탁을 받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명령하듯이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부탁하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 (해) 줄래?’라는 식으로 완곡하게 말하여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상황에 맞지 않는 말하기를 정확히 찾고 이를 바르게 고쳤으며, 그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6점
상황에 맞지 않는 말하기를 정확히 찾고 이를 바르게 고쳤으나, 그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4점
상황에 맞지 않는 말하기를 찾았으나 이를 바르게 고치지 못하고, 그 이유도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2점

- 06** 제시된 대화를 손주의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하는 상황이다. 이때 손주는 할아버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절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완곡하고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채점 기준	배점
어떠한 말하기 상황인지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해당 상황에서 대화할 때의 주의 사항을 올바르게 서술하였다.	6점
어떠한 말하기 상황인지는 파악하였으나, 해당 상황에서 대화할 때의 주의 사항을 올바르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4점
어떠한 말하기 상황인지를 파악하지 못하였고, 해당 상황에서의 주의 사항 또한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2점

- 07** ㄱ은 문장의 주체, 즉 주어인 ‘할아버지’를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높이고 있는 주체 높임 표현이다. ㄴ은 문장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조사 ‘께’와 ‘드리다’라는 객체 높임말을 통해 높이고 있는 객체 높임 표현이다. ㄷ은 청자인 ‘할아버지’를 ‘-세요’라는 해요체를 통해 높이고 있는 상대 높임 표현이다.

채점 기준	배점
ㄱ~ㄷ에 쓰인 높임 표현의 유형과 높임의 대상 모두를 올바르게 제시하였다.	6점
ㄱ~ㄷ에 쓰인 높임 표현의 유형은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나, 높임의 대상은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4점
ㄱ~ㄷ에 쓰인 높임 표현의 유형과 높임의 대상을 일부만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2점

핵심콕! 높임 표현

종류	의미	실현 방법
주체 높임 표현	서술의 주체, 즉 문장에서 주어를 높여 표현하는 것	- 주격 조사 ‘께서’를 붙임. -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으)시-’를 붙임. ‘계시다, 주무시다’ 등 주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를 사용함. - 예 • 아버지께서 운동을 가신다. • 할아버지께서 곤히 주무신다.
객체 높임 표현	서술의 객체, 즉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여 표현하는 것	- 부사격 조사 ‘께’를 붙임. ‘모시다, 드리다, 여쭙다’ 등 객체를 높이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함. - 예 • 나는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다. • 내일 어머니를 모시고 갈게.
상대 높임 표현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것	-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됨. ‘하십시오체(아주높음), 하오체(예사 높임), 하계체(예사 낮춤), 해라체(아주낮춤)’의 격식체와 ‘해요체(두루높임), 해체(두루낮춤)’의 비격식체가 있음. - 예 • 할머니, 진지 잡수십시오. • 수환아, 밥 먹어라. • 우리 영화 보러 갈래?

- 08 '이 상품은 요즘 인기가 많으신 옷이에요.'는 주체를 높이는 어미 '-시-'를 사용하여 높임의 대상이 아닌 '옷'을 높이고 있는 잘못된 표현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이 상품은 인기가 많은 옷이에요.'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채점 기준	배점
높임 표현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 그 이유를 쓰고, 높임 표현이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쳤다.	6점
높임 표현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 그 이유를 썼으나, 높임 표현이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치지 못하였다.	3점

- 09 '해결되어졌다'는 '해결'에 피동의 뜻을 더하는 '-되다'를 붙이고, 다시 '-어지다'를 붙여 이중 피동 표현이 되었다. 따라서 '해결되었다.'로 고쳐야 바른 표현이 된다.

채점 기준	배점
피동 표현과 관련하여 잘못된 표현을 찾아 잘못된 이유를 명확한 문법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잘못된 표현을 바르게 고쳤다.	6점
피동 표현과 관련하여 잘못된 표현을 찾아 잘못된 이유를 명확한 문법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으나, 잘못된 표현을 바르게 고치지 못하였다.	4점
피동 표현과 관련하여 잘못된 표현을 찾았으나, 잘못된 이유를 명확한 문법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지 못하였고 바르게 고치지도 못하였다.	2점

- 10 ㄱ의 '먹었다'는 이미 먹는 행위를 끝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문장의 '-었-'은 말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낸다. ㄴ의 '부었다'는 목구멍이 이전에 부어서 지금까지 부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문장의 '-었-'은 말하는 시점에서 볼 때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임을 나타낸다. ㄷ의 '다 지었다'는 앞으로 농사를 짓지 못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문장의 '-었-'은 말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말하는 것을 나타낸다.

채점 기준	배점
ㄱ~ㄷ의 선어말 어미 '-았-/었-'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각각 올바르게 서술하였다.	6점

ㄱ~ㄷ 중에서 선어말 어미 '-았-/었-'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두 가지만 올바르게 서술하였다.	4점
ㄱ~ㄷ 중에서 선어말 어미 '-았-/었-'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한 가지만 올바르게 설명하였다.	2점

- 11 '할인 쿠폰을 사용하여 구매한 상품은 반품 및 환불되지 않습니다.'에서 '환불되지'는 '환불'에 '-되다'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이는 환불해 주는 행위의 주체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환불해 주지 않는 업체 측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쓴 표현이다.

채점 기준	배점
피동 표현이 쓰인 부분을 찾아, 그 의도를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6점
피동 표현이 쓰인 부분은 찾았으나, 그 의도를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3점

- 12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에는 큰따옴표를 생략하고, 조사 '라고'를 조사 '고'로 바꾼다. 또한 문장 종결 어미는 인용절이 평서문인 경우 '-다'로, 의문문인 경우 '-냐'로 바꾸며, 상대 높임 표현과 인칭 대명사도 다르게 한다. ㄱ은 '나'라는 인칭 대명사를 '자기'로 바꾸고 종결 어미 '-다'와 조사 '고'를 사용하여 '명수는 자기가 나중에 내린다고 말했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ㄴ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삼촌은 자신을 말하는 것이므로 인용절의 '삼촌은'은 생략하고 종결 어미 '-냐'와 조사 '고'를 사용하여 '조카가 나에게 비 내리는 소리가 좋으냐고 물었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채점 기준	배점
ㄱ과 ㄴ 모두 간접 인용 표현으로 올바르게 바꾸고, 그 때 나타나는 형식상 차이를 두 가지 이상 서술하였다.	6점
ㄱ과 ㄴ 모두 간접 인용 표현으로 올바르게 바꾸었으나, 그 때 나타나는 형식상 차이를 한 가지만 서술하였다.	4점
ㄱ과 ㄴ 중에서 간접 인용 표현으로 한 가지만 적절하게 바꾸고, 그 때 나타나는 형식상 차이를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2점

학기 중간고사

384~393쪽

01 대화 화제를 제시하며, 대화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02 ⑤ 03 ⑤ 04 ① 05 ② 06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지, 예상 독자의 특성에 부합하는지, 매체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료인지 판단하여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07 ③ 08 ⑤ 09 ④ 10 인간은 측면과 정면을 동시에 대표적인 이미지 면으로 가지는데, 부위에 따라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 면이 다르기 때문이다. 11 ⑤ 12 ④ 13 ④ 14 ③ 15 시의 구성 요소인 화자, 운율, 상상, 표현 기법은 이 시의 주제인 고향에 대한 화상과 그리움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16 ① 17 ⑤ 18 할머니가 해야 할 일을 외 할머니가 대신 수습함으로써 결말에서 할머니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19 ① 20 ⑤ 21 ③ 22 ⑥는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적절하게 떼어 붙여 새로운 장면이나 내용을 만드는 편집 기법이고, ⑥는 화면을 삽입하여 화면의 특정 동작이나 상황을 강조하는 편집 기법이다. 23 ③ 24 ⑤ 25 참나무가 글쓰이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26 ② 27 ④ 28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01 서술형

예지는 “우리 모두의 관심 분야인 과학 기술 분야에서 각자 읽은 책 내용을 소개해 보자.”라고 대화를 나눌 화제를 제시하고 있고, “우선 서준이부터 이야기해 볼까?”라며 대화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02 ⑦는 모두의 공통 관심 분야와 관련한 책을 읽고 친구들끼리 각자 읽은 책의 내용을 공유한 후에 하려는 일이다.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 간의 대화를 통해 책의 내용에 대한 공유가 끝났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컴퓨터 검색대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어와 관련된 도서 목록이 나오므로 다양한 책을 검색할 수 있다.

② 책을 도서관에서 찾아볼 때에는 도서 청구 기호를 적어서 해당 서가로 가야 한다.

③ 책의 차례를 살펴보면 책이 담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책의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며 자신의 수준에 맞는지, 관심 분야와 관련된 내용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로봇에 대한 책을 찾아 읽으려는 것이므로 관심 분야와 관련된 것인지, 기간 내에 읽을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03 ⑤는 『인공 지능, 미래를 꿈꾸다』를 읽은 정연의 독서 감상평에 대해 서준이 제기한 문제이다. 정연이 해당 책을 읽고 난 후의 생각과 느낌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서준은 『○○ 과학 기술자들』을 읽었으며 친구들에게 이 책이 적정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② 정연은 『인공 지능, 미래를 꿈꾸다』를 읽었다. 정연은 이 책의 저자가 인공 지능을 가진 로봇이 인류에게 엄청난 편리함을 가져다주겠지만, 그 결과가 인류의 행복을 보장하진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고 말하고 있다.

③ 서준은 『○○ 과학 기술자들』을 읽었다. 서준은 적정 기술이 친환경적인 자원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게 하

고, 누구나 쉽게 그 기술을 배워 쓸 수 있게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④ 예지는 『□□가 들려주는 미래 과학 이야기』를 읽었다. 예지는 과학 기술의 산물을 무작정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다.

04 (나)는 로봇 공학자를 소개하는 글이고, [자료 1]에서는 로봇 공학에 필요한 지식이 제시되어 있을 뿐 로봇에 대한 개념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①이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2문단에서 로봇 공학자는 로봇 공학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자료 1]에 로봇 공학에 필요한 지식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자료 1]을 활용하여 2문단에서 로봇 공학자가 쌓아야 할 전문 지식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③ 3문단에는 로봇 공학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서술되어 있다. [자료 2]에서는 3문단에 없는 로봇 공학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자료 2]를 활용하여 3문단에 로봇 공학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4문단에서는 미래 사회에서의 로봇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자료 3]에 로봇 수요의 증가에 따른 로봇 공학의 중요성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자료 3]을 활용하여 3문단에 로봇 공학의 전망을 추가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는 로봇이 여러 장치로 이루어져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 1]과 [자료 3]을 통해 로봇 공학은 여러 공학 분야가 융합되어 있고 협업이 필요한 융합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자료 1]과 [자료 3]을 활용하여 2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은 적절하다.

05 (가)를 보면 글의 목적에서 자신의 꿈인 로봇 공학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로봇 공학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면 예상 독자인 청소년들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글의 목적이 로봇 공학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주제를 ‘로봇 공학자에 대한 소개’로 정한 것은 적절하다.

③ 인터넷 매체에 글을 올리기로 한 계획을 볼 때 인터넷 매체에서는 사진, 동영상, 음악 등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③은 적절하다.

④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 글이므로 내용을 ‘처음-가운데-끝’으로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나)의 2문단에서는 로봇 공학자가 하는 일을, 3문단에서는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⑤은 적절하다.

06 서술형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 가운데 내용을 선정할 때는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자료인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자료인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얻은 믿을 만한 자료인지, 글을 전달하려는 매체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료인지, 예상 독자의 요구나 기대, 관심, 배경지식에 부합하는 자료인지 고려해야 한다.

07 2문단과 3문단의 내용은 인과 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음 뿐더러 3문단의 첫 문장은 의문문이므로 ㉔ ‘그러므로’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3문단의 내용이 2문단에 내용을 첨가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 아니므로 ㉓의 ‘또한’ 역시 적절하지 않다. 3문단은 2문단의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전제로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이라는 새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㉔는 ‘그렇다면’, ‘그러면’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가)의 주제와 (나)의 내용을 볼 때, 로봇 공학자라는 제목이 매우 포괄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글의 주제인 ‘로봇 공학자에 대한 소개’와 4문단의 내용을 고려하여 (나)의 제목을 ‘상상을 현실로 이루어 내는 로봇 공학자’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㉔에서 ‘유망한 미래 사회의 직종으로’는 ‘미래 사회의 유망한 직종’이나, ‘미래 사회가 유망한’의 중의적 의미를 가진다. 글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 ‘유망한 미래 사회의 직종으로’를 ‘미래 사회의 유망한 직종으로’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가)에서 인터넷 매체에 글을 올리겠다고 하며 사진이나 동영상, 음악 등의 자료를 활용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홍○의 말’을 인용할 때, 그의 사진이나 인터뷰 동영상상을 활용하여 함께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㉔가 포함된 문장은 미래 사회에서 로봇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하여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 시제를 사용하여 ‘존재가 될 것입니다.’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고득점 전략

고쳐쓰기는 전체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 단어 수준에서 이루어져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이 계획하기 과정에서 설정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에요. 그다음 상투적인 표현이나 무의미한 단어를 삭제하고 접속어나 지시어, 피동문 등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해요. 이와 같이 고쳐쓰기와 관련된 문제는 각 수준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잘못된 부분은 글을 쓴 목적에 맞게 고쳐야 함을 전제하고 있어야 해요.

08 (라)에 촉각 상과 시각 상에 대한 개념이 제시되어 있다. 촉각 상은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상으로 나타낸 것이고, 시각 상은 주체가 본 그대로의 상을 나타낸 것이다.

오답풀이 ① (다)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 벽화의 대부분은 동물 벽화가 아니라 무덤 벽화이다. ② (마)에 따르면, 촉각 상은 시각 상에 비해 ‘진리의 전달’에 보다 유리한 이미지이다. ③ (라)에 따르면, 촉각 상이란 촉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로,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촉각 상은 촉각적 경험으로 얻은 인식을 주관적인 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가)에 따르면, 인간은 진화해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옆면과 앞면이 동시에 대표적인 이미지 면이 되었다. 따라서 인간이 직립 보행을 하면서 앞면이 인간을 대표하는 이미지 면이 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9 더 읽고 싶은 글에 대한 새로운 독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읽은 후’에 할 수 있는 독서 활동이다. 이 글을 읽는 과정에서 독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글을 읽을 때에 질문을 만들고 그 답을 찾으며 읽는 것이 좋다. 따라서 ①과 같이 질문을 해 보며 읽는 것은 적절하다. ② 독서를 하던 중에 뜻을 모르는 단어는 그 의미를 찾아보며 읽어야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포치’의 뜻을 찾아보는 것은 적절하다. ③ 글을 읽을 때에 중요한 내용은 메모를 하거나 밑줄을 그으며 읽는 것이 좋다. 촉각 상과 시각 상은 이 글의 핵심어이므로 각각의 개념을 적어 두는 것은 적절하다. ⑤ 글을 읽을 때에는 글을 읽기 전에 예측했던 내용들을 확인하며 읽어야 한다. 따라서 ⑤와 같이 자신이 예측한 내용을 확인하며 읽는 것은 적절하다.

핵심체크! 읽기 과정에 따른 읽기 방법

읽기 전	• 읽기 목적을 정하거나 확인함. • 제목, 사진, 그림 등을 통해 전개될 내용을 예측함.
읽는 중	•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을 확인하며 읽음. • 글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만들며 읽음. • 주요 내용이나 궁금한 점 등을 기록하며 읽음. •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의 주장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면서 읽음. •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아가며 읽음.
읽은 후	• 글의 중심 내용이나 주제를 정리하거나 요약함. •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깨달은 점을 정리함. • 더 읽고 싶은 책을 찾아 새로운 독서 계획을 세움.

10 서술형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는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구성이지만 측면 상과 정면 상이 섞인 혼합 형식이 나타난다. 이는 측면과 정면을 동시에 대표적인 이미지 면으로 갖고 있는 인간을 표현할 때 부위에 따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면을 그리다 보니 생기는 것이다.

11 (마)에서 고대 이집트 벽화는 파라오나 귀족처럼 신분이 높은 존재를 그릴 때는 촉각 상에 가깝게 그린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그림 속 주인공은 촉각 상에 따라 얼굴과 다리는 측면의 모습을, 가슴과 눈은 정면의 모습을 그려 신체 부위에 따라 편의적으로 봉합하는 방식으로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라)에서 시각 상은 주체가 본 그대로 상을 나타낸 것이라 하였는데, (다)를 보면 원근법을 따른다는 것은 주체가 보는 위치에 따라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형태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시각 상과 관련 있다. 그러므로 ⑤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은 시각 상에 따른 것이고 아는 대로 그리는 것은 촉각 상에 따른 것이다. <보기>의 그림은 네바문이라는 신분이 높은 존재가 사냥하는 모습을 촉각 상으로 그린 것이므로 아는 대로 그린 것이다.

② <가>에서 「늑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문」은 얼굴과 다리는 측면 상을, 가슴과 눈은 정면 상을 그린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그림에서는 인간의 대표적인 이미지 면인 정면과 측면을 한꺼번에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다>에 따르면, 이집트의 벽화는 대부분 무덤 벽화로 내세에서의 삶을 그린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그림에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고대 이집트인들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마>에서 아는 대로 그려진다는 것은 영생을 약속받는 것이며 촉각 상은 이런 '진리의 전달'에 보다 유리한 이미지라고 하였다. <보기>에서 가운데에 서 있는 인물은 촉각 상에 따라 그려졌으므로 이 인물을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부여했다는 것은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었다는 것이다. 이 시에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자연물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② 이 시의 후렴구인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는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꿈에도 고향을 잊을 수 없다는 화자의 심리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후렴구는 매 연마다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시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③ 각 연의 마지막 행은 ‘~는 곳’, 또는 ‘~던 곳’의 반복을 보이는 데, 이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은 운율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

⑤ 1연에서는 시각적·청각적·공감각적 이미지, 2연에서는 시각적·공감각적 이미지, 3, 4연에서는 시각적·촉각적 이미지, 5연에서는 시각적·청각적 이미지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고향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13 ‘얼룩빼기 황소, 질화로, 이삭’ 등은 향토성을 느끼게 하는 소재로, 화자는 이러한 소재를 사용하여 고향을 평화롭고 아늑한 모습으로 그려 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이 시의 1연, 2연, 3연, 5연만 행의 수가 같고 4연은 행의 수가 다르며, 행의 길이 또한 일정하지 않다.

② 이 시에 고향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만, 화자의 현재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실개천’은 고향의 모습을, ‘바다’는 누이의 모습을, ‘별’은 고향의 밤하늘을 나타내는 소재일 뿐 고전 시가의 전통적 이미지로 보기는 어렵다.

⑤ 이 시에서 화자는 고향의 모습을 평화롭고 한가로운 이미지로 그리고 있다. 2연과 4연에서 각각 아버지와 아내의 고단한 삶이 드러나 있고, 5연에서 가난한 고향집의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런 모습조차 화자는 그리움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상반된 이미지를 지닌 고향의 모습이라 볼 수 없고, 고향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14 ‘파아란 하늘빛’에 색채 이미지가 활용된 것은 맞지만 고향을 떠나고 싶어 했던 화자의 어릴 적 꿈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꿈과 이상에 대한 동경에 젖어 있던 어린 시절,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나타나 있을 뿐이다.

[오답풀이] ①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에서 청각적 이미지인 ‘울음’을 ‘금빛 울음’으로 시각적 이미지로 전이시켜 표현하고 있다. 이는 ‘게으른’과 어우러져 한가로우면서도 평화로운 고향의 모습이 환기되고 있다.

② ‘젊은 줄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에서 고단한 아버지의 모습이 연상되고 있다.

④ 누이의 검은 귀밑머리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다고 직유법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또한 ‘전설 바다’에서 신비스러운 누이의 모습을, ‘춤추는 밤물결’에서 귀밑머리를 날리며 사랑스럽게 달려오는 누이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⑤ ‘도란도란’은 ‘여럿이 나직한 목소리로 서로 정답게 이야기하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음성 상징어로, 가족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단란한 고향집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15 서술형

서정 갈래의 구성 요소는 화자, 운율, 심상, 표현 기법으로, 이 구성 요소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시의 주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한다.

해설극락! 서정 갈래의 구성 요소

화자	- 시인을 대신하여 시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임. - 화자가 처한 상황과 화자의 어조를 통해 정서와 태도를 드러냄.
심상	-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각적 인상임. - 화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감각으로 구체화하여 생생하게 드러냄.
운율	-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음악적 요소임. - 유사한 음운이나 단어 및 문장 구조의 반복, 행과 연의 규칙적인 배열, 음성 상징어의 활용 등으로 형성됨.
표현 기법	- 효과적이고 미적인 표현을 위해 언어를 꾸미는 방법임. - 비유, 상징, 반어, 역설 등의 표현 기법을 통해 풍부하고 다양한 의미를 형성함.

16 이 글에서는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위로하고 집 밖으로 내보낸 사건과 인물들의 행동을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서술자의 변화 없이 어린 ‘나’의 시선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작품 속 인물인 ‘나’가 관찰자적 입장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등장인물들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서술되고 있지 않다.

⑤ 이 글의 주제는 ‘이념 대립으로 빚어진 한 가족의 비극과 민족적 정서를 통한 갈등 극복’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이념 대립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 간의 대립이지 이 글의 중심인물인 두 할머니의 가치관에 따른 것은 아니다.

완자생의 조언

등장인물의 심리와 행동, 태도 및 내면세계까지 분석해 서술하는 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 가능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서술의 각도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건과 인물의 총체적인 모습을 다각적으로 그려 내지요.

- 17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죽은 삼촌의 환생으로 생각하였다. 외할머니는 그런 구렁이를 위로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웃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웃는 사람들을 향해 호령을 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라)에서 '맑은 정신을 되찾고 나서'와 '할머니가 까무러친 후'라는 표현을 통해 할머니가 구렁이를 보고 까무러쳤다가 사건이 수습된 뒤에야 깨어났음을 알 수 있다.

② 외할머니는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밖으로 내쫓은 후 구렁이를 위로하여 집 밖으로 내보낸다. 따라서 외할머니가 침착한 태도로 혼란한 상황을 수습했음을 알 수 있다.

③ 외할머니가 행한 일을 들은 할머니가 눈물을 흘린 것은 외할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자식의 죽음에 대한 슬픔 때문이다.

④ 고모는 할머니가 까무러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해 주었고, 모자란 다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설명을 보충하였다고 하였다.

18 서술형

구렁이가 나타나자 할머니는 구렁이를 죽은 삼촌의 환생이라 여겨 즐기고, 외할머니가 할머니를 대신하여 구렁이를 위로하고 배웅하며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 구렁이를 내보낸 이후 할머니는 외할머니가 자신을 대신하여 사태를 수습했다는 말을 듣고 외할머니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고마움을 전한다. 따라서 외할머니는 할머니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함으로써 그동안에 있었던 둘 사이의 갈등이 해소된다고 할 수 있다.

- 19 ㉠은 사람들의 출입을 막아 어수선한 분위기를 정리한 후에 차분한 가운데에서 구렁이를 위로하려는 외할머니의 의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을 다른 외부 세력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보기>에서 구렁이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표상하는 실제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처 입은 구렁이는 남북의 대립으로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보기>와 이 글에서 외할머니가 구렁이에게 하는 말을 보면 구렁이는 할머니의 자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할머니가 ㉡과 같이 한 것은 어머니의 정성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④ 할머니의 흰머리를 태우자 구렁이는 할머니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고 사라진다. 따라서 ㉢은 구렁이에게 어머니의 체취, 즉 모성애를 느끼게 하기 위한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⑤ <보기>에서 두 할머니의 대립은 한반도의 현실을 보여 준다고 하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두 할머니가 만난다는 것은 남과 북의 화해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20 월리를 흠치는 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쪽은 지소이다. 채랑은 지소의 말을 따르고 있다.

[오답풀이] ① 'S# 71'에 나타나는 지소의 상상은 멋진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싶어 하는 지소의 소망을 보여 준다.

② 'S# 90'에서 지소는 채랑에게 생일 파티를 안 하겠다고 말하고, 월리를 마르셀 앞에까지만 데려다주겠다고 말한다. 이는 노부인에게 돈을 받으려던 계획을 포기했음을 나타낸다.

③ 'S# 84'에서 노부인은 지소에게 화가의 그림을 소개하면서 그의 그림을 모으고 있었으며,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아들임을 밝힌다.

⑤ 'S# 63'에서 박 이사는 수영에게서 월리를 받아 차 트렁크에 넣고 달아 버린다. 따라서 박 이사와 수영은 월리를 마르셀에서 사라지게 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 21 [A]에서의 '집'은 지소가 행복한 표정으로 생일 파티를 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공간이 아니라, 지소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공간이다.

[오답풀이] ①. ② 개를 훔쳐 사례금 오백만 원을 요구할 것이며, 그 돈으로 집을 구할 것이라는 지소의 말을 통해 볼 때, 지소는 '집'을 얻기 위해 개를 훔친 것이며 지소에게 '집'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⑤ [B]에서 지소는 사례금으로 얻고자 한 그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산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집'이 생일 파티를 위한 공간이 아님을 깨달은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지소가 '집'을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고독점 전략

인물의 생각이나 심리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서사나 극 갈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이 글에서도 지소의 생각이 바뀌는 장면들이 있는데, '집'에 대한 지소의 생각 변화가 그중의 하나죠. '집'에 대한 지소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변화가 작품의 주제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아 두도록 해요.

22 서술형

몽타주 기법은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적절하게 떼어 붙여서 하나의 긴밀하고도 새로운 장면이나 내용을 만드는 편집 기법이다. 이러한 몽타주 편집 기법을 사용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어 사건을 속도감 있게 진행시킬 수 있고,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관객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S# 62'에서는 월리를 흠치려는 사건을 축약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작품의 이해를 돕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서트(Ins.)는 화면의 특정 동작이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삽입한 화면을 말한다. 'S# 84'에 인서트 장면이 없었다면 앞의 'S# 66'에 나왔던 장면을 기억하지 못하는 관객들은 '윤서오'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인서트 장면을 삽입함으로써 '윤서오'가 월리와 관련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게 하고, 이후 노부인의 이야기에 더 주목할 수 있게 한다.

S#(Scene Number)	장면 표시 번호, 시나리오의 구성단위
Nar. (Narration)	내레이션. 장면 밖에서 장면의 진행에 따라 그 내용이나 줄거리를 해설하는 일
C.U. (Close Up)	등장하는 배경이나 인물의 일부를 화면에 크게 나타내는 일
O.L. (Over Lap)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쳐지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
F.I. (Fade In)	화면이 처음에 어둡다가 점점 밝아지는 일
F.O. (Fade Out)	화면이 처음에 밝았다가 점점 어두워지는 일
E.(Effect)	효과음. 장면의 실감을 더하기 위하여 넣는 소리

- 23 이 글의 글쓴이는 봄, 가을, 겨울 순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며, 각 계절에 참나무를 보며 느낀 심적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자연을 상대로 대화하는 내용은 서술되어 있지 않다.

② 소재에 대한 일상적 통념이 아니라 중심 소재인 참나무에 박혀 있던 못을 뺀 것에서 참나무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서술하며 내용을 시작하고 있다.

④ '~ 서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 실천한 적이 있었던가' 등에서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지 못한 자신에 대한 반성을 드러낸 것으로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⑤ 이 글에서 글쓴이는 참나무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을 하고 참나무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24 ㉠은 한 그루 나무와 같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은 글쓴이의 소망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글쓴이는 참나무와의 인연이 참나무에 박힌 녹슨 못을 빼고서부터라고 하였다. 따라서 ㉠은 글쓴이가 참나무와 관계를 맺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에서 글쓴이가 참나무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을 통해 글쓴이와 참나무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다.

③ 글쓴이가 어머니의 건강을 나무에게 빈 것은 나무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기원대로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다. 글쓴이는 이 사건 이후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말을 믿게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은 글쓴이가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말을 믿게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글쓴이는 ㉢을 보면서 사소한 일에도 자주 마음이 흔들렸던 모습 등 과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25 서술형

‘우주 나무’는 사람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나무이다. ㉠은 참나무가 자신의 ‘우주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므로 참나무가 글쓴이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 26 (가)에서 글쓴이는 스마트폰은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 주는 편리하고 유용한 도구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오고 갈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나)에서 중독자들은 대체로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③ (마)에서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친구를 사귀거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유용성을 활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④ (다)에서 필수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몇 개로 한정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⑤ (다)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많으면 스마트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하였다.

- 27 사람에 따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과 공간을 가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가를 따지기보다는 일정 시간이나 공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의 보편적 인식이나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④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 볼 수 있는 ‘스마트 심 센터’ 누리집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②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빈번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 행동을 일일이 스스로 기록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해결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수업 시간, 자습 시간, 가족 간의 대화 시간 등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예절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은 사회의 보편적 인식과 가치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이다.

⑤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의 여러 면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므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 일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비효율적이다. 그러므로 ㉣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해결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고득점 전략

3-(1)단원의 핵심적 내용은 글쓴이의 해결 방안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비판의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준에 따라 해결 방안이 적절한지를 파악해야 해요. 서술형으로 출제된다면 제시된 해결 방안에 대해 비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28 서술형

(바)의 내용으로 볼 때 ‘요술 방망이’는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하면 좋은 것이 되고,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해로운 것이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01 ⑤ 02 ④ 03 ③ 04 ④ 05 ㉠: 궁내 ㉡: 천눈 ㉢: L
06 ⑤ 07 ④ 08 ④ 09 ③ 10 ⑤ 11 ① 12 ① 13 ②
14 ② 15 ② 16 ② 17 ⑤ 18 ① 19 ③ 20 ⑤ 21
① 22 ④ 23 ⑤ 24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차분하게 말
하면서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25 ① 26 오전 원외
시겠습니까. → 오전 원입니다. 27 ⑤ 28 ④ 29 ④

01 정연의 “일정을 조정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밴드 동
아리 친구들의 일정을 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이다.
따라서 재민 측의 일정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에 정연이
공감했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재민은 흥분한 정연에게 진정하라는 비언어적 표
현을 보이면서 “너희 동아리가 처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돼.”라
고 말하며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을 피하고 있다.

② 재민은 정연에게 “지금 우리 반은 갑자기 합창 대회에 참가하
기로 한 거라 다른 참가 팀에 비해 연습 시간이 매우 부족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반이 급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연은 “교내 합창 대회가 코앞이라 너희도 연습 시간
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라고 말함으로써 공감의 태도
를 보이고 있다.

③ 재민은 “너희 동아리는 사 일을 사용할 수 있으니 우리보다 형
편이 나은 거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제안이 정연의 밴드 동
아리에게 더 좋은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제안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더 좋은 것임을 밝히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
법이 될 수 있다.

④ 정연은 “우리 입장만 강요할 수는 없지. 네 요구대로 월요일부
터 목요일까지, 오후 다섯 시부터 한 시간씩 너희가 음악실을 사
용하도록 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에는 재민 측의 양보를 고려
하여 재민네 반의 주중 음악실 사용을 수용하겠다는 의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02 재민은 재민네 반 친구들이 주말에도 연습을 할 수 있도
록 밴드 동아리의 전자 피아노를 빌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를 하는 이유는 주말에는 정연의 밴드
동아리가 하루 종일 음악실을 사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
에 전자 피아노를 빌려 교실에서라도 연습하기 위해서이
다. 따라서 재민네 반이 밴드 동아리의 전자 피아노로 음
악실에서 연습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우리는 매일 오후 다섯 시부터 연습을 하거든. 우
리 동아리는 각기 다른 반의 학생들이 섞여 있어서 특정 시간이
아니면 전체 인원이 다 같이 모이기가 힘들어.”를 통해서 밴드 동
아리 전체 인원은 주중의 특정 시간에 모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반 친구들이 직접 피아노와 바이올린 등을 연주할 거라”라는
재민의 말을 통해서 재민네 반은 합창 대회 때 피아노와 바이올린
을 사용할 계획임을 알 수 있다.

③ 재민은 정연에게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음악실을 동등
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어.”라고 말했다.

⑤ 정연은 재민에게 “주말에는 오전 열 시부터 오후 네 시까지 밴드
지도 강사님이 오셔서 연주 지도를 해 주시기로 했어.”라고 말했다.

03 ㉢은 이어지는 정연의 말을 보았을 때 자기 쪽에서 연습
시간을 조정하고자 상대방이 음악실을 사용할 요일과 시
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상대방을 추궁하기 위한 목적에
서 질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손을 펼쳐 내리는 비언어적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
로 사용될 수 있는데, ‘진정하라는 뜻이’를 통해 볼 때 이는 정연
에게 감정을 가라앉힐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에 이어지는 말을 통해 재민이 정연의 말에 공감을 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비언어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여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의 ‘고개를 가우뚱하며’에서 재민이 정연이 한 말의 의도
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상대방
의 말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는 질문으로 볼 수
있다.

⑤ ㉢에서 정연은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으로 재민의 대안을 받아
들이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 같은 행동 뒤에 이어지는
자신들의 입장만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정연의 말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04 ‘급행’은 [그팽]으로 발음되는데, ‘급’의 ‘ㅂ’과 ‘행’의 ‘ㅎ’
이 만나 ‘ㅍ’으로 축약된 것이다.

오답풀이 ① ‘손난로’는 [손날로]로 발음되는데, ‘난’의 ‘ㄴ’이 ‘로’
의 ‘ㄹ’의 영향으로 ‘ㄹ’로 변한 유음화이다. ‘ㄴ’이 ‘ㄹ’로 교체된 현
상으로 보기 때문에 ㉡의 예로 적절하다.

② ‘동넵’은 [동넵]으로 발음된다. ‘ㄱ’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
라 ‘ㄱ’으로 교체되었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③ ‘왓’은 ‘오- + -아’가 결합된 것으로 모음 ‘ㅛ’와 ‘ㅏ’가 하나의 음
운 ‘ㅑ’로 축약된 것이다.

⑤ ‘숨이불’은 [숨니불]로 발음된다. ‘ㄴ’이 첨가되었으므로 첨가 현
상으로 볼 수 있다.

05 **서술형**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ㅊ, ㅌ, ㅊ, ㅌ), ㅌ(ㅌ, ㅌ, ㅌ, ㅌ, ㅌ, ㅌ), ㅌ(ㅌ, ㅌ, ㅌ, ㅌ, ㅌ, ㅌ)’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하고
이를 비음화라고 한다. 따라서 ‘국내’는 [궁내]로 발음된
다. ‘첫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ㅌ’이 ‘ㄷ’으로
변동이 된 후에 비음화가 적용되어 [천눈] → [천눈]으로
발음된다.

06 유음화는 ‘ㄴ’이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되는 현
상이다. 이에 따라 ‘단란’은 [달란]으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비음화는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ㅊ, ㅌ, ㅊ, ㅌ), ㅌ(ㅌ, ㅌ, ㅌ, ㅌ, ㅌ, ㅌ), ㅌ(ㅌ, ㅌ, ㅌ, ㅌ, ㅌ, ㅌ)’이 ‘ㄴ, ㄹ’ 앞에서 각각 비음인 [ㅇ, ㄴ, ㄹ]
로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달’은 [단]으로 발음해야
한다.

②, ③ 비음화 현상으로 비음 ‘ㄹ,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된다. 이에 따르면 ‘염려’는 [염녀]로, ‘종로’는 [종노]로 발음해
야 한다.

④ 유음화는 비음 ‘ㄴ’이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되는 현상
이다. 이에 따라 ‘실내’는 [실래]로 발음해야 한다.

- 07** ‘입고’는 받침 ‘ㅂ’ 뒤에 ‘ㄱ’이 연결되므로 제23항에 따라 [입꼬]로 발음해야 한다. ‘얹고’는 어간 받침이 ‘ㄷ’이고,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가 ‘ㄱ’이므로 제24항에 따라 [안꼬]로 발음해야 한다. ‘발달’은 한자어로, ‘ㄹ’ 받침 뒤에 ‘ㄷ’이 연결되므로 제26항에 따라 [발딸]로 발음해야 한다. ‘할 적에’는 ‘하-’에 관형사형 ‘-(으)ㄹ’이 결합된 ‘할’의 뒤에 ‘ㅈ’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제27항에 따라 [할찌게]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국밥’은 받침 ‘ㄱ’ 뒤에 ‘ㅂ’이 연결되므로 제23항에 따라 [국뽵]으로 발음해야 한다. ‘신고’는 어간 받침이 ‘ㄴ’이고,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가 ‘ㄱ’이므로 제24항에 따라 [신꼬]로 발음해야 한다. ‘갈등’은 한자어로, ‘ㄹ’ 받침 뒤에 ‘ㄷ’이 연결되므로 제26항에 따라 [갈똥]으로 발음해야 한다. ‘달고’는 어간 받침이 ‘ㄸ’이고,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가 ‘ㄱ’이므로 제24항에 따라 [담꼬]로 발음해야 한다.

② ‘뭉치’의 ‘이’는 형식 형태소이므로 [목시]로 발음된다. 이때 ‘목’의 받침 ‘ㄱ’ 뒤에 ‘ㅂ’이 연결되므로 제23항에 따라 [목씨]로 발음해야 한다. ‘똥다’는 어간 받침에서 ‘ㅎ’이 ‘ㄷ’과 축약되므로 [달타]로 발음해야 한다. ‘읽기’는 겹받침 ‘ㄹ’ 뒤에 어미 ‘ㄱ’이 연결되고 있다. 이 때는 겹받침의 ‘ㄱ’이 탈락되고, 어미의 ‘ㄱ’은 된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일끼]로 발음해야 한다. ‘갈 곳’은 ‘가-’에 관형사형 ‘-(으)ㄹ’이 결합된 ‘갈’의 뒤에 ‘ㄱ’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제27항에 따라 [갈꾼]으로 발음해야 한다.

③ ‘달다’는 받침 ‘ㄷ’ 뒤에 ‘ㄷ’이 연결되므로 제23항에 따라 [달따]로 발음해야 한다. ‘안기다’는 어간이 ‘안기-’로, [안기다]로 발음해야 한다. ‘물질’은 한자어로, ‘ㄹ’ 받침 뒤에 ‘ㅈ’이 연결되므로 제26항에 따라 [물찌]로 발음해야 한다. ‘할밖에’는 어간 ‘하-’에 어미 ‘ㄹ’ 밖’이 연결된 것으로, 제27항의 [물임]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에 따라 [할빠께]로 발음해야 한다.

⑤ ‘넌게’는 ‘제25항 어간 받침 ‘ㅃ, ㅅ’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에 따라 [넌께]로 발음해야 한다. ‘삼다’는 어간 받침이 ‘ㄹ’이고,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가 ‘ㄷ’이므로 제24항에 따라 [삼따]로 발음해야 한다. ‘일시’는 한자어로, ‘ㄹ’ 받침 뒤에 ‘ㅂ’이 연결되므로 제26항에 따라 [일씨]로 발음해야 한다. ‘할 것’은 ‘하-’에 관형사형 ‘-(으)ㄹ’이 결합된 ‘할’의 뒤에 ‘ㄱ’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제27항에 따라 [할꺼슬]로 발음해야 한다.

- 08** <보기>는 자음 축약에 대한 설명이다. ‘똥는다’는 어간의 겹받침 ‘ㅃ’이 ‘ㄹ’로 바뀌어 [똥는다]가 된다. 여기에 유음화가 적용되어 [똥는다]로 발음된다.

[오답풀이] ① ‘백합’은 ‘ㄱ’과 ‘ㅎ’이 만나서 [배합]으로 발음된다. ② ‘말형’은 ‘ㄷ’과 ‘ㅎ’이 만나서 [마형]으로 발음된다. ③ ‘줄지’는 ‘ㅎ’과 ‘ㅈ’이 만나서 [조치]로 발음된다. ⑤ ‘잡히기만’은 ‘ㄴ’과 ‘ㅎ’이 만나서 [자피기만]으로 발음된다.

- 09** ‘술하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ㅌ’이 ‘ㄷ’으로 변동된 후, 자음 축약(거센소리되기)에 따라 ‘ㄷ’과 ‘ㅎ’의 축약이 나타나 [술하다] → [수타다]의 음운 변동을 보인다.

[오답풀이] ① ‘붙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ㅌ’이 ‘ㄷ’으로 변동된 후, 비음화 현상으로 ‘ㄷ’이 ‘ㄴ’으로 변동된다. 따라서 [붙는]→[분는]의 음운 변동을 보인다.

② ‘달하다’는 자음 축약(거센소리되기)에 따라 ‘ㄷ’과 ‘ㅎ’의 축약이 나타나 [다타다]로 변동된 후, ‘티’에서 구개음화가 나타나 [다치다]로 발음된다.

④ ‘책잡하다’는 책의 받침 ‘ㄱ’ 뒤에 ‘ㅈ’이 연결되어 된소리되기(가) 나타나고 ‘잡’의 ‘ㅂ’과 ‘히’의 ‘ㅎ’에서 자음 축약(거센소리되기)이 일어나 [책짜피다]로 발음된다.

⑤ ‘셋노랄다’는 ‘셋-’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셋]으로 발음이 되고, ‘랄’의 ‘ㅎ’과 ‘-다’의 ‘ㄷ’에서 자음 축약(거센소리되기)이 일어나 [셋노라타]가 된다. 이어서 비음화 현상으로 [셋노라타]로 발음이 된다.

- 10** ‘보-+-이-+-있-+-다’는 ‘-이-+-있-’이 축약되어 ‘보였다’가 된다.

[오답풀이] ① ‘가-+-아’에서는 ‘-아’가 탈락되어 ‘가’로 표기한다.

② ‘담그-+-아’에서는 ‘그’의 ‘ㄷ’가 탈락되어 ‘담가’로 표기한다.

③ ‘기쁘-+-어서’에서는 ‘쁘’의 ‘ㄷ’가 탈락되어 ‘기빠서’로 표기한다.

④ ‘건너-+-있-+-다’에서는 ‘-어’가 탈락되어 ‘건넌다’로 표기한다.

한자병의 자연

탈락과 축약은 모두 음운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구분이 어려우며, 모음 탈락은 이중 모음으로의 형태 변화가 없지만 모음 축약은 이중 모음으로의 형태 변화가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구별이 쉬울 수 있어요.

- 11** ‘넋이’는 ‘이’가 형식 형태소이므로 [넋시]로 연음이 일어나면서 ‘ㄱ’ 뒤에 ‘ㅂ’이 이어지게 되어 된소리되기(가) 나타나 [넋씨]로 발음한다.

[오답풀이] ② ‘단팔이’에서 ‘이’는 형식 형태소이다. 따라서 구개음화가 적용되어 [단파치]로 발음한다.

③ 겹받침 ‘ㄹ’은 ‘ㄱ’으로 발음해야 한다. 그러므로 ‘늑지도’는 [늑지도]가 되는데, ‘ㄱ’ 뒤에 ‘ㅂ’이 이어지게 되어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따라서 [늑찌도]로 발음한다.

④ ‘밤낮으로’에서 ‘으로’는 형식 형태소이므로 ‘낮’의 ‘ㅈ’을 연음해야 한다. 따라서 [밤나즈로]로 발음한다.

⑤ ‘했겠지’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ㅂ’이 모두 ‘ㄷ’으로 변동된다. 변동된 ‘ㄷ’의 뒤에 각각 ‘ㄱ’과 ‘ㅂ’이 연결되므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따라서 [헐겐찌]로 발음한다.

- 12**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씩둑’은 [씩둑]으로 ‘ㄱ’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므로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즉 ‘씩둑’으로 적어야 한다.

[오답풀이] ②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그러므로 ‘산뜻’으로 적어야 한다.

③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따라서 ‘걸음’으로 적어야 한다.

④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따라서 ‘깨끗이’로 적어야 한다.

⑤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따라서 ‘반드시’로 적어야 한다.

반자쌍의 조연

‘반드시’와 ‘반듯이’는 서로 구별해서 써야 하는 말이에요. ‘반드시’는 ‘꼭, 틀림없이’라는 뜻이고, ‘반듯이’는 ‘반듯하게’라는 뜻이에요. 한글 맞춤법 제25항에서는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반듯이’는 ‘반듯하다’의 원래 의미가 살아 있으므로 ‘반듯’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보아 원래의 형태를 살려 적은 것이에요. 그러나 ‘반드시’의 ‘반듯’은 ‘반듯하다’의 ‘반듯’과는 의미가 다른 말로 ‘반듯하다’의 어근 ‘반듯’과의 관련성이 없어요. 그런 까닭에 ‘반드시’와 같이 소리 나는 대로 적어요.

13 ㉠은 표준어의 발음대로 적는다는 의미이다. ㉠은 각 형태소가 지닌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본모양을 밝히어 적는다는 의미이다. ‘구름[구름]’, ‘놀다[놀다]’, ‘달리다[달리다]’는 발음과 형태가 동일하다. 그러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길이[기리]’, ‘꽃망울[꼇망울]’, ‘넘어지다[너머지다]’, ‘맞히다[마치다]’는 발음과 형태가 동일하지 않다. 즉,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14 ‘배길’은 ‘배+길’로 1단계를와 2단계를 모두 만족하고 [배깁]로 발음되기 때문에 ㉠의 예로 적절하다. ‘훗날’은 ‘후(後)+날’이다.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만족하고 [훗날]로 발음되기 때문에 ㉠의 예로 적절하다. ‘예삿일’은 ‘예사(例事)+일’로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만족하고, [예산닐]로 발음되기 때문에 ㉠의 예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햇수’는 ‘해+수’로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만족하고 [해쑤]로 발음되기 때문에 ㉠의 예로 적절하다. ‘나뭇잎’은 ‘나무+잎’으로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만족하고 [나문닙]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의 예로 적절하다. ‘갯잎’은 ‘개+잎’으로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만족하고 [갠닙]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의 예로 적절하다.

③ ‘문고리’는 ‘문+고리’이므로 1단계를 만족하지 못한다. ‘잇몸’은 ‘이+몸’으로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만족하고 [인몸]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의 예로 적절하다. ‘꽃잎’은 ‘꽃+잎’이므로 1단계를 만족하지 못한다.

④ ‘콧구멍’은 ‘코+구멍’으로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만족하고 [코꾸멍]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의 예로 적절하다. ‘색연필’은 ‘색+연필’로 1단계를 만족하지 못한다. ‘수돗물’은 ‘수도+물’로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만족하고 [수돈물]로 발음되기 때문에 ㉠의 예로 적절하다.

⑤ ‘웃고름’은 ‘웃+고름’이므로 1단계를 만족하지 못한다. ‘금웅’은 1단계를 만족하지 못한다. ‘베갯잇’은 ‘베개+잇’으로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만족하고 [베갠닐]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의 예로 적절하다.

반자쌍의 조연

사잇소리 현상은 매우 복잡해요. 따라서 문제에 제시된 표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더 간단해요. 사잇소리 현상에서도 사이시옷이 붙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잘 알고 있어야 해요.

15 한글 맞춤법 제2항에서는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으며, 제42항에서는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라고 했다.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의 띄어쓰기는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제41항에서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라고 했으며, 제42항에서는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라고 했다. ‘것’은 의존 명사이고 ‘뿐’은 조사이다. 따라서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실력뿐이다.’로 적어야 한다.

③ 제41항에서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라고 했다. ‘너 대로’에서 ‘대로’는 조사이다. 따라서 ‘너대로’로 적어야 한다.

④ 제45항에서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라고 했다. ‘등’은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이다. 따라서 ‘배 등’으로 써야 한다.

⑤ ‘나 같이’에서 ‘같이’는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제41항에서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라고 했으므로 ‘나같이’로 써야 한다.

배경지식+

‘뿐’, ‘지’, ‘대로’의 띄어쓰기

‘뿐’, ‘지’, ‘대로’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뿐’이 ‘남자뿐이다, 셋뿐이다.’처럼 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적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접미사로 다루어 붙여 쓰지만, ‘웃을 뿐이다, 만졌을 뿐이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을’ 뒤에서 ‘따름’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처럼 쓰이는 ‘-지’는 어미의 일부이므로 붙여 쓰지만, ‘그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 그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대로’가 ‘법대로, 약속대로’처럼 체언 뒤에 붙어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아는 대로 말한다, 약속한 대로 이행한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16 한글 맞춤법 제15항에서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라고 했다. ‘만들’은 ‘만들-+ㅁ’이다. 그러므로 제15항에 따르면 ‘만들’으로 적어야 한다.

오답풀이 ① 제15항의 [붙임 2]에서는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라고 했다. ‘오십시오’는 ‘요’로 소리가 나지만 종결형이기 때문에 ‘오십시오’로 적어야 한다.



③ 한글 맞춤법 제25항에서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라고 했다. ‘꿈’은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으로 접미사 ‘-히’가 붙는다. 따라서 ‘꿈꿈히’로 적어야 한다.

④ 제15항 [붙임 1]에서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고 했다. ‘드러간’은 ‘들-+-어+가다’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말의 활용형이다.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규정에 따라 ‘들어간’으로 적어야 한다.

⑤ 문장에서의 의미로 볼 때 ‘배 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라는 ‘낳다’가 아니라 ‘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다.’라는 뜻의 ‘낫다’가 들어가야 한다. ‘낫다’는 활용할 때 ‘ㅅ’이 탈락하므로 ‘나았어요’라고 적어야 한다.

- 17 (가)의 사례는 개인적 쓰기 윤리를 어긴 것이고, (나)의 사례는 사회적 쓰기 윤리를 어긴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가)와 (나)의 학생들이 모두 글을 읽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표현을 썼다고는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개인적 쓰기 윤리는 글을 쓸 때에 자기 생각이나 느낌, 경험, 의견 등을 거저로 꾸며 쓰지 않고 진실하게 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가)의 학생은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글쓰기를 하고 있으므로 개인적 쓰기 윤리를 어긴 것이다.

② 글을 쓰는 사람의 실제 경험이 말바탕이 되는 수필, 자서전, 회고록, 일기 등과 같은 글을 읽는 사람들은 글의 내용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개인적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가)의 학생은 개인적 쓰기 윤리를 어기고 있으므로 (가)의 학생이 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글의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③, ④ (나)의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찾은 글이나 자료를 그대로 베끼거나 짜깁기해서 자기가 직접 쓴 것처럼 꾸며 제출했다. 이러한 행위를 표절이라 하며, 표절은 다른 사람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며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의 고유한 내용을 원저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행위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

- 18 ‘맛집도사’는 자신이 경험한 일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글로 쓴 것이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글을 쓴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② ‘맛집도사’의 글에 있는 사진은 본인이 찍은 사진이 아니다. ‘맛집도사’는 원저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자신이 찍은 것처럼 글을 썼다.

③ ‘줄거우리’는 “양도 코딱지만큼 주면서~”라고 하며 음식의 양이 적다는 것을 과장하여 표현했다.

④ ‘줄거우리’는 양이 정말 적은지, 배달이 정말 늦은 것인지 등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맛집도사’의 글만으로 ○○ 분식을 비방했다.

⑤ ‘파란하늘’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겠어요.”라고 하며 ‘맛집도사’의 글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뜨리려고 하였다.

- 19 (가)의 상황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해당 지역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쉬우나 지역 방언 때문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오히려 일기 예보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사례 1]의 (가)는 방송에서 일기 예보를 하는 상황으로 불특정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상황이다.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같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다.

④ (나)와 같이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⑤ 지역 방언은 같은 지역 사람들에게는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다.

- 20 (가)와 (나) 모두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세대에 따라 다른 말하기 방식을 보여 주고 있을 뿐이다.

[오답풀이] ① ‘-ㄴ가, -게’는 격식체인데 (가)에서는 이러한 격식체를 사용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격식체를 사용하지 않았다.

② (가)에서 두 사람은 ‘춘부장’, ‘가친’과 같은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③ (나)에서 여학생은 ‘대박’이라는 말로 종결 어미 없이 문장을 끝맺고 있으나, (가)에서 두 사람은 모두 종결 어미로 문장을 끝맺고 있다.

④ (나)에서 학생들은 ‘더럽, 고답이’ 등의 줄임말을 사용하고 있으나, (가)에서는 이러한 줄임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 21 사회 방언은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 안에서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집단 구성원 간에 친밀감 및 동질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해당 집단 밖에서 사용하면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상대방에게 거리감을 줄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전문 용어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같은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 지위의 차이를 느끼지는 않는다.

③ 사회 방언은 해당 집단 밖에서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거리감을 줄 수 있지만, 상대를 무시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지는 않는다.

④, ⑤ 같은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끼리 전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전달에 문제가 생기거나, 거리감을 형성하지는 않는다.

- 22 ㉠의 여학생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행될 수 없는 방안을 건의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② ㉡의 남학생은 여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말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반면 ㉠의 남학생은 자기 처지를 설명하면서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여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③, ⑤ ㉢의 남학생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며 말하고 있고, ㉣의 남학생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상대방의 부담을 줄이는 바람직한 말하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득점 전략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부탁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의문문의 형태를 사용하여 완곡한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의문문의 사용이 어떤 부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 23 ㉠의 남학생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들일도록 말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의 남학생은 여학생의 제안에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거절 의사만을 성의 없이 밝히고 있다. 이러한 말하기는 상대방의 부담을 크게 함으로써 부탁이나 제안을 한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의 남학생은 여학생의 제안에 먼저 공감을 표현한 후, 자기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다.

③ ㉠의 남학생은 사과하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지 않고 말을 하여 더 심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④ ㉠의 남학생은 사과하면서도 “길 막히는 데인지 몰랐어?”라고 말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24 서술형

㉠의 남학생과 같이 건의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칭찬이나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여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차분하게 말하는 것이 건의하는 상황에서의 바람직한 말하기 방법이다.

- 25 ‘-시-’는 문장의 주체, 즉 주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이다. ‘읽으신다’는 ‘읽-+-(으)시-+--ㄴ-+--다’로 분석된다. 따라서 ‘읽으신다’는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오답풀이| ② ‘께서’는 주체를 높일 때 붙이는 주격 조사이다. ‘아버지’에 ‘께서’가 붙어 있으므로 주체 높임이 나타나고 있다.

③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은 주로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ㄴ에서는 청자인 ‘어르신’을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높이고 있다.

④ ‘모시다’는 높임의 뜻을 가지고 있는 특수 어휘로 데리고 가는 대상을 높일 때 사용한다. 따라서 ‘모셔다’는 객체를 높이는 것이다.

⑤ 대상이 되는 부사어를 높여야 할 때 붙는 격 조사가 ‘께’이다. ㄹ에서는 ‘선생님’에 ‘께’가 붙어 있으므로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객체 높임이 사용되고 있다.

26 서술형

‘-시-’는 어떤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높임의 대상임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물건값이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이 말을 사용할 수가 없다.

- 27 이중 피동은 잘못된 피동 표현이다. ‘모여진’은 ‘모이-+--어지-+--ㄴ-’이 결합한 것인데, ‘모이-’에서 ‘-이-’는 피동 접사이고 ‘-어지-’도 피동 표현을 만든다. 따라서 ‘모여진’은 이중 피동이 사용된 것이다.

|오답풀이| ① ‘뒀었다’는 ‘뒀-+--아-+--었-+--다’로 분석된다. 여기서 ‘-아-’는 피동 접사이다.

② 한자어에 ‘되다’가 붙으면 피동 표현이 된다. ‘사육된다’는 한자어 ‘사육’에 ‘되-+--ㄴ-+--다’가 붙은 것이므로 피동 표현이다.

③ ‘잡혔다’는 ‘잡-+--히-+--었-+--다’로 분석된다. 여기서 ‘-히-’는 피동 접사이다.

④ ‘밝혀졌다’는 ‘밝히-+--어지-+--었-+--다’로 분석된다. ‘밝혀지다’는 ‘밝다’의 자동사 ‘밝히다’가 아닌, ‘드러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내용, 생각 따위를 드러내 알리다.’를 뜻하는 동사 ‘밝히(다)’에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 28 ㉠의 ‘소설이다’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없다. 그러나 ‘지금’을 통해서 현재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의 경우 ‘한다’는 ‘하-+--ㄴ-+--다’로 여기서 ‘-ㄴ-’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이다. 따라서 ㉠에서 현재 시제는 선어말 어미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에서 ‘떠날’은 ‘떠나-+--ㄹ’로 ‘-ㄹ’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이면서 ‘네’가 미래에 떠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 경우 ‘지금’을 통해서 현재 시제임을 알 수 있으며 ‘읽은’은 ‘읽은’과 비교해 볼 때, ‘-은’이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형사형 전성 어미에서도 시제가 표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에서는 ‘-ㄹ게’를 통해서 미래 시제가 표현되고 있으며, ㉠에서는 ‘내리겠습니다’의 ‘-겠-’을 통해 미래 시제가 나타나고 있다.

③ ㉠에서는 부사어 ‘지금’을 통해, ㉠에서는 ‘어제’를 통해 시제가 드러나고 있으며 서술어의 시제 표현이 이들 부사어와 시제가 일치한다. 따라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통해 시제를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과 ㉠은 모두 과거 시제이다. ㉠에서는 ‘-았-’이 ㉠에서는 ‘-었-’이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 29 어제 말을 인용한 상황에서 직접 인용은 ‘내일’이지만 간접 인용의 경우 ‘어제’의 ‘내일’은 ‘오늘’이므로 ‘내일’을 ‘오늘’로 바꿔야 한다. 따라서 ‘그는 어제 나에게 오늘 저녁에 집에 있으라고 말했다.’로 바꾸어야 한다.

|오답풀이| ①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1인칭 ‘나’는 행위의 주체가 ‘수호’이기 때문에 재귀 대명사 ‘자기’로 바꾸고 직접 인용문이 평서문인 경우 종결 어미를 ‘-다’로 바꿔야 한다.

② 직접 인용에서 지시 부사 ‘거기’는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여기’로 바꿔야 하고, 명령형은 어미를 ‘-(으)라’로 바꿔야 한다.

③ 직접 인용문의 ‘저’를 간접 인용문에서는 ‘자기’로 바꿔야 하고, 직접 인용의 의문문은 간접 인용에서는 종결 어미를 ‘-냐’로 바꿔야 한다.

⑤ 직접 인용문의 ‘나’는 형을 의미하므로 간접 인용문에서는 ‘자기’로 바꿔야 하고 명령형은 어미를 ‘-(으)라’로 바꿔야 한다.